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 연구

- 캠프의 필리핀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를 중심으로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캠프와 익팅 봉제센터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 4) 연구의 구성

2. 이론적 배경: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 경제

- 1) 사회적 경제는 무엇인가?
 - (1) 사회적 경제의 요건
 - (2) 사회적 경제의 주체
- 2) 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인가?
 - (1)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
 - (2)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
- 3)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현황: 필리핀을 중심으로
 - (1) 한국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 경제 현황
 - (2) 필리핀의 사회적 경제 관련 법 현황

3. 국제개발협력 단체 캠프와 사회적 경제

- 1) 캠프의 현장과 미션
 - (1) 미션과 비전
 - (2) 필리핀 도시빈민의 현장

2) 캠프의 사업지역과 사업내용

- (1) 사업지역
- (2) 주요사업

3) 캠프의 사업과 SDGs 관계

- (1) SDG 1 빈곤종식과 SDG 11 지속가능한 마을
- (2) SDG 2 기아해소와 지속가능 농업,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10 불평등완화
- (3) SDG 3 건강 및 웰빙
- (4) SDG 4 양질의 교육
- (5) SDG 5 양성평등,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 17 파트너십

4) 캠프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을 위한 과정

- (1) 지역조사를 통한 주민의 니즈 파악
- (2) 캠프의 사업 원칙 수립: From the Community, With the Community, For the Community
- (3)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조직 결합 및 공감대 확대
- (4) 현지 전문가 그룹의 결합: 필리핀국립대학 지역개발학과 모린교수

5) 캠프의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

- (1) 사회적 기업 익팅 봉제센터
- (2) 보건 사회적 기업 클리닉 커뮤니티다드
- (3) 친환경 사회적 기업 올가

6)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적인 출구 전략 수립: 땅라우(Tanglaw) 프로젝트

- (1) 캠프와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관계 재설정
- (2) 주민 주도형 종합적인 계획 수립

4. 필리핀 사회적 기업 ‘익팅’ 봉제센터

1) 직업훈련

- (1) 직업훈련의 시작
- (2) 사회적 역량강화와 문제해결
- (3) 직업훈련의 성과
- (4) 에피소드: 유명 디자이너로 성장한 직업훈련생

2) 익팅 런칭

- (1) 역량강화 프로그램
- (2) 법적 조직과 운영 체계

- (3) 생산과 마케팅
- (4)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 (5) 지역사회 공헌

3) 익팅 봉제센터의 자립과정과 캠프

4) 도전과제

- (1) 복리후생 강화
- (2) 저임금 개선
- (3) 신입 종사자들의 교육

5. 사회적 기업 ‘익팅’ 봉제센터 종사자의 삶, 가정과 일 : 설문조사 분석

1) 개요

- (1) 배경
- (2) 항목

2) 분석

- (1) 설문 대상자 분석
- (2) 분석에 대한 설명
- (3) 문항에 대한 통계적 분석

3) 분석결과 총평

6. 결론

- 1) 지속가능을 위한 전제들
- 2) 코로나 시대의 SDGs 지속가능성을 위해

<표 차례>

표 1 코이카 필리핀 민관협력 분야 사업(2010-2020)	19
표 2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내용	25
표 3 캠프 사업과 SDGs 연관성	30
표 4 캠프의 지역조사 현황	31
표 5 직업훈련 과정	39
표 6 직업훈련생 연도별 통계	40
표 7 봉제센터 법적 형태 변천도	45
표 8 등록증	46
표 9 초기 운영체계	47
표 10 안정기 운영체계	48
표 11 현재의 운영체계	49
표 12 익팅 운영체계의 변천	49
표 13 생산, 마케팅의 변천	51
표 14 한국의 지원기관	52
표 15 익팅 네트워크의 확대과정	53
표 16 설문조사개요	57
표 17 월수입 자료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59
표 18 월수입 자료에 대한 단위행렬 검정	59
표 19 월수입 자료에 대한 구형성 가정	59
표 20 가정경제 기여도 응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61
표 21 가정경제 기여도 응답에 대한 단위행렬 검정	61
표 22 가정경제 기여도 응답에 대한 구형성 가정	61
표 23 '집안일에 대한 부담' 응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62
표 24 '집안일에 대한 부담' 자료에 대한 단위행렬 검정	63
표 25 '집안일에 대한 부담' 응답에 대한 구형성 가정	63
표 26 '개인 여가시간 확보' 응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64
표 27 '개인 여가시간 확보' 응답에 대한 단위행렬 검정	65
표 28 '개인 여가시간 확보' 응답에 대한 구형성 가정	65
표 29 지역사회 참여도 응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67
표 30 지역사회 참여도 응답에 대한 단위행렬 검정	67
표 31 지역사회 참여도 응답에 대한 구형성 가정	67
표 32 삶의 만족도 응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68
표 33 삶의 만족도 응답에 대한 단위행렬 검정	69
표 34 삶의 만족도 응답에 대한 구형성 검정	69
표 35 자기 개발욕구 응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70

표 36 자기 개발욕구 응답에 대한 단위행렬 검정	71
표 37 자기 개발욕구 응답에 대한 구형성 가정	71
표 38 익팅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	72

<그래프 차례>

그래프1 직업훈련생 만족도조사	41
그래프2 캠프와 익팅과의 상호관계도	55
그래프3 응답자 연령 분포도	58
그래프4 응답자 성별 비율	58
그래프5 응답자 학력 비율	58
그래프6 응답자 가정 구성원수 분포도	58
그래프7 이주 전, 이주 후, 익팅참여후 월 수입 평균값 비교	60
그래프8 이주 전, 이주 후, 익팅 참여 후 가정경제 기여도에 대한 평균값 비교	62
그래프9 이주 전 가정경제기여도	62
그래프10 이주 후 가정경제기여도	62
그래프11 익팅 참여 후 가정경제기여도	62
그래프12 이주 전, 이주 후, 익팅 참여 후 집안일 부담에 대한 응답 평균값 비교	64
그래프13 이주 전 집안일에 대한 부담	64
그래프14 이주 후 집안일에 대한 부담	64
그래프15 익팅 참여 후 집안일에 대한 부담	64
그래프16 이주 전, 이주 후, 익팅 참여후의 개인 여가시간 확보에 대한 응답 평균값 비교	66
그래프17 이주 전 개인 여가시간 확보	66
그래프18 이주 후 개인 여가시간 확보	66
그래프19 익팅 참여 후 개인 여가시간 확보	66
그래프20 이주 전, 이주 후, 익팅 참여 후 지역사회 참여도 응답에 대한 평균값 비교	68
그래프21 이주 전 지역사회 참여도	68
그래프22 이주 후 지역사회 참여도	68
그래프23 익팅 참여 후 지역사회 참여도	68
그래프24 이주 전, 이주 후, 익팅 참여 후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답변 평균값 비교	70
그래프25 이주 전 삶의 만족도	70
그래프26 이주 후 삶의 만족도	70
그래프27 익팅 참여 후 삶의 만족도	70
그래프28 이주 전, 이주 후, 익팅 참여 후 자기 개발욕구에 대한 응답 평균값 비교	72
그래프29 이주 전 자기개발욕구	72
그래프30 이주 전 자기개발욕구	72

그래프31	익팅 참여 후 자기개발욕구	72
그래프32	조직 미션 이해	73
그래프33	조직 구조이해	73
그래프34	자기역할 이해	73
그래프35	자기 책임감	73
그래프36	자기 만족도	73
그래프37	조직 만족도	73
그래프38	조직 내 관계성	73
그래프39	조직 내 팀워크	73
그래프40	직무외 자기개발	74
그래프41	직무연계 자기개발	74
그래프42	조직의 민주적 운영	74
그래프43	조직 문제해결능력	74
그래프44	조직 활동 참여	74
그래프45	조직의 지역사회 공헌도	74
그래프46	조직 내 성차별	75
그래프47	조직 내 공정성	75
그래프48	조직-종사자 만족도	75
그래프49	조직-삶의질 향상 기여도	75
그래프50	임금향상 욕구	75

<그림 차례>

그림 1	국제빈곤선 추이도	16
그림 2	캠프의 주요 원칙	22
그림 3	보건 사업의 방향	26
그림 4	청소년 리더십 목표	27
그림 5	캠프 농업의 지향점	28
그림 6	사회적 경제 준비과정	33
그림 7	워크샵 그림 및 해석	36
그림 8	땅라우 프로젝트 조직도	37
그림 9	익팅 로고	47
그림 10	네트워크 범위	52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ODA 지원 형식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일시적이거나 구호적인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공여국이나 수원국 모두 책무성을 가지고 개발효과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흐름이다.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인 문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유엔은 전 세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명시했다. SDGs가 선포되면서 공여국과 수원국의 책무성의 중요성이 명확해졌다. SDGs의 이행은 개별국가들이 개별목표를 성취하는 것뿐 아니라 목표간 긴밀한 연계성 때문에 공여국과 수원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상호협력하고 상호책무성을 인정해야 가능한 목표이다. 최근들어 유엔은 SDGs를 위한 주요파트너로 다중 이해관계자 개념을 사용하여 국가 이외에 시민사회, 국회, 민간기업, 공공 및 민간재단 등 다층적 비정부 행위자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영역에서 점점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인류가 처해있는 경제위기, 불평등 심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포용적 경제성장, 사회발전과 환경보호 등과 같은 글로벌적인 이슈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국제개발협력은 빈곤 문제부터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의 이익과 연대를 지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는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부합된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한국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이 해외 사업장에서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협력기관인 코이카는 그동안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NGO들을 지원해왔다. 코이카가 사회적연대경제라는 이름으로 해외현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한 것은 2018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성과지표가 없어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객관적인 판단은 이르다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우리가 가야할 미지의 섬과도 같다. 그것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까지의 그 길이란 멀고도 험한 길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단체인 캠프가 필리핀 도시빈민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지 사회적 기업 ‘익팅’봉제센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익팅’ 봉제센터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요인과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유엔이 제시하고 있는 SDGs 달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익팅의 사례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향후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캠프가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사회적 경제 영역, 농업, 보건, 일자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익팅 봉제센터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캠프가 필리핀의 도시빈민 강제 집단 이주지역 불라칸주 타워빌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조사와 분석,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의 요구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로 시작한 첫 번째 사업이 봉제센터였기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9년여간 활동해온 경험과 자료, 성과지표 등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캠프는 익팅 봉제센터를 자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그 결과 익팅 봉제센터는 2017년 캠프로부터 재정적 자립을 했다. 또한 최근 코비드 19로 필리핀 사회 전체가 락다운 되는 상황에서도 익팅 봉제센터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와 사례 연구로 이루어졌다. 필자는 캠프의 설립자이며 동시에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 총괄책임자로서, 이 연구가 자칫하면 논문이 취해야할 객관성을 놓칠 우려가 있기에, 캠프가 출판한 자료를 인용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캠프의 각종 보고서와 평가보고서, 연간보고서와 사례집, 내부 문서를 일차적으로 이용했으며, 캠프와 익팅에 대한 기존의 논문자료를 분석 검토했다. 또한 이론적 배경을 위한 기존의 문헌 연구와 함께 익팅 봉제센터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량적 평가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현재 익팅에 종사하는 4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기에 가장 최근의 자료이다. 그런 점에서 선행연구와 달리 시기적으로 최근까지의 전 과정을 다루면서 내부 문서를 통해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사회적 기업의 직접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사회적 기업의 측면 분석과 함께 종사자 개인의 가치와 만족도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3) 캠프와 익팅 봉제센터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캠프와 익팅 사례를 분석한 논문으로는 ① 2015년 이상헌의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진화”, ② 2018년 오단이의 “국제개발협력분야 사회적경제 적용사례 연구: 지역사회밀착형 모델을 중심으로”, ③ 2018년 최선인의 석사논문 “Gender Practices in Households: Women Particip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at a Relocation Site in Bulacan, Philippines”, ④ 2019년 필리핀 국립 대학의 대안개발연구소의 “Collective Action to Achieve a Full Life”이 있다. 이외에도 보고서가 있는데, ⑤ 2016년 코이카 정책보고서 「사회적 경제 접근법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혁신방안」, ⑥ 2017년 함께일하는재단의 임팩트 조사보고서 「2017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임팩트 리포트」에 캠프와 익팅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⑦ 2017년 출판한 필자의 『스마일 타워빌』도 있다. 캠프와 익팅 봉제센터에 관한 7개의 논문과 보고서, 단행본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면, 본 논문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1. 이상헌은 익팅 사례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사회적 경제를 최초로 분석했다. 그는 2010년 캠프의 지역조사에 참여한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캠프와 한신대가 함께 진행한 코이카 대학협력(APP)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캠프의 필리핀 사회적 경제분야를 초기 세팅하는 과정에 참여해왔다. 이상헌의 논문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타워빌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역량개발 관점으로 분석하였다.¹⁾ 역량개발의 관점에서 실제로 역량개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가 논문의 주 목적이었다. 분석은 네가지 범주, 즉 이해관계자 참여, 자산과 욕구의 평가, 역량개발 방안의 형성과 집행(제도적 구조, 리더쉽, 지식, 책임성), 역량개발방안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사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상헌은 결론에서 타워빌의 사업은 역량개발이라는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했고, 가능했던 요인 중의 하나로 현지에 상주한 캠프 대표의 개인적인 헌신성에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이해당사자와의 갈등, 봉제 전문성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가장 주목할 점은 주민의 역량강화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 진행하면서 소외된 노동이 없도록 배려하면서 참여를 이끌어낸 점을 평가한다. 타워빌의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목표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이 강점이지만,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경제적 시장에서 살아남는 경영적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제언이었다. 이상헌의 논문은 타워빌의 사회적 경제 영역의 초창기 시기(2011-2014)를 다루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익팅의 도전이 담겨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2. 오단이 역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캠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²⁾ 그의 논문은 활동가들과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캠프가 타워빌이라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 주도적으로 지역밀착형 사회적 경제를 진행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캠프사례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사회적 경제 운영원리인 자발성, 민주성, 관계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성장중심의 개발패러다임이 아닌 인간(공동체) 중심의 개발패러다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쓰고 있다. 이 논문은 활동가와 전문가의 제한된 인원의 심층 인터뷰에 기반한 것으로, 지역밀착형 사회적 경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3. 최선인의 논문³⁾은 인류학 분야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정리되었다. 그는 캠프 필리핀 현장에 2년동

1) 이상헌(2015),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진화”,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29호, 205-241. 이상헌의 분석들은 한상일(2013),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사회적경제 형성전략: 역량개발관점을 중심으로”, 『창조와 혁신』 제6권 제3호, 1-28에서 차용하였다.

2) 오단이(2017), “국제개발협력분야 사회적경제 적용사례 연구: 지역사회밀착형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 17권 1호. 00-00. 캠프 필리핀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와 국제개발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성했다.

3) 최선인(2018), “Gender Practices in Households: Women Particip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at a Relocation Site in Bulacan, Philippines”, 필리핀 국립대학교(UP)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타워빌의 남편들은 요리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나 빨래를 하는 것은 수치로 여기며, 그것은 남편들의 관습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빨래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몫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강제이주 이전부터 경제활동을 해온 사람은 이주한 후이나 익팅에 참여하는 것과 무관하게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는 경향이 많고, 익팅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얻는 정보를 통해 가정 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을 배운다고 했다.

안 파견되어 나나이(여성, 종사자의 현지어)들과 함께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국립대학 인류학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석사논문을 완성하였다. 익팅 봉제센터 나나이들을 강제이주 이전과 이후, 익팅 봉제센터 참여를 계기로 여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문조사하고 심층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흥미로운 연구이다. 그는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와 가정내 주도권을 상관관계로 보는 가설을 설정했으나, 실제 연구 결과 여성의 경제참여가 반드시 가정내 주도권 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나이들은 캠프와 익팅 봉제센터에 참여하면서 경제력과 함께 역량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관습, 가정내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로 여겨지는 성역을 아직까지 깨트리지는 못하고 있는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 최선인의 논문은 나나이들의 정체성과 인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연구이지만, 사회적 기업 익팅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분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4. 가장 최근의 연구가 필리핀 국립대학 대안개발연구소(UP CIDS,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의 풀뿌리시민운동, PO(Peoples Organization)의 관점에서 익팅과 익팅종사자들을 인터뷰한 연구서이다.⁴⁾ 이 논문은 2017년부터 2년간 대안개발연구소가 진행하였으며 캠프도 함께 참여하였다. 대안개발연구소는 아시아의 풀뿌리 시민운동을 당사자 중심으로 글쓰기와 발표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고 기록하게 하므로 역량강화를 도왔던 필리핀 국립대학 내의 연구소다. 이들은 익팅 봉제센터가 풀뿌리운동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이므로, PO 조직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면서 익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짚었다. 타워빌 이주 전후의 삶, PO를 조직하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도전, 그리고 7년간의 PO 경험을 통한 과제들을 서술했다. 익팅이 당면한 도전과제들로, 각 위원회에 소속된 팀원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 낮은 임금에 따른 책임감 부족, 지속적인 훈련과 기술의 발전이 필요함을 꼽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익팅은 다른 큰 기업들과 비교할 때 멤버들간의 평등한 구조, 멤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멤버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수립, 캠프와 필리핀국립대학 등과 같은 신뢰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리고 익팅은 스스로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기에 멤버들로부터 나온 집단적 행동과 단일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온전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대안개발연구소의 논문은 주로 PO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역량강화와 비전설정에 무게를 두었다. 비록 사회적 경제 관점은 아니지만, 사회적 경제가 중시하는 사람중심, 민주적 절차라는 과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5. 2016년 코이카의 정책보고서는⁵⁾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코이카의 민관협력사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국내의 총 30여개의 국내사례를 분석했다. 캠프 사례도 포함되었는데, 지역주민

4)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2020), "Towards a Peoples' Alternative Regionalism-Cases of Alternative Practices in the Philippines", Volume 1. 다른 논문들과 달리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익팅 익팅종사자들의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자서전 쓰기, 이해당사자 토론, 참여워크숍 등을 통해 그들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고, 서로 발표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외부 국제회의에서 발표하게 하는 등 상당 시간을 들여 이루어졌다.

5) 코이카(2016), "사회적 경제 접근법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혁신방안", 한국국제협력단.

이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는 단계임을 설명한다. 지속적인 논의와 모니터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화 단계에 정착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자립도의 중요한 부분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스스로의 기술 향상 부분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종사자들의 주인의식과 시스템 지속성을 강화시켜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민주도형 시스템 구축에 주목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전체 사업의 절반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한계가 있다.

6. **함께일하는재단(함재)**은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공익재단으로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면서 2016년 자체적으로 임팩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동안 지원한 12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⁶⁾ 함재가 지원한 국내외 사회적기업 임팩트 평가에 기반한 보고서는 좋은 일자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프로젝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공동체 기여, 미래세대 양성으로 정리된다. 12개 사례 중의 하나로 캠프의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익팅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예로, 대다수 직원들이 월급은 높지 않지만 만족도는 높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강점을 뽑고 있다. 캠프가 운영하는 지역보건소와 지역청소년리더십 프로그램 등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은 봉제센터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기에 미래세대 양성의 효과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익팅을 사회적기업의 임팩트 측면에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초창기 사업을 담고 있어 제한적이다.
7. 『**스마일 타워빌**』⁷⁾은 필자가 지난 10여년간 필리핀 타워빌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전체과정을 담은 단행본이다. 이 책은 프로젝트의 시작과 타워빌에서의 출발, 좌충우돌 프로젝트 운영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갈등들, 캠프의 파트너들, 캠프가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와 미래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을 스마일 타워빌로 정한 것은 국제개발 현장이 빈곤포르노로 포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필리핀 강제이주지역의 소외된 빈민들이 타워빌이라는 지역 속에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스마일, 웃음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필리핀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늘 웃기를 좋아한다. 특히 타워빌의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늘 웃고 있기에, 타워빌을 방문하는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아이들의 웃음이 늘 감동을 준다. 이 책은 대중을 독자로 한 책이기에, 캠프의 사회적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익팅 봉제센터에 관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담아내기에는

6) 자립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지역내 당사자들의 주인의식과 지도력, 운영역량의 성장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임팩트라는 평가가 사람의 성장이라는 무형의 평가를 하는데 제한적이라는 점을 함께 말하고 있다. 지역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적문제에 몰입한 사회적 혁신가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 색다르다.

7) 이철용(2017), 『스마일 타워빌』, 사단법인 캠프. 필리핀 국립대학의 지역개발학과 교수이자 캠프 아시아의 이사장을 지냈던 모린 교수는 추천사에서 “이 책은 캠프가 지역에서 역량있는 사회적기업과 지역개발사업의 리더를 어떻게 키우고,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경험이 담겨져 있다. 캠프의 스태프들과 지역 리더들, 지역개발 전문가들이 소외된 지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각각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도전과제들을 함께 고민한 흔적이 담겨져 있다”고 쓰고 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4)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6장으로 이루어진다. 1장 서론에서는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대안적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사단법인 캠프와 현지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익팅 사례를 다루었던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최근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익팅 봉제센터 사례분석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향후 사회적 경제를 통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발전하는데 시사점을 찾는 데 초점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장은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다룬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면서 왜 사회적 경제분야가 대안적 모델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 그리고 유엔이 정한 SDGs의 틀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필요성을 다룰 것이다. 또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필리핀의 사회적 경제 주체인 NGO,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주민조직에 관한 법제도를 간단하게 다루고자 한다.

3장은 캠프의 사회적 경제 전반을 다룬다. 캠프의 미션과 비전, 캠프의 현장인 도시빈민 지역을 개괄하고, 그 후 캠프의 지역과 사업내용을 다루면서 SDGs와의 연계성을 짚을 것이다. 캠프가 사회적 경제분야를 준비하는 지역조사의 과정과 원칙 수립과정을 언급하고, 캠프의 핵심 사회적 경제 사업, 익팅 봉제센터, 보건 사회적기업 클리닉코뮤니다드, 친환경 농업 사회적기업 올라를 소개한다. 향후 5개년간의 주민주도형 사업들의 종합적인 출구 전략인 땅라우 프로젝트를 소개할 것이다.

4장은 사회적기업 익팅을 사례분석한다. 준비단계인 직업훈련센터 기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를 역량강화 측면, 운영체계 측면, 생산과 마케팅 측면,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측면, 지역공동체 기여 측면, 익팅의 자립 과정과 캠프와의 관계를 설명한 후, 현재 익팅이 당면한 도전과제를 정리할 것이다.

5장은 사회적기업 익팅 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4장이 사회적기업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5장은 익팅 멤버들, 종사자의 관점에서 강제이주 전과 후, 익팅 참여 세 단계로 나누어 익팅 종사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임금의 수준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익팅에 관한 이해와 결합도는 어느 수준인지 분석할 것이다. 익팅 종사자들의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6장은 결론으로,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들과 과제들을 SDGs의 주제와 함께 기술할 것이다. 캠프의 사회적 경제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와 더불어 코이카 등 한국의 지원단체들에 대한 제언을 함께 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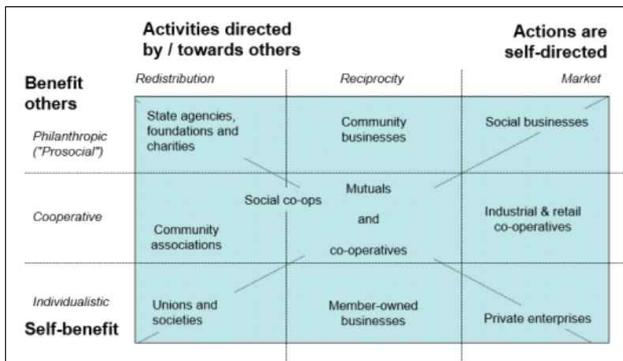
2. 이론적 배경: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 경제

1) 사회적 경제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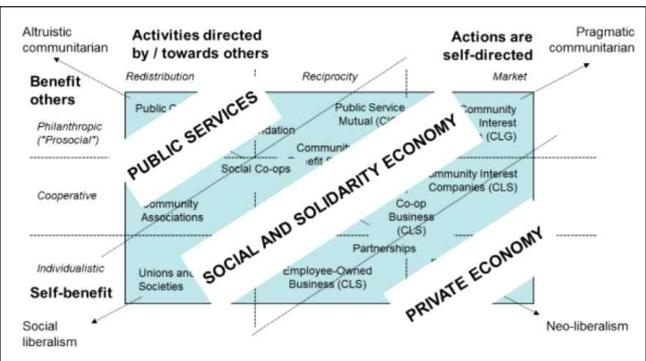
사회적 경제 개념은 단일하게 정리된 것도 없고, 학자나 기관마다 각기 다르다. 그만큼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란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연대기반의 경제활동과 협력을 통틀어 지칭한다. 우리에게 사회적 경제란 용어는 낯설지만, 비교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는 익숙한 편이다.

(1)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접근방식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학자들의 연구실에서 행하는 연구 결과물이 아닌, 사회문제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신념과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본다.⁸⁾ 또 사회적 경제는 법과 제도, 정책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람 중심의 원칙을 만들기 위한 기나긴 일상의 과정이라고 보기도 한다. 사회적 경제가 단일한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래의 그림은 공공의 섹터와 영리의 섹터,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섹터 사이의 관련성을 잘 보여주는데, 가로축은 재분배, 상호성, 시장중심을 말하며, 세로축은 공공성, 협동, 개인으로 분류한다. 공공섹터는 자선단체나 NPO와의 협력을 통해 재분배를 공공의 서비스 영역으로 한다. 반면 사회적 연대 경제는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협력과 상호관계를 통해 경제 행위를 이룬다는 것이다. 반면 시장 중심의 사업을 추구하는 것은 영리섹터라고 하겠다.⁹⁾ **그림00와 00**은 타인에 관한 혜택과 활동이 높을수록 공공서비스 영역이며(공공기관, 자선단체), 개인에 대한 혜택과 개인지향적인 활동이 많을수록 사적 경제 영리섹터(개인기업)임을 보여준다. 사회적 연대 경제는 공공서비스와 영리섹터 중간(커뮤니티 기업, 협동조합)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00] The impact of philosophies of action on enterprise formation



[그림 00] Identifying a paradigm shift that makes social solidarity visible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이 제시한,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는 도푸르니와 드벨테르의 세가지 접근법

8) Rory Ridley-Duff and Mike Bull(2018), "The coming of age of the social solidarity economy", Solidarity economy, people-centred social innovation and social enterprise 3rd EMES-Polanyi Seminar, 4

9) 위의 글, 7-8

은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소개한다. 첫째, 법과 제도적인 접근이다. 이것은 가장 전통적인 접근방식으로, 19세기 시작한 프랑스의 협동조합 활동이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프랑스의 협동조합은 20세기 유럽으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유럽의 사회적 경제는 제도화되어 협동조합 기업과 공제조합, 협회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만들고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를 만든 것도 이러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범적 접근이다. 조직의 명칭과 형식이 협동조합, 공제조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방식이 협동조합이 아닌 형태도 존재한다. 영리목적이 강조되거나 때론 준 공공조직이 이에 해당하는 국가도 있다.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일반적 요건을 갖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인증제도가 없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은 사회적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셋째, 비영리 부분이다. 영리부분과 대비한 구분 방식인데, NPO를 포함한 비영리 부문으로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가 협동조합 개념에 의존해온 것에 비해 미국에서 나온 비영리 부문의 수익 활동은 유럽의 논의를 확장하는 최근의 개념이다.¹⁰⁾

(2) 사회적 경제의 요건

앞서 말한대로 사회적 경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학자들이나 국제기구들은 사회적 경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건에 동의하는 편이다. 사회적경제의 목표는 ① 공공성 중심이다. 자본을 투자하고 그 자본에 대해 보상받는 형태가 아니다. 영리조직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공공성에 있다. ② 자율적인 경영이다. 사회적 경제를 추동하는 동력은 자율성에 있고 그것은 민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공성이 있더라도 자율성이 없는 공공부문과 다르다. ③ 민주적 의사결정이다. 영리회사는 1주 1표이지만, 사회적 경제조직은 1인 1표라는 점이 다르다. 이는 ①번과 연결되어 있다. ④ 사람과 노동을 중시한다. 투자한 자본만큼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과 달리, 배당금 형태의 잉여배당, 활동발전 수익금 적립, 사회적 목적을 위해 수익금을 사용한다.¹¹⁾

사회적 경제는 공공성이 중심에 있으며, 과정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사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모습’을 한 경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영역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체제로서 사회적 경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20세기 경제사회학자 칼 폴라니가 대표적인데, 그는 자본이 사회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은 효용과 이윤의 극대화를 유일한 목표로 삼을 수 없으며, 윤리나 도덕의 제약을 받으며,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본이 인간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칼 폴라니 연구자인 흥기빈은 그의 사상을 사회적 경제와 연결시킨다면,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연대로서의 사회, 규범적 기준으로서의 좋은 삶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¹²⁾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

10)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18), 「사회적 경제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집」, 충북대학교, 8-9

11) 위의 글 참조, 김종걸(2020),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 북사피엔스, 22-23 참조

12) 코이카(2019),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성과지표 활용방안”, 한국국제협력단,

학자인 김종걸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근간이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과 연대의 실천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시장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경제,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행동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운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 과정에서 소속된 모든 구성원이 민주주의자로서 기본소양을 잘 닦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¹³⁾ 칼 폴라니와 김종걸의 말대로, 사회적 경제는 사람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보다 좋은 사회와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3) 사회적 경제의 주체

그렇다면 기업으로 생존하는 경제적 가치와 경제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내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는 누구인가? 사회적 경제주체를 세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영리기구 NGO이다. 유엔이 최초로 사용한 비영리기구 NGO는 국제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기관 IGO에 대비되는 말로 비영리 민간조직을 의미한다. 유엔은 2003년 비영리기관 핸드북을 발간하였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법적 형태는 주로 결사(사단법인)와 재단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NGO 들은 교육, 의료, 지역개발, 사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윤을 나눠 갖지 않는 비영리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차별성이 있지만, 동시에 공공적인 분야의 서비스와 민주적 운영과 자발성 기초 원칙은 유사점이 있다. NGO 중 가계를 위한 비시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¹⁴⁾

두 번째,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 역시 사회적 경제만큼이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주로 영리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사회적기업은 비영리기업, 지역사회 벤처, 사회적 목적기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된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등 주로 보편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목적에 적합한 기업의 형태로 등장한다.¹⁵⁾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 혁신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을 사회혁신 집단이라 부른다. 이들은 사회혁신, 임팩트란 말을 강조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 자체를 중시한다. 사회혁신 그룹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맞는다면, 전통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강조된 소유 지배구조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을 그리 중요하지 않게 본다. 여기서 사회적 경제와의 차별성이 나타난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사회적 혁신그룹을 지원하는 아쇼카재단이 중시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형태나 방식보다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은 사회혁신 그룹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고 하겠다.¹⁶⁾

세 번째, 협동조합이다.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협동조합은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적

23-24; 홍기빈 외 2015

13) 김종걸(2020), 269

14) 코이카(2019), 22, 그림5 참조

15) 충북대학교(2018), 13-14; 코이카(2019), 13-17

16) 김종걸(2020), 237

시장원리와는 다른 협동의 원리에 따라서 활동한다. 협동조합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가장 큰 규모의 세계적인 연대조직을 형성하여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협동조합과 유사한 조직이 공제조합이다. 공제조합은 다양한 위기사항을 공동대처하는 조직으로 클럽성격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로 협동조합이 유럽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중심으로 이윤을 나누고 활동해왔다면, 사회적 주제 즉, 도시재생, 장기실업, 사회적 배제층 등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즉 사회적 협동조합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익 분배 대상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였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1980년대부터 이탈리아에서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등장했지만 그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현재는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 중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별도의 장을 도입하고 있다.¹⁷⁾

2) 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인가?

(1)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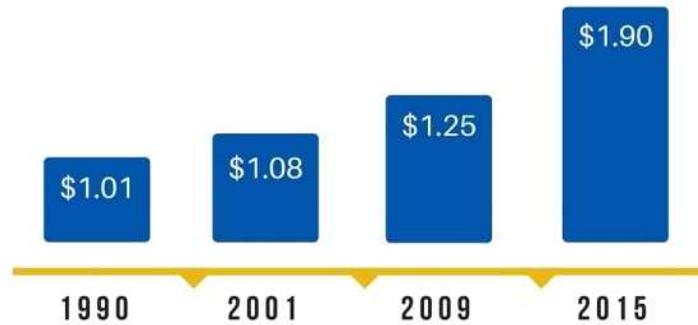
개발도상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절대 빈곤이다. 지난 60년동안 서구사회는 개발도상국에 공적 원조 재원을 수천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커녕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NGO들이 절대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수많은 재원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왜 빈곤은 줄어들지 않은 것일까?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개발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전통적으로 빈곤은 경제적 소득의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세계은행은 국제빈곤선을 1일 1달러에서 2008년 1.25 달러, 2015년 1.90 달러로 상향했다. 국제빈곤선 기준은 실질구매력(PPP) 기준 하루 1.90달러 미만을 의미한다. 국제빈곤선이 올라갔다고 해서 빈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국제빈곤선은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최하 극빈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에서 빈곤을 없애겠다는 말은 소득을 향상하는 말이고, 이것은 경제를 성장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국제개발은 경제성장과 소득증대가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었고, 선진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이식시키기에 바빴던 것이다.

[그림1] 국제빈곤선 추이도

17) 코이카(2019), 8

WORLD BANK GLOBAL POVERTY LINE



Source: worldbank.org

그러나 경제성장 중심의 국제개발만으로는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빈곤 문제를 단순히 소득문제로만 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모든 것이 소득 증대에 맞춰지면서 토지를 비롯한 자연생태계는 이윤을 더 많이 극대화하느라 무차별적으로 훼손되었다. 또한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서구적 가치관이 수입되면서 각 나라마다 전통적인 공동체의 결속은 흐트러졌다. 물량중심의 원조경제와 서구에 최적화된 선진기술에 의존하는 개도국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빈곤의 악순환과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¹⁸⁾

전통적인 의미의 개발원조에 대한 회의는 1990년대 멕시코를 비롯한 개도국들의 경제위기에서 나타났다. 열심히 지원한다고 해도 별 효과없는 빈곤문제에 대해 소위 선진국의 ‘원조 피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원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대안적인 개발 방식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¹⁹⁾ 특히 1990년 UNDP의 인간발전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HDR)를 계기로 인권적 이해 및 접근이 학자와 시민사회 및 UN 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²⁰⁾ 인도의 대표적인 개발경제학자인 아마르티야 센(Amartya Kumar Sen)의 접근방식이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그는 빈곤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면서 역량의 박탈로 이해한다. 그는 역량을 총체적으로 인간 삶에 필요한 요소 즉 식량 주거 교육 문화 정치적 자유 등을 보다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해가는 과정, 즉 정치적 자유, 경제적 용이성, 사회적 기회(교육 보건 등 관련 제도 정비), 투명성, 인간의 안전보장(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한다.²¹⁾ 이같은 센의 설명은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빈곤의 개념을 확장시켰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개발 인식도 변모하기 시작했다.

2000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세계화는 심해지고, 상대적인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18) 이상헌(2015), 207

19) 김태균, 2019; 코이카(2019), 40 재인용

20) 이성훈(2017),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인권기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7-4호, 19

21) 김종걸(2020), 171-174; 김지현, “빈곤의 정의: 다면성과 측정의 한계”, 『국제협력개발』 2015-1호, 13-14

이에 따라 빈곤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문제제기를 넘어 수원국의 원조가 과연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존 국제개발은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원조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원조의 책무성도 함께 강조하며 총체적으로 개발의 효과성을 살펴보자는 의미였다. 200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HLP(High Level Panel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포럼)에서는 원조 효과성을 위한 5개 원칙 중 하나가 상호책무성이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되었고,²²⁾ 2011년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고위급 포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²³⁾

2015년 책무성 문제는 유엔이 SDGs를 선포하면서 그 중요성이 명확해졌다. SDGs의 이행은 개별국 가들이 개별목표를 성취하는 것뿐 아니라 목표간 긴밀한 연계성 때문에 공여국과 수원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상호협력하고 상호책무성을 인정해야 가능한 목표이다. 최근들어 국제개발 영역에서 점점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유엔은 SDGs를 발표하면서 주요파트너로 다중 이해관계자 개념을 사용하여 국가 이외에 시민사회, 국회, 민간기업, 공공 및 민간재단 등 다층적 비정부 행위자의 협치를 SDGs 17번에 배치하고 있다. 시민사회 주도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성장한 새로운 조직의 형태가 사회적 경제이다.²⁴⁾

(2)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적 경제, SDGs

국제개발은 일방적인 원조, 시혜적인 지원, 선진국 기술의존적인 도입에서 벗어나, 지원하는 나라나, 지원받는 나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국제개발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수원국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원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만들어가고자 했다. 국제개발협력 영역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가 가지고 있는 가치적 원리, 사회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이기에 아무리 수백조를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타자로 등장한 것이다.

국제기구들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사회적 연대경제를 “경제적 사회적 목적과 함께 연대를 추구하는 가운데 재화, 서비스, 지식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조직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면서 무엇보다도 전 세계의 공통 아젠다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산적인 고용을 증진시키며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고 노동권 존중, 노동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유엔 산하 기구인 UNDP 역시 최근들어 사회적 경제의 확산을 통해 빈곤퇴치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UNESCO도 유엔의 SDGs 이행을 위해 시민들의

22) 파리회의에서 채택된 5개 원칙은 ① 개도국 파트너 국가의 주인의식과 주도권, 개발주권을 존중한다. ② 공여주체는 협력대상국이 요청하는 개발정책과 사업에 개발프로젝트의 방향과 내용을 일치하도록 한다. ③ 원조 공여주체간의 정책 및 사업조율을 선행하여 공여주체측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④ 모니터링과 평가를 동원하여 개발프로젝트의 성과물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공여주체와 협력대상국은 상호책임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23) 코이카(2019), 41

24) 코이카(2019), 42

핵심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접근법과 SDGs 이행의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경제는 SDGs 이행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²⁵⁾

사회적 경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현재 인류가 처한 경제위기, 불평등 심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등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SDGs 목표에서 가장 특징적인 공동가치인 “No one left behind”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제개발이 빈곤 문제부터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기능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의 역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외적으로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연대를 지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특성을 강조하고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사회적 경제가 SDGs 중에서 인권, 평화 거버넌스, 사회정의의 가치들을 어떻게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참여, 포용적 경제, 풀뿌리접근과 자율성의 가치는 SDGs의 참여와 연대, 혁신, 자발적 연계와 자율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⁶⁾

[표00] SDGs와 사회적경제의 핵심 가치 연계성

참여 (Particip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연대경제의 핵심가치로서 민주적 거버넌스 •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 사용자, 수혜자들의 참여 • 공유된 책임성 • 참여적 운영방법을 통한 수혜자들의 권능 부여 • 개개인의 동등한 발언권과 투표권
연대와 혁신 (Solidarity and Innov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경제모델에 창의적인 대안적 경제 • 다양한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적 경제의 한 형태
자발적 연계와 자율성 (Voluntarily involvement and aut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연대 경제조직들은 자발적 참여와 운영에 기반 • 풀뿌리 접근방식: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필요에 근거한 자발적 사회적 연대 경제 조직들의 형성과 연계 • 기본적으로 자율성에 근거한 활동 • 자발성으로 인해 기존의 시장 경제조직들의 접근할 수 없었던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동, 숙련 향상, 자원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
집단지재/공공재 (Collection G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연대 경제는 협력과 호혜성에 기초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 • 상호 공유된 책임성을 육성 • 집단적, 공공성이 강한 성장과 복지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집단 내의 개인들의 복지도 함께 증진

25) 코이카(2019), 46-48

26) UN ESCWA(2014); 코이카(2019), 57, 표 8 참조

3)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현황: 필리핀을 중심으로

(1) 한국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 경제 현황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이다. 당시 국내의 사회적기업들 중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단체들이 많지 않고, 관련기업이라 하더라도 해외처럼 다양하지도 않았다. 국제개발단체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지원받는 경우도 없고, 창업을 위한 외부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내의 공정무역단체들이 창업하여 현지와의 공정무역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당시 성장세였던 대안여행 단체들도 현지와의 공정여행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시작하고 있었다.²⁷⁾

이후 2010년부터 국제개발협력 영역에서 필리핀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민관협력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민관협력 사업으로 필리핀에 진출한 기관은 총 8곳으로 대학 1곳, 공정무역 단체 2, 기업 및 협동조합 2, 국제개발협력 단체 3곳이다. 사업분야는 농림수산쪽이 6개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행정이 2개, 교육이 2개 사업이다. 코이카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회적연대 경제(사연경) 모델은 캠프, 밀알복지재단, 한양대가 추진하고 있는 총 3개 사업이다. 사연경 모델은 시작한지 얼마안된 코이카의 중점사업 영역이고, 최근 부각되기 시작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본격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10년부터 시작된 민관협력 사업의 일부는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표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필리핀에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캠프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4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표1] 코이카 필리핀 민관협력 분야 사업(2010-2020)

	기관명	기관형태	사업명	사업기간	분야
1	두레생협	공정무역	필리핀 네그로스 설탕 공정무역	2010-2015	농림수산
2	아이쿱생협	공정무역	필리핀 파나이 설탕 공정무역	2010-2015	농림수산
3	캠프	국제개발협력	필리핀 도시빈민 직업 역량 강화 사업	2015-2020	교육
4	캠프	국제개발협력	필리핀 산호세 딸락시 시장 기반 친환경 농업사업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2018-2021	농림수산 (사연경)
5	(주)인포밸리코리아	기업	필리핀 시설팜 구축을 통한 토마토 생산 최적화 및 고품	2017-2021	농림수산

27) 김동훈(2009),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사회적기업”, 『국제개발협력』 2009-3호, 27-30

			질화 지원사업		
6	에코피스 아시아	국제개발협력	필리핀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적 작물 다양화 및 소득 증대	2018-2020	농림수산
7	노량진 수산업 협동조합	기업	필리핀 망그로브 숲 친환경 수산양식 사업	2016-2021	농림수산
8	밀알복지재단	국제개발협력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장애인 옹호를 통한 고용촉진 사업	2019-2021	공공행정
9	밀알복지재단	국제개발협력	필리핀 장애인 고용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셜 프렌차이즈 사업	2018-2021	공공행정 (사연경)
10	한양대	대학	필리핀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	2020-	교육 (사연경)

** 2010-2020 코이카 홈페이지 참조하여 재구성

(2) 필리핀의 사회적 경제 관련 법 현황

앞서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를 비정부기구 NGO,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라고 정리한 것에 따라, 필리핀의 사회적 경제는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필리핀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로 개발 NGO와 협동조합이 손에 꼽히지만, 특별히 People's organization이라는 필리핀 주민조직 또한 중요 주체로 여겨진다. 이 세 주체는 법적으로 등록되어 법인격을 갖출 수 있는 조직으로, 법제화를 통해 정책 제언과 법률 제정에 영향을 행사하기도 하고, 반대로 법을 기반으로 조직과 멤버십에 더 나은 혜택을 주는 이점을 얻기도 한다.

① NGO 관련 법²⁸⁾

필리핀은 NGO 등록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NGO 활동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로부터 지지서(Endorsement)를 받아야 한다. 필리핀 상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Stock Corporations), 비주식회사(Non-stock Corporations), 동업관계(Partnership) 모두 SEC(Securities and Exchange and Commission,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 1) 에 등록을 해야 한다. NGO의 경우, 비주식회사(Non-stock Corporations)에 해당되며, 주로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s) 또는 한국본부의 지부(branch) 형태로 등록하게 된다. SEC 등록 이후에는 필리핀 국세청(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에서 납세자 등록을 하고, 관할 지자체(Barangay 2), City 등 LGU(Local Government Unit)에 등록절차를 밟는다.²⁹⁾

28)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 코이카(2017), 「NGO 길라잡이 - 필리핀 편(개정판)」,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 6.

② 사회적기업 관련³⁰⁾

2012년, 필리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이 시민사회를 통해 소개되었는데 특별히 사회적기업가 연합회는 필리핀의 빈곤감소와 통합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추구했다. 그러나 아직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았고, 필리핀의 약 17만개의 사회적기업은 여러 형태 속에 분산되어 있다.³¹⁾ 필리핀에는 네 가지 형태(주식회사, 자영업, 협동조합, 일반단체)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주요 미션은 고용 창출과 빈곤감소다. 2016년 기준, 필리핀의 사회적기업은 1만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천1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필리핀에 진출한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은 자금지원사업 이후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면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 정부도 사회적기업이 농민운동이나 사회운동에서 시작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 독려하고 있다. 필리핀개발계획에는 사회적기업이 한 부문으로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의 사회적기업은 법적 제도에 기반하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③ 협동조합 관련

필리핀 협동조합은 일찍이 유럽을 통해 협동조합 모델이 들어왔다. 이에 대표적인 인물인 호세 리잘(Jose Rizal)이 스페인 방문을 계기로 1896년 최초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졌으니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 이후 테오도로 산디코(Teodoro Sandiko)가 독일의 협동조합을 본떠 1915년 농촌신용법을 준비하는 등 필리핀의 협동조합은 유럽에서 직접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에는 약 18,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조합원은 약 1,000만 명(인구의 약 10%), 직원은 58만 명 수준이다.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약 60%가 다목적협동조합이며, 그 뒤를 잇는 것이 신용, 소비자, 생산자협동조합이다. 비교적 각 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필리핀 협동조합은 1986년 피플파워 이후, 협동조합 지도자들은 협동조합 친화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1990년 새로운 협동조합법을 제정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지금의 협동조합법은 2009년 개정된 법안으로 협동조합 법에 근거한다.³²⁾ 개정된 협동조합법은 각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이 있다. 이는 실제로 비활성화 되어 있었던 협동조합을 재 등록하거나 병합하여 재조직화하는 촉진제가 되었고, 협동조합의 전체 자산,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³³⁾

29) 법인등록 시, 설립자는 5명에서 15명까지의 성인(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과반수가 필리핀 거주자이어야 한다. 종교법인의 경우는 1명 이상도 설립 가능하다. 이사의 수는 15명보다 많을 수 있지만, 교육법인의 경우는 이사의 수가 5의 배수(5명, 10명, 15명)이어야만 한다

30) 김은영(2019), "우리가 몰랐던 사회적 경제 필리핀 편", 라이프인 9월20일자

31) Benjamin R. Quinones, Jr.(2015), "Public policie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Towards a favourable environment - The case of the Philippines", ILO, 2페이지

32) 필리핀 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 15명, 자본금 15,000페소 이상이 최소 등록 요건, 비조합원 거러에만 세금 부과, 다목적협동조합의 경우 2년 이상 운영 후 정식 등록 가능, 순자산 5천만 페소 이상일 때 자회사 협동조합 조직 가능, 협동조합의 임원은 최소 16시간의 협동조합 기초 훈련과 협동조합 관리에 대한 16시간의 추가 훈련을 받을 것, 조합원과 커뮤니티 복지에 대한 사회 감사를 받을 것

33) 위의 글 참조, Benjamin(2015), "Public policie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Towards a favourable environment - The case of the Philippines" 4page

필리핀의 협동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구호물자 분배에 가담하며 성장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1947년부터 협동조합 관리를 위한 정부기관을 만들어 영향력을 강화한다. 이 정부기관은 현재 협동조합개발청(CDA)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ICA 회원으로도 등록되어 있다(2017). 필리핀에서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국가건설수단으로 여겨지는데, 2018년부터 2022년에 걸쳐 진행 중인 필리핀협동조합개발계획(PCDP)에도 이러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고 정부 주도의 협동조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960년 수천 개의 작은 협동조합이 5개의 훈련센터를 설립하는데, 이 훈련센터가 바로 필리핀협동조합연합회(NATCCO)의 전신이다. NATCCO는 과도한 정부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1977년 설립되고, 이들의 활동은 필리핀 의회에서 협동조합 부문을 대표하는 정당인 Coop-NATCCO(1998)의 창설로도 이어진다. 현재 필리핀 하원의 전체 의석 중 20%는 직능단체나 비정부조직, 사회단체, 각종 소외집단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운영되고 있다.

④ 주민조직 관련

익팅의 초기 조직 모델이었던 Peoples’s Organization은 독립적인 주민들의 멤버십 기반의 조직이다. 협동조합과는 별개의 형태로 SEC(Securities and Exchange and Commission,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에, 등록되어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데, 농부들의 연합회, 노동조합 등도 People’s Organization의 형태에 포함된다. 특별히 이 주민조직은 명확한 리더십과 멤버십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들의 조직으로서,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조직할 수 있다.³⁴⁾

필리핀의 법적인 사회경제 조직의 체계를 볼 때 익팅 봉제센터는 주민조직의 형태로 사회적기업을 설립 운영하고, 이를 발전시켜 협동조합의 단계까지 이룬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빈곤의 감소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사회경제 조직간의 민주적이고 상호 지지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정책 영향력 행사와 사회 변화를 위한 정치 참여에 사회경제 조직이 어떻게 더욱 참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과제는 남아있다.

34) Benjamin R. Quinones, Jr.(2015), 1

3. 국제개발협력 단체 캠프와 사회적 경제

1) 캠프의 현장과 미션

(1) 미션과 비전

캠프는 2007년 설립된 국제개발협력NGO로, 가난을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세상을 꿈꾸고 활동하고 있다. 캠프는 창립초기부터 현재까지 13년동안 필리핀을 주요거점으로 활동하면서, 빈곤지역의 자립형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캠프는 빈곤 퇴치의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모델을 도입하여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커뮤니티에 기반한 교육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주민 참여형 보건 프로그램 등 지역의 필요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추구한다. 또한 단순히 먹고 사는 수준의 생존이 아닌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활동이 2015년 12월,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 외국인 단체로는 처음으로 필리핀 정부 주택개발청(NHA, National Housing Authority) 창립 40주년 기념의 베스트 파트너상을 수상했고, 2020년 11월 NGO로는 최초로 캠프의 활동지역인 불라칸주 산호세델몬테시에서 수여하는 Tanglaw Bayani 2020(베스트 파트너상)을 수상했다.

캠프의 핵심가치는 ‘나눔과 섬김을 통한 세상의 변화’이다. ‘나눔’은 나를 빛나게 하는 가치이며, ‘섬김’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가치, 그를 통한 ‘변화’는 세상을 즐겁게 한다는 의미에서 나눔과 섬김, 변화를 주요가치로 삼고 있다. 캠프의 미션은 소외된 이웃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주요 원칙으로는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개발(From the Community, With the Community, For the Community)을 추구한다.³⁵⁾

[그림2] 캠프의 주요원칙



35) 이철용(2017), 『스마일 타워빌』, 사단법인 캠프, 71

(2) 필리핀 도시빈민의 현장

① 마닐라 최대 도시 빈민 지역 톤도와 바세코

캠프는 기독교 신앙에 바탕하여 아시아의 빈민들을 돕고자 하는 한국교회들을 모아 아시아빈곤선교센터(Center for Asia Mission for the Poor, CAMP)에서 시작되었다. 캠프는 한국본부를 아시아의 빈민선교를 지원하는 총괄적인 형태로 구상하고, 그 첫 지역으로 필리핀을 선정하여 필리핀 현지에 캠프 아시아를 설립하였다.

캠프 아시아는 2007-2009년까지 주로 세계 최대의 빈민가로 일컫는 마닐라에 있는 톤도와 바세코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톤도는 마닐라의 항만을 끼고 있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빈민가로 스모키마운틴이라고 불리는 쓰레기매립장을 포함한 60여만명이 거주하는 최빈곤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전국에서 올라온 가난한 사람들이 부두 하역 등 일용직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톤도는 마닐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바세코는 마닐라 항만지역으로 마르코스 시대에는 철강회사들의 입주가 이루어졌고 시민혁명 이후 빈민들의 이주가 진행되었으며 1990년에 공식적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확정되었다.³⁶⁾

캠프 초기에는 필리핀 빈민 주민조직 ZOTO³⁷⁾와 협력하면서 유치원 리모델링 사업과 태풍 온도이 재난 긴급구호사업, 컴퓨터 직업훈련학교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여름과 겨울 한국교회 청소년봉사단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빈민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도 이어갔다.³⁸⁾ 캠프 아시아는 2009년 사무실을 아예 필리핀 마닐라의 빈민가 바세코로 이주하며 본격적인 사업들을 준비하였다. 필리핀 빈곤현장은 많은 NGO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간의 치열한 영역싸움이 벌어지곤 한다. 빈곤현장이 각종 후원을 확보하기 좋은 시각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다양한 단체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사업을 위해서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 캠프 아시아는 지역에서 이미 활동중인 한국 기독교 NGO단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지역의 중복과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근 톤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필리핀 빈곤현장은 현장의 처절한 만큼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의 갈등이 존재했다.

② 도시빈민 강제 이주민 지역 타워빌

톤도에서 활동하는 중 2009년 9월말 온도이라고 하는 큰 태풍이 몰려왔다. 마닐라 시내의 80% 이상이 물에 잠기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태풍이었다. 톤도와 바세코 등에서 생활하는 빈민들은 주로 강위에 판자로 덧댄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들은 태풍으로 집을 잃었고, 필리핀 정부는 이들을 타워빌이라는 지역에 집단이주 시키기로 결정했다. 사실 필리핀 중앙정부는 1975년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책 제도를 세우면서 이주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1986년 시민혁명을 계기로 도시빈민지역의 최고 빈곤가정의 30%에게 가정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기반으로 이주정책을 세분화하기 시작하였고 도심

36) 위키피디아(<https://ko.wikipedia.org>)

37) ZOTO(Zone One Tondo Organization)는 1970년에 설립된,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지역의 14개 강제 이주지역내 182개 도시빈민단체들의 연합체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풀뿌리시민단체이다.

38) 아시아빈곤선교센터(2008), 『2008 총회 보고서』; 아시아빈곤선교센터(2009), 『2009 총회 보고서』

내 중소아파트 이주, 외곽 이주, 빈민지역 개선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거정책을 실시하였다³⁹⁾. 그러나 계획으로는 이주 지역 내 교육 의료 등의 사회기반 시설이 완비되고 지속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설명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 부재, 사회기반 시설에서의 소외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주 후 다시 빈민지역으로 되돌아 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타워빌(Towerville)은 불라칸(Bulacan) 주의 인구 60만 규모 도시인 산호세델몬테(San Jose del Monte)시에 위치해 있고, 산을 개간해서 주택지를 조성한 곳이다. 이 주택지역은 2003년 한국 ODA와 중국의 차관에 의해 추진되던 마닐라 남북부통근열차 건설사업 과정에서 강제로 철거된 빈민들과, 태풍이나 화재 등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6천여세대(약 5만여 명으로 추산)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타워빌 지역은 NGO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산을 개량하여 5평 남짓한 벽돌집을 뿔뿔하게 지어놓은 곳으로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여건이 예전에 생활하던 마닐라의 빈민촌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해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이었다.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였다. 마닐라에 사는 빈민들은 마닐라 항만에서 일을 하거나, 수도인 마닐라에서 일자리를 찾으면 부족하나마 생계는 해결되었으나, 이곳은 전형적인 도시의존형 경제구조라서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도 형성되지 않았다. 타워빌 남성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먼 도시로 나가 타워빌은 여성과 아이들만 남아 급격한 가정해체가 일어나고 있었다. 캠프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아무도 돕지 않는 타워빌에 사업을 집중하기로 했다.

2) 캠프의 사업지역과 사업내용

(1) 사업지역

캠프의 필리핀 현지법인 캠프 아시아는 타워빌에 위치해있다. 캠프 아시아의 제1 사업장은 타워빌 사업장으로 16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교적 이주 중반기에 조성된 집단이주 지역인 타워빌 5구역 미뉴안에 3,300평 대지에 제1 아시아지역개발센터가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타워빌 6구역 가야가야에 300평 대지에 제2 아시아지역개발센터가 있다. 제1, 제2 아시아지역개발센터에는 캠프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인 사회적기업 익팅봉제센터, 보건 사회적기업인 크리닉코뮤니다드, 친환경농업 사회적기업인 올가를 비롯하여 유치원 2곳, 마을도서관, 리더쉽스쿨, 교회 등이 있다. 제2 사업장은 딸락주 산호세시에 위치한 딸락 사업장으로, 2015년부터 캠프가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양계사업과 농업사업을 진행해왔고, 2017년 딸락 농장을 마련하여 친환경 양계장과 도정시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농업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캠프는 현지 농업법인 쉐바를 만들어 현지 법인 캠프 아시아와 협력하고 있다. 제3 사업장은 마닐라 사업장으로, 마닐라 마카티에 소재하며 캠프의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만든 물품들을 판매하며, 친환경 농업 사회적기업 올가의 제품들과 사회적기업 익팅의 생산품들을 전시 판매한다.

39) Atty. Sinforsoso R. Pagunsan(2015), "NHA Housing Programs and Technologies", NHA

[표2]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내용

사업장 소재	사업장 명칭	내용
마닐라 사업장	마카티 매장	친환경제품 판매장(올가, 익팅 등)
블라칸 사업장	제1 아시아지역개발센터	익팅봉제센터, 주민건강센터, 유치원, 게스트하우스, 농업랩, 가공시설 등
	제2 아시아지역개발센터	유치원, 주민건강센터, 봉제센터, 도서관 등
딸락 사업장	친환경 농장	올가 친환경 양계장
	도정 및 가공센터	도정, 식품가공시설

(2) 주요사업⁴⁰⁾

① 일자리 분야 (Social Enterprise)

‘일자리’가 가져다주는 행복은 단지 ‘돈’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가정에서 경제 주도권을 회복하고, 삶의 열정을 찾아간다. 익팅(IGTING) 봉제센터는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생산과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봉제센터에서 만드는 상품의 자체 브랜드 ‘익팅’으로 알려져 있고 공정무역으로 한국에서도 판매한다.

-사회적기업 봉제센터 익팅(Igting)

사회적기업 봉제센터 익팅(Igting)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를 공유하며 성장하고 있다. 현재는 마닐라뿐만 아니라 세부, 다바오 등 필리핀 전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봉제센터 내 신용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단단한 멤버십을 구축하고 있다.

-가야가야 봉제센터

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가야가야 지역에 봉제센터와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1인 봉제기업

육아나 건강의 이유로 봉제센터 출근이 어려운 지역민들과 봉제기술은 있지만 일감이 없었던 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1인 봉제기업을 양성하고 있다.

-소상인 판매자 협동조합 띵딕 (Tindig)

띵딕(Tindig)은 “통합과 원칙으로 지역 사회를 이끄는 타워빌의 상인조합”의 현지어 줄임말로, 타워빌 내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소상인들이 모여 조직한 판매자 협동조합이다.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가격을 낮추고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여 개인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② 보건 분야 (Health Care)

40) 캠프의 주요사업은 캠프 연간보고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참조.

Health is power!라는 목표로 보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타워빌 지역의 건강 평등권을 지키고자 클리닉, 응급환자수송시스템(Emergency Transportation System, ETS), 보건교육, 보건인력(Health worker) 역량 강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틀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보건 교육과 모니터링단을 조직하고 있다.

-클리닉커뮤니티 (보건 사회적기업)

의료사각지대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클리닉커뮤니티 보건 사회적기업은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타워빌 지역에서 질병 예방활동,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주민 자치 건강 모임, 보건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운영하며 가족과 마을, 지역이 함께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어간다.

-주민 건강 조직 (BKP)

보건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지역 안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2018년, 주민 보건 모니터링단을 조직하여 양질의 보건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역별로 교육, 모니터링, 응급수송을 위한 리더를 선발하고, 교육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학교 모니터링단을 포함하여 약 1,70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활동 중이다.

-고혈압 당뇨 클럽 (H&D Club)

고혈압, 당뇨 등 비전염성질환(NCD)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질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농업 운동 등 건강한 습관 형성을 위한 상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다.

[그림3] 보건 사업의 방향



③ 교육 분야 (Education)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람에게 있다는 신념 아래, 잠재적 역량을 가진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가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change maker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학습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능동적,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학습 지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살룻 (SALUTE)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살룻(SALUTE)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문제

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Change Maker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6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살룻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테드톡을 통한 리더십 교육, 지역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활동 등을 통해 지역과 공동체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 간다. 매년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발표하는 리얼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소년 지역 리더 조직 원스텝 (ONE STEP)

리더십 프로그램 살룻(SALUTE)의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ONE STEP 조직은 ‘ONE Society bringing Transformation through Effective Programs’의 약자로 지역 문제를 탐구하고 변화를 위한 실천 활동에 집중한다. 지역 매거진 발행, 후배 그룹 멘토링, 지역 자원 봉사에 참여하며, 지속 가능한 모임을 위해 복사기 매장을 운영하며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고 있다.

-타워빌/가야가야 유치원 (TECE)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타워빌과 가야가야 지역에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약 180여 명의 3-4세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학부모회에서 자체적으로 급식을 준비하고, 출자금을 모아 문방구를 경영하며 유치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 도서관 캠프리브로 (Kampo Libro)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고,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꿀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프리브로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영화 감상, 종이접기, 독서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들이 사서교사로 일하면서 함께 꿈을 키워간다.

[그림4] 청소년 리더십 목표



④ 농업 분야 (Agriculture)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순환적인 친환경농법을 통해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건강을 선물한다.

기존의 공장식 양계가 아니라, 자연이 선물하는 먹이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자연양계와 두부를 비롯한 친환경제품으로 직접 고객과 만난다. 사회적기업 ORGA 브랜드를 만들어 현지에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튼튼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있다.

-친환경 사회적기업 올라

딸락 농촌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로 닭의 자가사료를 만들고, 이들의 분뇨는 천연 미생물로 발효시켜 작물 재배에 사용한다. 친환경 농업과 동물복지에 기반을 둔 축산·가공식품을 생산하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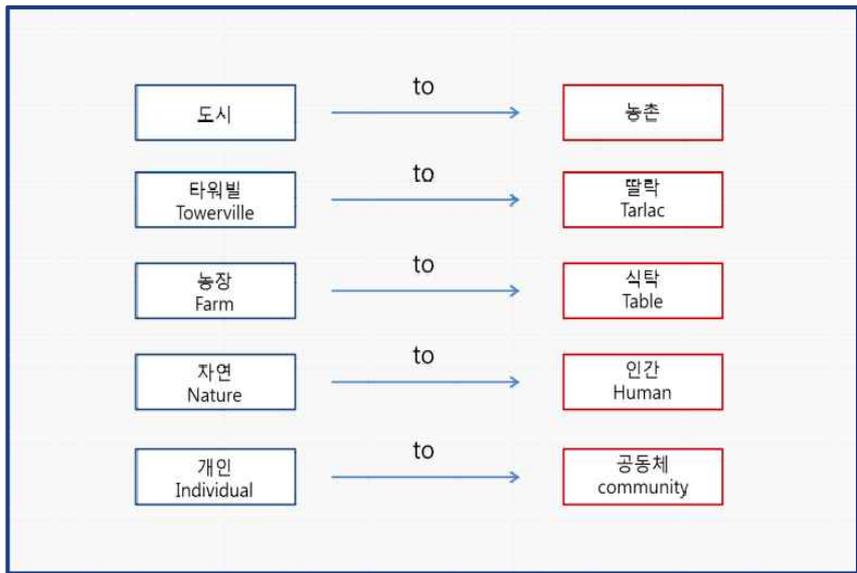
-농산물 가공센터

지역 농가는 중간 상인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지역 주민들은 다시 비싼 가격으로 이를 구매한다. 지역 농부들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도정 시스템을 준비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가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건강한 순환구조를 만들어 간다.

-유통·판매 네이처링크 (Nature Link)

마닐라 마카티에 오픈한 친환경 매장 네이처링크에서는 건강한 먹거리 브랜드 ‘올가(ORGA)’를 통해 직접 생산한 유정란과 갓 도정한 신선한 쌀, 누룽지와 두부, 두부과자와 콩물 등의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으며, 익팅(Igting) 봉제센터의 제품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다양한 친환경 제품으로 Farm to Table의 가치를 실현한다.

[그림5] 캠프 농업의 지향점



⑤ 에너지 & 친환경 분야 (Energy & Eco friendly)

캠프 사업장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고자 노력하며,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와 자연순환 방식의 건축

공정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고 자연친화적인 건축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마을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타워빌/딸락 태양광 설치

필리핀은 전기가 민영화되어 있어 전기세가 평균 소득 대비 매우 높은 편으로, 캠프는 타워빌/딸락 지역 사업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SDGs 7번 과제인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Affordable & Clean Energy)’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 농장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딸락 지역에 적정 기술과 태양광 설비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계사는 지붕 윗부분에 공간을 만들어 대기 순환에 의해 자연통풍이 이뤄지고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태양광을 이용해 달걀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 시스템과 지하수 설비 등을 구축하였다.

-에너지 자립 유치원

딸락 산간지대에 살고 있는 아이따 소수민족 마을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 유치원을 만들었다. 전등이 없어 저녁에는 활동이 어려운 마을에 유치원을 중심으로 전등 시스템을 설비하고, 아이들의 시청각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실에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아이들 뿐 아니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코희망여행

에코희망여행은 여행과 환경이라는 가치를 결합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에너지공단과 하나투어문화재단, 캠프가 함께 진행한다. 에너지·친환경·적정기술 분야의 사회혁신가들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절약 인식 확대 및 환경문제 해결 솔루션에 기여하고자 타워빌/딸락 에너지 빈곤 현장 조사와 워크숍을 통해 운영한다.

3) 캠프의 사업과 SDGs 관계⁴¹⁾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할은 원조국의 책무성 강화, 수원국의 개발주권, 원조다양성, 개발효과성 등 수원국의 맥락에 맞는 개발자율성과 개발다양성 개발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총체적인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에 부합된다고 본다.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SDGs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방법이 사회적 경제이다. 특별히 다양한 기업, 시민섹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경제, 사회, 환경 세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균형있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다. (발표자료 16페이지) 이에 캠프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어떻게 유엔이 제시한 SDGs와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http://ncsd.go.kr/api/UN%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EB%AA%A9%ED%91%9C%20%EC%84%B8%EB%B6%80%EB%AA%A9%ED%91%9C%EB%B0%8F%EC%A7%80%ED%91%9C.pdf>

(1) SDG1 빈곤종식과 SDG11 지속가능한 마을

지역개발협력의 목표인 가난한 지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시적 구호가 아닌 통합적 접근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간다는 점에 해당한다. 특별히 SDG 1번의 세부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빈곤 지역의 빈곤율을 감소하고,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교육과 보건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지역개발 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단순히 서비스와 재화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조직화를 통해, SDG 11번에서 제시하는 민주적인 운영과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SDG2 기아해소와 지속가능 농업, SD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10 불평등완화

캠프의 사회적 경제조직과 다양한 사업들은 일자리 창출로 기아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유치원과 익팅의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제공한 급식프로그램을 통해 5세 미만 아동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친환경 농업을 통해 생태계 유지의 도움이 되며, 회복력 있는 농업을 이행하고자 했다. 또한 직업훈련과 청소년 장학프로그램을 통해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과 성인의 비율을 감소시켰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사업들은 SDG 10에서 목표로 설정한 소득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모든 사람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3) SDG3 건강 및 웰빙

보건 사회적기업 클리닉코뮤니다드 사업과 BKP 주민건강조직의 운영을 통해 보건 인력이 부족한 소외지역 내 보건인력을 양성·훈련하였고, 임산부의 정기 검진을 통해 산모 사망비율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치료가 아닌 예방적 접근으로 의약품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를 위해 고혈압 당뇨 클럽 운영, 식생활 개선 운동 등을 진행하며 보건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보건 분야를 구축해왔다.

(4) SDG4 양질의 교육

커뮤니티 리더로 키우는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과 유치원, 도서관 사업은 양질의 교육에 해당된다. 필리핀의 학제상 유치원을 졸업해야 초등학교 진학이 가능한데, 유치원 운영을 통해 지역의 아동이 최소한의 초등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고등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장학금 지원과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러나 단순히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 아닌 빈곤, 환경, 인권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하고 이해하면서 세계시민 의식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였다.

(5) SDG5 양성평등, SDG17 파트너십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현황을 기반으로 여성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85%이상의 종사자가 여성이며, 이는 가사노동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관리자 혹은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공하였다는 점에서 여성 가장들의 양성평등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필리핀 정부와 학계, 타 시민조직, 한국의 여러 기

간과 자원을 통한 종합적인 개발을 이뤄감으로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SDG17에서 지표로 제시하는 경제적인 수치와는 별개로 공공-민간, 글로벌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보다 중점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3] 캠프 사업과 SDGs 연관성

지역개발 사업의 목표	사업기반	일자리	보건	교육
				
				
				

4) 캠프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을 위한 과정

(1) 지역조사를 통한 주민의 니즈 파악

캠프가 타워빌에 자리잡으면서 시작한 지역조사는 이후 캠프 사업의 길라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캠프는 2010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총 세대수의 10%를 대상으로 지역조사를 진행했다. 두 번의 지역조사를 통해 타워빌의 전반적인 상황과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고, 지역주민의 니즈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사업을 수행해왔다. 지역조사를 통해 파악한 지역의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상당수 가정들의 남편은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마닐라에 머물면서 구걸이나 일용직 노동을 하였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수입도 일정치 않고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그 과정에서 남편이 마닐라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동거를 하는 경우가 잦아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여성 혼자서 평균 4~5명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여성 가장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절망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캠프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했다.

[표4] 캠프의 지역조사 현황

	2010년 지역조사 ⁴²⁾	2013년 지역조사 ⁴³⁾
시기	2010.6-8	2013.6-7

지역	타워빌 1-5구역	타워빌 6구역 가야가야
대상	630가구 (지역주민 10%)	545가구 (지역주민 10%)
조사항목	지역 인프라현황, 고용 및 생계수단, 보건 및 교육상황	보건의료 및 지역개발 환경,교육,여성 포커스그룹인터뷰
조사목적	지역내 서비스 현황, 지역민의 실제적 요구 파악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도출	지역내 정부와 민간 서비스현황, 지역의 니즈파악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빈곤문제 해결 방안 수립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의 생계마련(연료, 음식판매, 봉제, 쌀가게 등) •기술습득을 통한 생계대책 마련 •인근의 병원, 약국 접근성 필요 •지역 안전을 위한 지자체 노력 •정기적인 쓰레기수거의 필요성 •과밀학급, 2-3부제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강한 의지 •직업훈련센터를 통한 기술습득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비전염성질환 대응 요구 •학교시설의 부족과 과밀학급으로 질 낮은 교육환경

(2) 캠프의 사업 원칙 수립: From the Community, With the Community, For the Community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지역조사가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한국 전문가들⁴⁴⁾이 결합한 조사과정에서 세워진 원칙은 캠프의 주요원칙인 From the Community, With the Community, For the Community의 근간이 되었다. 한국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세운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아이템은 외국인인 한국 사람이 정하지 않고, 현지 주민들이 정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국제개발 현장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업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현지에 필요한 사업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역 주민 스스로 정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주민들로부터 나온 결정이 가장 지역에 필요한 것이다(From the Community). 둘째, 이미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중복해서 진행하지 않는다. 캠프가 하는 일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지역과 경쟁하거나 갈등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With the Community). 이미 지역내에서 진행되거나 향후 진행할 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베이커리의 경우 지역 내 다른 베이커리가 운영되어 캠프의 사업을 중단했다. 셋째 캠프의 사업은 일회적이고 구호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지역을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지원기관의 명예나 성공이 아닌 진정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For the Community). 타워빌의 주인은 타워빌 주민이므로 캠프의 출구전략을 처음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타워빌이 처한 빈곤의 상황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42) 캠프, 한신대 지역발전센터(2010), “타워빌 강제이주 지역 설문조사 보고서”; Charisma Gascon(2010), “Towerville Relocation Sites Survey Report”

43) 캠프(2013), 「2013 필리핀 이주민지역 지역조사 결과보고서」, 캠프, 미간행 보고서

44) 당시 조사단에 참여한 한국의 전문가는 한신대 지역발전센터 부소장 이상현교수, 사회적기업 이장 임경수대표, 대안에너지센터 이동근소장, 한국도시빈곤연구소 서종균박사, 한국국토환경연구원 최동진박사, 역사NGO포럼 양미강 위원장, 함께일하는재단 이광택 상임이사, 이명희 연구원 등

일자리에 목적을 둔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는 원칙이었다. 타워빌이라는 커뮤니티내에서 생활밀착형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만든다면, 일과 가정이 병행될 수 있고 스마일 타워빌이 될 수 있다. 타워빌은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는 재화가 머무는 공간이 되리라고 본 것이다. 타워빌은 탈출하고 싶은 지역이 아니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스마일 타워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3)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조직 결합 및 공감대 확대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역조사 주민설명회를 타워빌 1-5구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했다.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였다. 각 마을마다 주민자치조직인 HOA(Home Owners Association)⁴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지역설명회에는 보통 2-30여명의 주민들이 모였고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 지역조사 결과인 일자리, 보건, 교육의 니즈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 지역 내에 일 자리를 만드는 것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설명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대가 커졌다. 두달여의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에 없으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냈다. 그 결과 봉제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유니폼이 일반화된 필리핀에서, 타워빌 지역은 새학기마다 교복을 제때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지역에 유니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곳이 없었기에 비싼 교통비를 들여가며 마닐라까지 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봉제센터를 만들자는 것으로 만장일치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익팅 봉제센터가 만들어졌다.

(4) 현지 전문가 그룹의 결합: 필리핀국립대학 지역개발학과 모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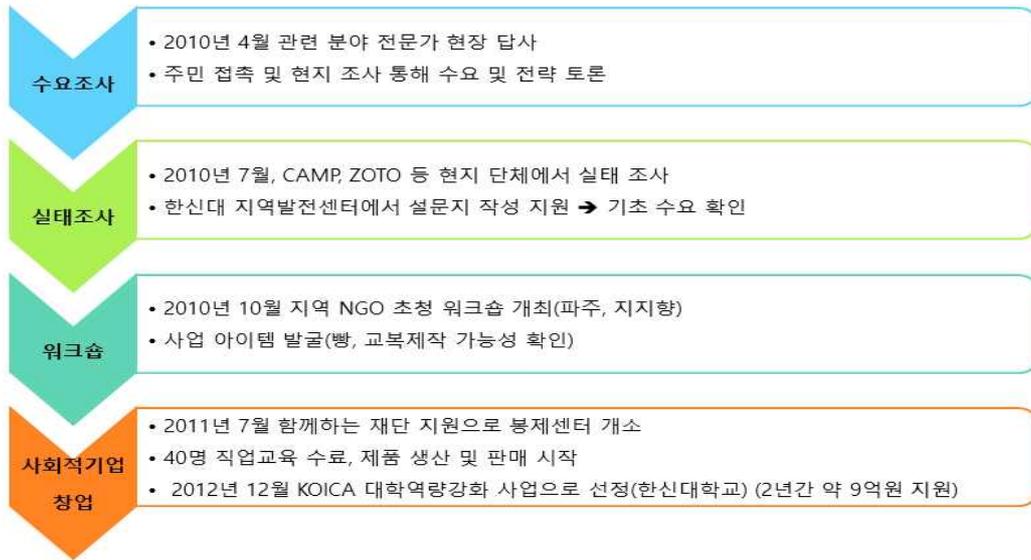
캠프가 타워빌에서 사회적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된 배경은 필리핀 국립대학 지역개발학과 학과장인 모린교수의 협력이 절대적이었다. 초창기 지역조사를 시작할 때 주로 한국 전문가들이 결합했지만, 현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리핀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2011년 모린교수와 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⁴⁶⁾ 그동안 모린교수는 한국단체들의 일방적인 진행방식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캠프는 그의 문제인식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그와 본격적인 협업을 할 수 있었다. 모린교수는 여성운동가이며, 풀뿌리조직에 기반한 지역개발운동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위주의 사업을 하는 것을 매우 우려했다. 특히 빈곤현장의 사업은 오랜기간 빈민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그들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역량강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 래야만 그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모린교수와 필리핀 국립대학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⁴⁷⁾

[그림6] 사회적 경제 준비과정

45) 필리핀은 자치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HOA라고 하는 주민자치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 주민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된 임원들이 지역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46) 당시 캠프 아시아의 매너저인 카리스마 가스콘의 소개로 스승인 필리핀국립대학 지역개발학과 학과장인 모린 씨가 두안 교수와 만남이 이루어졌다.

47) 자세한 내용은 4장 참조



현지 전문가들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외에도 각종 분야에서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필리핀 현지에서 수많은 실패경험들을 알고 있었기에 현지 전문가들의 조언은 캠프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예방약이 되었다. 모린교수와의 만남은 타워빌 사업을 위한 협력 파트너 기관으로 시작했지만 익팅을 통한 타워빌의 변화와 캠프가 진행하는 각종 지역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조언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며 캠프 사업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것에 큰 버팀목이 되었다. 모린교수는 2013년 현지 법인 캠프 아시아의 법인이사로 참여한 후 2016년, 2017년 2년동안 법인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⁴⁸⁾

모린교수와의 인연으로 타워빌은 필리핀 국립대학 지역개발학과의 현장실습의 장이 되면서 매학기 지역개발학과 학생들이 파견되었다.⁴⁹⁾ 캠프는 유피 학생들의 장학금을 기증했고, 현장실습을 마친 졸업생을 현지 스텝으로 고용하여 캠프와 학교 모두 윈윈의 결과가 되었다. 캠프는 필리핀 국립대학의 각종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익팅 봉제센터의 기술과 역량개발을 위한 많은 지원을 받았다.⁵⁰⁾

5) 캠프의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

두차례에 걸친 지역조사에서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요구를 파악했는

48) 모린 교수는 2019년 빈곤현장에서 일하겠다는 신념으로 조기 정년은퇴를 하고 타워빌 사업들에 더 큰 애정을 갖고 협력하던 와중에 취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모린교수는 투병 와중에도 이사회와 각종 모임에 최선을 다하고 참여하였지만 차도를 보이던 취장암이 다시 재발하면서 올해 초 안타깝게 삶을 마감했다. 모린교수는 임종의 순간에도 남편과 지인들에게 익팅을 도와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49) 유피 지역개발학과 졸업반 1년 필수과정인 재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타워빌에서 진행했다. 유피 지역개발학과 현장실습은 졸업반 4학년 두학기를 빈곤현장에 들어가 상주하며 주민들과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평가를 통해 졸업이 가능해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다. 유피의 학생들은 매년 5-8명씩 타워빌에 파견되어 팀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매주 한차례 담당교수가 현장을 방문해 8시간 이상 지도를 하는 강도 높은 수업이었다.

50) 4장 익팅의 네트워크 부분을 참조

데, ① 버는 돈 보다 쓰는 돈이 많다. 당장 생계 대책이 막막하다. ② 지역내 일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뚜렷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다. ③ 지역내 인프라가 부족하다.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내 치안도 불안하다. ④ 학교는 과밀학급과 2-3부제 수업으로 질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⑤ 지역 내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하다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조사를 통해 캠프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그 과제가 명확해졌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시킬 분야가 뭘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 지역주민은 돈만 버는 노동자가 아니라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희망이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강제이주민 지역 타워빌은 돈만 벌면 외부로 탈출하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돈도 벌고 아이도 키우고 지역과 소통하는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조사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난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로, 지역내 보건 문제는 지역의 사회적기업 클리닉 커뮤니티드⁵¹⁾로, 열악한 교육환경은 지역내 도서관과 유치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친환경을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올가로 이어지고 있다.

(1)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 [SDG 1, 5]

익팅은 한국과 필리핀의 전문가들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해서 만들어진 소중한 국제개발협력의 결과물이다. 익팅은 현재 필리핀 정부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고 지난 2017년부터 외부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체다. 사업 운영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와 지역을 위한 CSR 사업까지 작은 규모이나마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통해 빈곤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소득이 증대된다는 점과 종사자/직업훈련생 선발시 여성가장을 우선선발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도를 증가시키고, 조직의 관리자가 모두 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각각 SDG1번과 5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일치한다. 더 나아가 위기 상황에도 지속적인 경영유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코비드 19라는 위기상황에서 코로나의 최전방에서 면마스크와 방호복을 만들며 오히려 더 성장하는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주도형을 목표로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운영과 리더십을 형성했기에 가능했다. 4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2) 보건 사회적기업 클리닉 커뮤니티드⁵¹⁾ [SDG 3]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보건의료는 외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캠프는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서비스 중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주민주도형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접목시켰다. 초창기 2-3년 동안 한국의 지원을 받은 이후, 스스로 보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자립운영을 하고

51) 캠프 이사회 보고자료(2018-2019)

있다. 보건 사회적기업 클리닉코뮤니다드는 현재 타워빌과 가야가야 2곳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인력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주민 건강 조직원을 양성하며 SDG 3번에서 제시하는 개발도상국 지역 내 보건인력을 양성, 훈련,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현재는 1명의 의사와 조산사, 그리고 3명의 커뮤니티 헬스워커가 팀이 되어 운영하며 가야가야 클리닉은 지난 2015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현재 지출대비 130%의 수입을 얻어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타워빌 클리닉은 지난 2019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올해 지출대비 60%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캠프가 일부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의 운영 뿐만 아니라 산모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나 건강검진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기업이 영리적인 목적으로서의 운영만이 아닌 보건 서비스 소외 주민들에게 보다 폭 넓게 보건 예방적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운영중단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정국이 극복된 이후에는 다시금 자립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친환경 사회적기업 올가⁵²⁾ [SDG 2]

필리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는 농업부문이다. 캠프는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의 생태계를 묶는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유기농 자연양계 사업이 시작되었다. 마닐라에 거주하는 한국교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양계로부터 친환경 먹거리사업으로 확대되어 올가의 브랜드 인지도가 알려질 정도로 순항하고 있다. 1천 여명의 개인고객과 40여개의 마트들에 직접 납품을 하여 Farm to Table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 고객층도 외국인에서 필리핀 현지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가의 중점 사항은 친환경 농업과 생산에 있는데, 이는 고객들의 건강향상은 물론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이익의 창출, 넓게는 SDG 2에서 말하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한다. 이 사업은 불라칸 주 타워빌과 농업지역인 딸락에서 생산과 가공을 하고, 그리고 판매처인 마닐라의 마카티에 매장운업을 하는 규모가 있는 사업이다. 이 분야는 아직 많은 투자가 필요하여 코이카의 사회적연대경제 프로젝트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매출액이 재투자되는 현실이지만, 향후 3년 후에는 지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적경제는 단지 매출로만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다. 종사자들의 참여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평가가 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올가는 현재 다양한 생산자 조직과 가공조직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농촌사회에 다양한 계층의 농업집단과 협업을 통해 농촌의 변화와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6)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적인 출구 전략 수립: 땅라우(Tanglaw) 프로젝트 [SDG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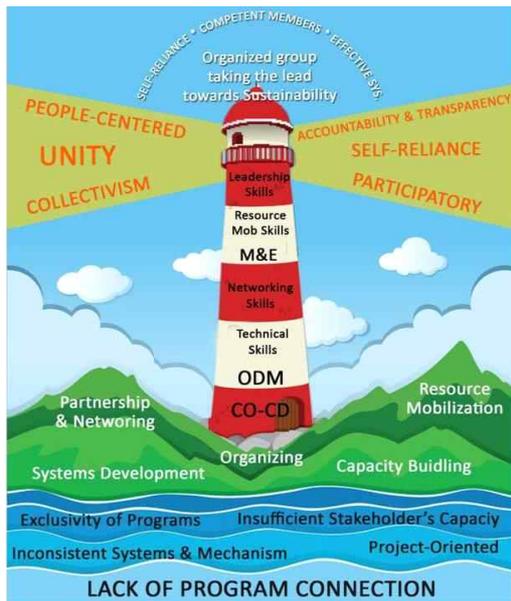
(1) 캠프와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관계 재설정

타워빌 센터 외벽에 익팅 종사자들이 직접 그린 타워빌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벽화가 있다. 이 벽화

52) 코이카 사회적경제연대프로그램 '필리핀 산호세딸락시 시장기반 친환경 농업사업을 통한 주민소득증대'(2019) 공동기획조사 결과보고서

는 익팅의 종사자들이 직접 그린 것이다. 캠프와 익팅과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다. 캠프는 타워빌을 비추는 등대로 묘사했고, 익팅은 바다로 나아가는 배로 묘사했다. 캠프는 일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등대가 되어 길을 잃지 않고 항해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림7] 워크샵 그림 및 해석⁵³⁾



- (문제의식) 각 분야별 프로그램 및 주민조직간의 연결관계 부족, 지원사업 종료 이후의 자생할 수 있는 출구전략 필요
- (방법) 역량강화프로그램, 시스템개발, 조직화,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의 강화를 통해 땅라우 조직을 발전시킴으로 각 주민조직을 연계하고 시너지를 창출시킴
- (주요가치) 사람중심, 통합, 자립, 참여, 책임감과 투명성
- (목표) 지속가능성을 이끌어갈 주민주도형의 조직 형성

그동안 캠프는 타워빌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역개발 사업을 수행하며 여러 주민조직을 구성했다. 익팅 사회적기업 봉제센터를 시작으로 클리닉, 교육, 농업 등 각 사업 분야에서 주민들의 조직을 구성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왔다. 각 주민조직들이 각각 성장했지만, 함께 연대하지 못하는 점이 고민이었다. 자기 조직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조직의 성장과 실패에 무관심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방향성과 단일한 비전이 필요했고, 함께 호흡하는 연결고리가 요구되었다. 캠프는 지역과 더 긴밀하게 관계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조직이 각각, 함께 움직여갈 수 있게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땅라우 프로젝트이다. 땅라우 프로젝트는 SDG 11이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해당한다. 도시 빈민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 공동체 형성의 많은 주체들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땅라우에 속하는 11개의 공동체들과 사회적기업, 주민조직들은 타워빌을 스마일하게 만드는, 그래서 타워빌이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2) 주민 주도형 종합적인 계획 수립⁵⁴⁾

53) 캠프는 타워빌의 사업들을 주민에게 이관하는 액티브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TF를 구성하고 다양한 워크샵 등을 통해 새로운 주민이관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땅라우프로젝트는 2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2018년 12월 27일, Cavite, Philippine에서 확정했다.

54) 코이카 민관협력사업 ‘필리핀 불라칸주 도시빈민 여성 일자리창출사업’(2019) 상반기 반기별현황보고

2017년부터 타워빌 내의 각 단위 사업의 대표들이 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땅라우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2019년 각 사업단위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지역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회원은 캠프의 사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참여자들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의 혜택과 함께 지역을 위해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로 했다. 캠프는 땅라우 프로젝트를 위해 5년동안 타워빌 사업을 주민들에게 이관하기 위한 작업과 비전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현지인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땅라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단위는 타워빌과 가야가야에 이루어지는 협동조합과 주민조직으로, 사회적기업 익팅(Igting) 봉제센터, 가야가야 봉제센터, 텡딕(Tindig) 소매상 협동조합, 친환경 사회적기업 올라(Orga), 보건 사회적기업 클리닉코뮤니다드(Klinikomunidad), 응급이송주민조직(Emergency Transfortation System), BKP 가족건강지킴이 주민조직, TECE 타워빌 가야가야 유치원, 캠프리브로 (Kampo Libro) 도서관, SALUTE 주니어스칼라조직, One Step 졸업생 청소년 모임, SiKhay 생활협동조합 등이다. 궁극적으로는 참여 단위를 지역주민들로 확장할 계획이다. 혜택으로는 타워빌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익팅 제품, 올라 제품) 할인혜택, 교육 및 보건서비스 이용권이며, 의무로는 지역사회공헌활동 혹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각 주민조직이 실현하는 공동체 활동 등이다.

[그림8] 땅라우 프로젝트 조직도



올해 땅라우 프로젝트가 2년차에 들어갔으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타워빌 전체가 락다운 되면서 익팅 봉제센터 이외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의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면 땅라우를 비롯한 타워빌에서 이루어지는 캠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땅라우 프로젝트는 원래의 계획대로 5년 동안 충분한 논의와 소통, 훈련을 거쳐 타워빌 주민들이 주도하는 총괄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기대한다.

4. 필리핀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

1) 직업훈련

3장에서 설명한 대로, 지역조사 결과를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유한 후 나온 최종 사업 아이템은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학교 교복을 만드는 봉제센터였다. 봉제센터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1) 직업훈련의 시작

봉제센터의 출발은 순조로웠지만 봉제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봉제센터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따랐다. 우선 40명의 훈련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40명의 주민을 모아보니, 봉제기술이 있는 사람은 단 2명 뿐이었다. 그것도 기술이라기 보다는 재봉틀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정도였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했는데, 이때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 하나는 한국에서 봉제 전문가를 초청하는 방안이었는데, 이 경우 한국 봉제센터 형태로 타워빌의 봉제센터가 운영되지 않을 까하는 염려가 있었다. 열심히 재봉틀만 돌려서 돈을 버는 한국의 봉제공장이 생각이 났다. 타워빌 봉제센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건강과 가정을 돌보며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한국 봉제 전문가 보다는 현지의 전문가를 찾아보자는 판단이 앞섰다. 두 번째는 현지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직업훈련을 개설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많은 직업훈련이 진행되었지만, 훈련 이후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필리핀 정부의 기술교육청 TESDA(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선택하고, 국가기능사 2급 자격증 획득을 목표로 직업훈련을 진행하여 국내 취업은 물론 해외취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TESDA는 1990년에 설립되어 필리핀 국민들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약 200여개의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본 사업은 소외지역의 인력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지역을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강사가 직접 와서 봉제교육을 진행하였다.⁵⁵⁾ 특별히 봉제 과정 중에서도 Dress Making Course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봉제 뿐만 아니라 옷의 구조·디자인·재단·봉제 등 이론과 실기를 종합적으로 학습하여 단순 봉제기술을 넘어서는 전문가 양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타워빌은 일자리가 거의 없었고, 남편들이 직장을 구해 마닐라로 나가있기 때문에 주로 여성들과 아이들이 있었다. 지역조사를 통해 여성들을 훈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를 키워야 하고, 생계를 해결해야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 직업훈련이 필요했다. 2011년 첫 봉제훈련을 시작할 때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모집인원 40명에 거

55) 교육은 11학년과 12학년을 대상으로 Senior High School에서 진행되는 School-Based Program, TESDA 교육장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 기업운영 프로그램 등이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Technical_Education_and_Skills_Development_Authority#Community-based_programs

의 근사한 수치로 지원했으나, 해가 지날수록 경쟁률은 높아졌다. 2015년도 이후부터는 해마다 경쟁률이 3:1을 넘어섰다. 무엇보다 훈련과정 중 패션쇼 등의 이주민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행사들이 있고, 직업훈련 이후 일자리와 연계되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작용하였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세웠다. 첫째, 타워빌 거주 주민 여성 가장, 둘째 다자녀를 둔 가정, 셋째 월 수입이 3,000페소(월 1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가 설립되기 전은 캠프가 위의 원칙에 따라 훈련생을 선발했으나, 익팅이 런칭된 이후부터는 익팅에서 전체 선발과정을 주도했다. 훈련이 종료된 후, 익팅 봉제센터에서 훈련생을 채용하여 일해야 하기 때문에, 동료평가가 중요한 기준이었고, 신입 동료의 일에 대한 의지, 태도 등을 평가하게 된 것이다.

[표5] 직업훈련 과정

<Dress Making Course Step> ⁵⁶⁾ Step 1 : 패턴 및 치수 측정 Step 2 : 재단 및 디자인 Step 3 : 봉제 (일자 박음 및 원형 박음, 옛징 및 오버로크 공정) Step 4 : 블라우스 제작 Step 5 : 바지 및 치마 제작

(2) 사회적 역량강화와 문제해결

직업훈련생을 모집하고 기술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리핀 국립대학의 지역사회개발학과 모린교수는 이렇게 제안을 했다. 기술부터 가르치지 말고 사회적 역량강화 (Social Empowerment) 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부분 훈련생을 차지한 지역의 가난한 여성가장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처절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자녀양육과 가사를 돌보는 일로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 태풍으로 인한 강제이주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장들의 낮은 자존감과 리더십을 회복시키는 과정없이 직업훈련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린교수는 오랫동안 지역개발학 교수로서, 풀뿌리 시민운동가로, 여성운동가로 활동해왔기에 여성가장의 역량강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캠프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업훈련을 하기 전 1개월 동안 사회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모린 교수가 학과장으로 있는 필리핀국립대학 지역개발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연계되었다. 필리핀국립대학 지역개발학과는 4학년 두학기를 지역개발 현장에서 생활하게 하고,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평가를 통해 졸업을 한다. 이 학제에 의해 현장실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타워빌로 파견해 현장실습을 진행했는데 이들의 프로젝트는 봉제센터 종사자들의 사회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이었다. 현장실습 학생들은 타워빌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했다. 때론 종사자들의 가정에서 숙박을 하며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역량강화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내어 적용하는 일을 했다.이 과정은 훈련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보이지 않는 섬세함

56) Training Regulation, DressMaking NCII, Garment Sector, TESDA

으로 만들어졌고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 달간의 사회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훈련생들은 본격적으로 기술훈련에 들어갔다. 기존 교육 기간은 3개월이었으나, 캠프는 훈련과 심화 교육을 포함한 4개월 과정으로 연장하여 운영했다. 직업훈련은 주 5일, 하루 8시간, 4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단순 봉제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디자이너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옷의 구조, 디자인, 재단, 봉제 등의 전반 과정을 커리큘럼에 맞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해외 취업에도 활용가능한 국가자격증 코스인 만큼 기간이 길고, 훈련과 시험이 쉽지 않았다. 하루 이틀 훈련에 결석하면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웠다. 또한 연습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데 과정을 시작하고 꽤 많은 훈련생이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 저하 혹은 게으름 때문인가 생각했으나, 점차 훈련 결석이 중도포기로 이어지자 그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게 되었다.

그때 파악한 이유는 첫째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다. 그동안 집에서 이웃집 빨래를 하거나, 쓰레기를 주워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훈련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자 당장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훈련에 오지 못한 것이다. 둘째, 육아 때문이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을 때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다. 문제를 확인하고 두 가지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필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모린교수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할 것을 조언했다. 그 이유는 훈련의 동기가 식료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생계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쌀과 필요 물품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두번째 육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유치원을 설립하는 일이었다. 어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을 봉제센터 안에 마련한 것이다.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훈련을 받도록 하니, 안정적인 직업훈련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결근생과 중도포기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80%이상이 훈련을 마치는 결과로 이어졌다.⁵⁷⁾

[표6] 직업훈련생 연도별 통계

연도	전체 수료생 수
2011년	40명
2012년	80명
2013년	68명 + 심화교육
2014년	60명
2015년	74명
2016년	85명
2017년	36명 + 심화교육
전체 훈련수료생 수	44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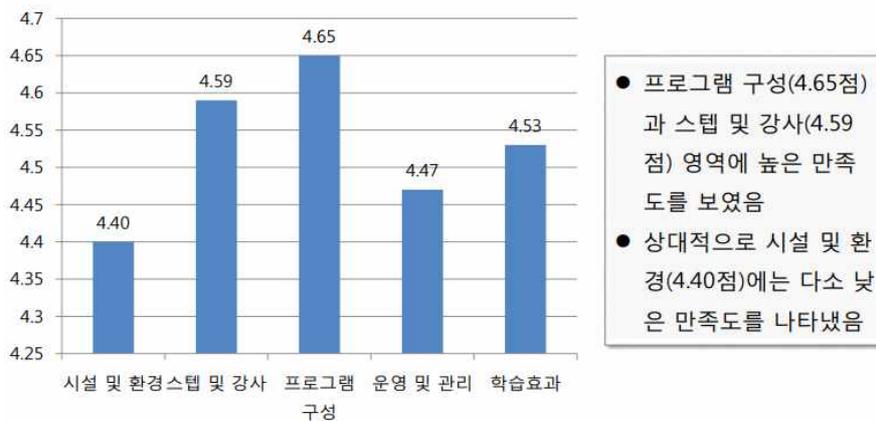
57) 코이카 민관협력사업 ‘필리핀 도시빈민 직업역량강화’ 사업 사업이행결과보고서(2018)

(3) 직업훈련의 성과

매년 70-80명이 훈련을 수료했다. 대부분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했고, 일부는 익팅 봉제센터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또 일부는 외부에 취업했다.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것 외에 큰 변화는 훈련생들의 자존감 회복이었다. 처음에는 각지에서 모인 이주민들, 마닐라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상황, 남편들이 마닐라로 떠나고 남은 여성들이기에 훈련은 물론 삶에 대한 자신감도 매우 낮았다. 그러나 기술훈련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매년 수료생들과 함께 개최한 패션쇼는 자신감을 표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2011년 처음 패션쇼를 개최할 때, 캠프는 훈련생들에게 자녀들의 옷을 직접 만들고 자녀들을 무대에 세우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훈련생들은 직접 무대에 서겠노라며, 직접 자신의 옷을 디자인하고, 직접 모델이 되어 패션쇼 무대에 올랐다. 처음에는 수줍은 모습으로 워킹을 하더니, 해가 지날수록 무대는 화려해져갔고 훈련생들은 무대제작부터 기획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진행했다. 훈련생 외에도 졸업생들의 컬렉션 무대도 마련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축제가 되었다. 많은 직업훈련생들에게 패션쇼는 가장 소중한 활동으로 남았다.

직업훈련의 성과는 매년 훈련 만족도 조사와 졸업생 추적 조사(2016)로 측정되었다. 훈련 만족도 조사는 교육 시설 및 환경, 직원 및 강사, 프로그램과 서비스, 운영 및 관리, 교육효과 등의 5개 항목과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수치화했다.

[그래프1] 직업훈련생 만족도조사⁵⁸⁾



직업훈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는 2016년에 전년도(2015년) 졸업생 95명 중 설문에 응답한 7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문항과 유형은 당시 사업을 성과관리 단체인 지구촌보건의료연구소에서 진행했는데, 응답자 79명 중 63%는 설문 진행 당시 취업을 완료한 상태였고, 대체로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약 50%가 기술훈련에서 훈련받은 직종으로 취업했고, 취업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양육문제 28.6%로 확인되었다.

58) 지구촌보건의료연구소 ‘2015년 아카데미협력프로그램 성과관리 협력사업’ 일환으로 작성된 필리핀 도시민민 직업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보고서 3차(2016)

직업훈련은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문제도 드러났다. 주로 익팅이 훈련생을 선발하고 심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입 멤버들 중 훈련에 무관심한 경우가 발견되었는데, 식료품을 목적으로 왔거나, 이미 다른 일을 하면서 재봉틀을 얻어볼 마음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서 동료와 마찰이 생기고, 중도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4) 에피소드: 유명 디자이너로 성장한 직업훈련생

직업훈련 기간 중 익팅은 훈련생 개개인의 특성을 발굴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봉제센터에는 봉제사 뿐만 아니라 디자인, 재단, 경영과 마케팅 등의 행정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적절한 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훈련생들을 살펴보는데, 2014년 디자인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훈련생이 있었다. 익팅 종사자분들도 그 훈련생을 눈여겨보며 졸업 후 익팅의 디자인팀에서 일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훈련과정을 수료하자마자 그 훈련생이 사라졌다. 수소문했지만 행방을 찾지 못해 아쉬움과 서운함이 매우 컸다. 2015년 말 전체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동창회에 아주 멋진 의상을 하고 나타난 졸업생이 있었는데, 바로 애타게 찾았던, 디자인에 특출한 재능을 보였던 그 졸업생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훈련기간 동안 개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수료식을 마치자마자 마닐라로 나가 큰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재능을 인정 받아서 1년 만에 유명인의 개인 디자이너로 성장한 것이다. 마닐라에서 지내느라 지역에는 알리지 못했지만, 늘 다른 동기 훈련생들과 익팅 봉제센터를 마음에 담고 있어 동창회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남다른 감회를 이야기했다. 앞으로도 계속 꿈을 이뤄나가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봉제센터 합동결혼식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협력했다. 캠프는 봉제 훈련을 마치고 익팅 봉제센터에 남아 일하는 것을 우선순위로만 생각했는데, 자신의 꿈을 펼치고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였다.

캠프의 직업훈련은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연대와 혁신의 가치 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포용하는 포용적 경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타워빌의 최저 빈곤선인 3000페소 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여성가장들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그들에게 단지 미싱만 돌릴 줄 아는 하층 노동자 교육이 아닌, 필리핀 기술청의 강사를 파견하여 드레스 메이킹 전 과정을 진행하여 국가기능사 2급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하겠다.

2) 익팅 런칭

2011년 7월 15일 드디어 기다리던 타워빌의 봉제센터가 설립되었다. 한국의 지원단체인 함께일하는 재단과 후원 주관방송사인 SBS 보도팀, 그리고 한신대학교와 지방정부인 불라칸주 산호세델몬테시 산페드로 시장, 지역학교의 연주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주민 2백여명이 함께 모여서 희망의 개소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는 타워빌에서 봉제센터 개관은 웃음으로 피어나는 타워빌의 스마일을 예고한 것으로 지역의 변화를 알리는 시간이었다.

(1) 역량강화 프로그램

앞서, 직업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한달 동안 사회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훈련생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밝혔다.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가 설립된 이후 역량강화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았다. 기업을 만들었으니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캠프는 그 이전에 익팅 종사자들의 자존감과 리더십 훈련,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 연대의 중요성을 함께 교육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익팅 봉제센터는 사회적기업으로, 익팅 종사자들이 기업에 대한 이해와 주인의식이 없으면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량강화프로그램이야말로 오늘날의 익팅을 만드는데 기여한 자립 기반이 었다.

① 초창기 (2011년-2013년)

초창기 자조모임을 만들 때 집중한 것은 개인 차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 서로를 알아가며 공감하는 단계로 각자가 이주해 온 배경, 삶의 어려움을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이다. 강제 이주 혹은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어렵게 이주한 주민들은 소극적이고 마음이 닫혀 있기에 동료들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였다. 2단계는 상황 워크숍으로 여러 사진을 보고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 미래를 그려보는 과정이다. 한 훈련생은 사막 가운데 서있는 바위를 보고 '언제나 인생의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다른 훈련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전하기도 했다. 3단계는 비저닝 워크숍으로 훈련 후 각자가 그리는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업, 조직의 발전을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후 사회적경제에 관한 집중 교육이 이어졌다. 왜 사회적경제가 필요한지,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존재하는지 등 그 의의부터 조직의 단계, 조직화 과정, 조직의 운영 등을 세부적으로 학습하였다. 정부지원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 아니라, 주민조직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주가 되는 필리핀 조직화가 학습의 중심이 되었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 이후 사회적기업을 조직하는 단계에서 서로 연대하고, 공통의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② 안정기 (2014년-2017년)

익팅 봉제센터가 발전되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심화되었다. 특별히 크로스커팅이슈인 인권과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한 가운데 진행했는데,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삶과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필리핀은 여성인권 지수가 비교적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타워빌과 같은 빈곤지역에서 가정 폭력이 많았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의 정의를 내리고 자신의 상황을 연극으로 풀어내면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갔는데, 이를 통해 실제 몇몇 여성들은 가정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⁵⁹⁾. 지역조사에서도 나타난 거리에서 태우는 쓰레기, 가정에서 숲과 나무를 사용한 취사환경이 인체에 해롭다는 점을 교육했고, 정기적으로 지역 내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59) 최선인(2018)은 역량강화 결과 이때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언급했다

2015년에 캠프는 두 개의 중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하나는 마을 합동 결혼식이었다. 봉제센터 종사자 중 60%는 여러 이유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동거상태에 있었는데, 자녀를 낳았을 때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남편의 외도나 가출을 용이하게 만들어 가정 해체가 일어나기 쉬웠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거나 행정적 서류가 미비하여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봉제센터에서 다섯 가정을 선정하여 협동 결혼식을 진행했는데, 동료가 웨딩드레스를 만들고, 사진과 조명 음향 등은 외부 파트너기관에서 협찬을 받아서 진행했다. 합동결혼식은 다섯 가정에게도 의미가 있었지만, 익팅 종사자들이 한달넘는 기간에 마음을 모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각 구성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다른 하나는 벽화그리기 워크샵이다. 봉제센터가 위치한 타워빌 제1 아시아지역개발센터의 외벽에 벽화를 그리기 위해 모든 봉제센터 종사자가 사전 워크샵을 진행했다. 타워빌에 이주한 이유, 익팅을 만난 순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4개 그룹으로 나눠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벽화의 스토리를 구성했다. 모두 이주의 아픔과 익팅 봉제센터라는 공통의 경험이 있기에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익팅과 캠프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했다. 타워빌로 이주해온 경험을 출렁거리는 바다로, 익팅을 그 바다에 떠있는 배로, 캠프는 배를 비추는 등대로 묘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익팅 멤버들이 함께 색을 입히며, 익팅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⁶⁰⁾ 벽화는 타워빌의 랜드마크로, 타워빌 방문자교육을 위한 시작코스가 되었다.

2016년 익팅은 한국에서 국제핸드메이드페어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었다.⁶¹⁾ 캠프는 봉제센터 2명의 종사자들과 2명의 담당스텝들을 초청했는데, 향후 익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후진양성을 위해 한국의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고,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다양한 고객층을 만나도록 한 것이다. 익팅 참가자들은 봉제센터 제품 전시부터 홍보, 판매까지 모든 것을 진행했다. 처음으로 만나는 외국인을 상대하기에 부끄러움과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은 있었으나 점차 자신감이 붙었고 페어기간 중 다른나라에서 온 참가자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행사가 끝난 후 한국내 시장을 방문하여 여러 봉제관련 부자재 현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논의하였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봉제센터의 시그니처제품인 러그를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③ 현재 (2018년 이후)

익팅이 2018년 캠프로부터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립한 후, 캠프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제 익팅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했던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익팅 봉제센터의 필요성에 의해 익팅 훈련위원회가 주관하는 훈련 요구분석을 통해 교육내용들을 선별하고 외부 강사를 섭외해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별히 협동조합 설립 기간 동안 협동조합에 대한 강의와 신입 종사자를 대상으

60) 프레시안의 손문상 화백이 워크샵을 총괄 진행하며, 익팅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벽화의 밑그림을 그렸다.

61)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일상예술창작센터가 준비하고 함께일하는재단이 후원했는데, 익팅이 함께일하는재단 스마일투게더 파트너십 1기 사업으로 초청되어 참여하였다.

로 한 기본 봉제훈련을 진행했다. 재정과 마케팅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에서 주최하는 비즈니스 세미나에 참여하며 역량을 길러나갔다.

④ 에피소드 : 직접 마케팅에 뛰어든다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신감과 함께 기업가 정신이 함양되면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2014년 하청 주문을 받고 납품을 한창 진행하던 때, 마케팅 팀에서 심각한 논의를 진행했다. 맥도날드에서 앞치마 하청을 받아 몇만장을 생산하는데, 몇단계 걸친 하청이다보니 중간 업체의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이다. 봉제센터에서 생산작업은 다하는데, 중간업체의 적지 않는 마진이 억울했던 것이다. 이에 익팅은 용기를 내어 앞치마를 들고 맥도날드 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익팅을 소개하고, 현재 납품 상황을 설명했다. 맥도날드 본사도 처음에 생면부지 여성들이 맥도날드 자사의 앞치마를 들고 찾아와서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전후 사정을 듣고 직접 주문을 발주하게 되었다. 익팅은 이를 통해 마케팅을 처음 도전하는 계기가 되어 자신감을 얻었고, 중간단계 없는 직접 주문방식은 봉제센터의 이익으로 이어지고 종사자들의 임금으로 연결되었다.

(2) 법적 조직과 운영 체계

① 봉제센터의 법적 형태

[표7] 봉제센터 법적 형태 변천도

등록년도	2014년	2017년	2019년
조직형태	PO 등록	판매법인 사업자등록	신용협동조합 별도설립
등록기관	SEC	시청, BIR	CDA

익팅 봉제센터는 초기 주민조직 PO(Peoples Organization)의 형태로 시작했다. 정부 등록증에는 Maigting na Samahan ng mga Panlipunang Negosyante ng Towerville로 쓰여져있는데, 타워빌에 설립된 Igting 조직의 사회적기업이라는 뜻이다. 캠프는 초기 익팅 봉제센터를 구상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구상했다. 그러나 필리핀 사회적 경제 법체계상 몇가지 어려움 있었다. 우선 협동조합으로 등록은 가능하나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구성원들의 의지도 중요하기에 당장 설립하기 어려웠다. 필리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성가장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익팅 봉제센터의 목적에 따라 기업의 성격을 사회적기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익팅 봉제센터를 법인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14년 필리핀에서 인정하는 법인의 형태인 PO(Peoples' Organization, 주민조직)로 등록했다. 주민조직이지만 정부기관인 SEC(Security and Exchange Committee)에 등록된 조직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이사의 구성 등 법적인 서류도 모두 갖추어 법인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익팅 봉제센터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한편, 2017년 제품의 법적인 판매를 위해 판매법인으로 법인의 형태를 확장하고, 시정부에 사업자 등록(2017년)을 하면서 기업의 면모를 갖추나갔다.

[표8] 등록증



이후 약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초, 봉제센터 종사자들이 별도의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필리핀 협동조합청(CDA, Cooperative Development Authority)에 등록하였다. 신용협동조합 결성은 익팅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종사자들의 현실적 필요성을 받아들여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는 신용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필리핀은 개인이 통장을 개설하는데 잔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빈곤지역에서 은행계좌를 소유하거나 긴급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채와 같은 비공식적인 거래가 만연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신용협동조합은 자체 자금을 비축하여 조합원에게 긴급 대출도 가능하기에 익팅 구성원들의 요구가 가장 컸다.

필리핀 협동조합은 100여년의 역사만큼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멀티협동조합 등 형태가 다양하다. 봉제센터 특성상 생산자 협동조합이 필요하나, 준비기간이 매우 길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② 내부 운영체계

- 초기 (2011-2013)

봉제센터가 초기 주민조직 PO로 시작하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종사원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봉제센터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아직까지 직업훈련을 받고 봉제센터에 취업한 종사자들은 주민조직 PO의 일원으로 봉제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토론에 참여하는 일은 생소한 것이었다. 실제 하루의 절반을 훈련과 토론에 사용하다보니

생산량은 낮고, 기술은 늘지 않았다. 조직화에 집중하기 위해 생산량과 관계없이 하루 일당을 150페소로 정하고 지급하다보니 생계가 어려운 구성원들은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교육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캠프는 생산량을 늘리느냐, 역량을 키우느냐 양자의 갈림길 속에서 장기적으로 주민주도형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면 후자가 더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초기 과정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익팅은 직접 선출이라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운영진을 뽑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누가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할 사람인지 세심하게 살펴보아 개인의 잠재력을 확인했다. 초기에는 특히 다양한 문화와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봉제센터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리더의 필수적인 조건은 포용적 리더십이었다. 초기의 조직은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지 않게 하여 운영진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 위원회를 결성하여 모든 구성원이 조직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기회를 마련했다.

[표9] 초기 운영체계



- 안정기 (2014년-2017년)

2014년 익티 봉제센터는 명칭을 ‘익팅(igting)’으로 정하고, 익팅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런칭하였다. IGTING은 영어단어 ‘ignite’의 필리핀 고어로 여성들 삶에 희망의 불을 붙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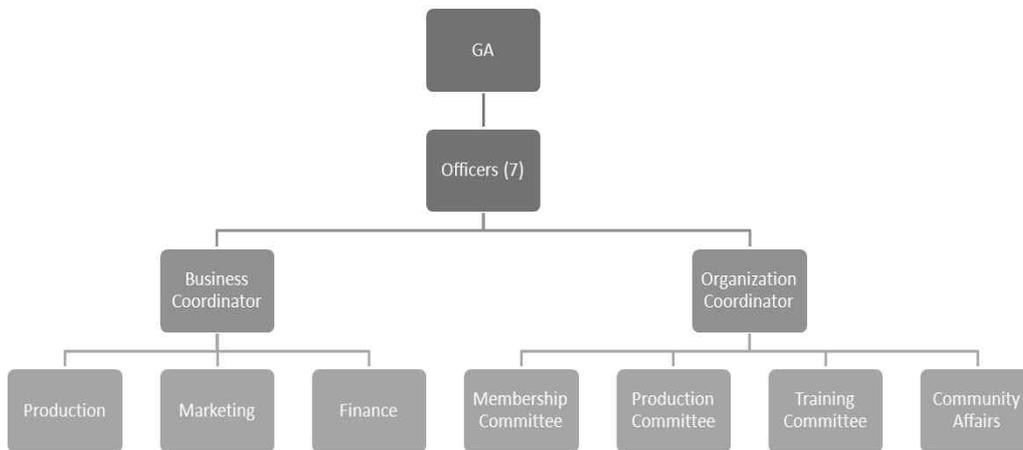
[그림9] 익팅 로고



62) Igting의 로고는 한국의 그린디자이너인 윤호섭교수가 의미를 담아 제작하였다.

익팅은 공식적인 조직으로 등록되면서 내부 운영체계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했다. 총회(General Assembly, GA)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사회적기업 종사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한 달에 한 번 월례회를 가지고 봉제센터 전체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진 그룹은 1년에 한 번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선거를 실시하고, 각 부문별 최다 득표자 3명을 선발, 그 중 최종 선거를 통해 총 7명의 운영진을 선발한다. 운영진은 회장1, 부회장1, 재무1, 총무1, 감사1, 대외협력 2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총회를 주관하며 각 분야별로 보고를 한다. 종사자들은 각 위원회에 소속해 활동하고, 의무적으로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총 4개의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회원위원회는 종사자 모집, 자체 규정 집행 등 종사자 관련 모든 일을 주관하고 지역협력위원회는 지역과 협력, 행사 주관, 홍보, 지역공헌 등을 진행한다. 훈련위원회는 훈련생 선발 및 교육, 종사자 심화 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의 활동을 하며, 생산위원회는 생산라인 담당자로 생산조직과 전체 조직의 소통을 위해 활동한다.

[표10] 안정기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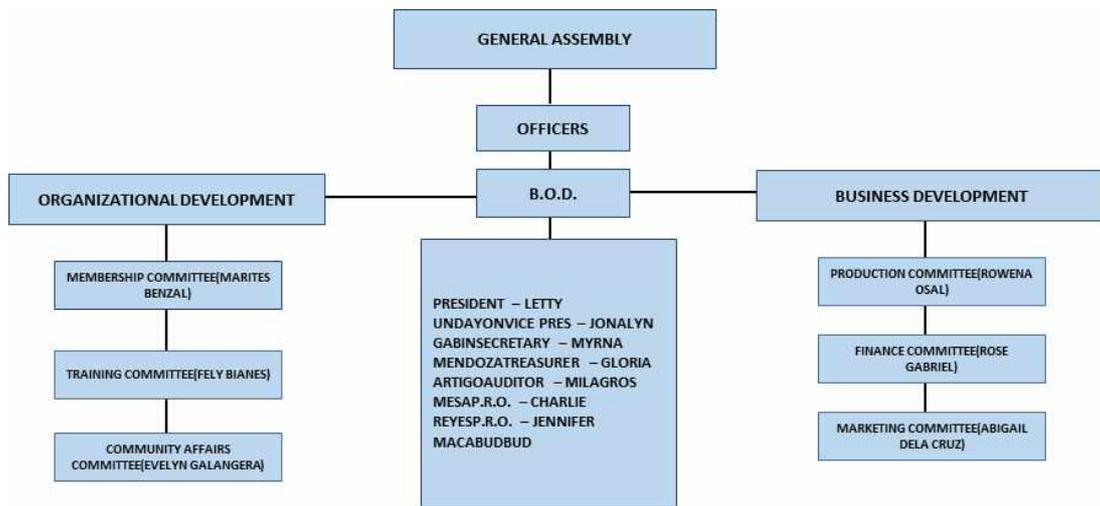


익팅은 민주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매월 월례회를 활성화시켰다. 운영진 그룹이 월례회 순서와 진행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면서 조직현황, 생산 및 마케팅 현황, 봉제센터 재정 현황, 봉제센터 내 협동조합 재정 현황 등 매월 정기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각 위원회 담당자들은 월간 상황을 보고하고,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월례회를 통해 전체 종사자가 소통하는 수평적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때 캠프는 월례회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진 그룹이 요청하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을 취했다. 캠프가 월례회에 참여할 경우 자발성이 없어지고 캠프의 반응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예 참석하지 않은 것이었다. 초기에는 1-2시간이면 충분한 월례회가 3-4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만큼 논의 사항도 많아지고, 토론도 활발히 진행되어 종사자들의 참여도와 적극성, 주인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발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현재 (2018년 이후)

봉제센터의 규모가 점차 확장되면서 조직체계를 다시 한 번 개편했다. 기존의 운영형태를 유지하면서, 익팅 봉제센터의 조직 운영과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케팅을 강조하는 조직으로 확대 분화되었다. 이와 함께 종사자들의 현실적 니즈인 신용협동조합을 별도로 만들었다. 신용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내야만 하기에 익팅종사자와 신용협동조합을 분리한 것이다. 현재 익팅 종사자 60%가 신용협동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익팅 종사자 모두 참여하는 신용협동조합으로 가는 과정이 남아있다.

[표11] 현재의 운영체계



[표12] 익팅 운영체계의 변천

	2011년-2014년	2015년-2017년	2018년-현재
캠프의 운영 참여도	100% (적극적 협력·지원)	50% (네트워크·교육지원)	10% (동등한 파트너)
리더선출	대표구성을 위한 5명의 리더선출	선출진 7명 실무리더 2명	의사결정기구 BOD신설 선출진 7명 위원회리더 6명
위원회수	체계화된 위원회 없음	4개 위원회	6개 위원회
자주모임 진행	훈련프로그램과 공동으로 진행	정기 월례회 안착	위원회별 사전 모임 전체 월례회 진행
주요 특징	체계적인 조직이 갖춰지지 않음	총회의 역할 비중 증대 기업과 조직의 분리	익팅 조직의 자주성 확립 독립 협동조합 운영

(3) 생산과 마케팅

① 초창기 (2011년-2013년)

봉제센터 초기 캠프는 지역 내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약 1만명 학생들을 염두에 두었다. 지역 조사에서 지역내 교복 구입의 필요성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봉제센터의 주아이템을 교복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타워빌 소득수준이 너무 낮은 빈곤지역이기 때문에 신학기에 교복을 구입해 입는 것이 아니라, 물려입는 경우가 많았다. 물려입는 교복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복 생산은 어려움이 없었으나, 판매가 저조했다. 대량 생산된 교복은 재고가 되고 말았다. 교복은 교복대로 생산하면서 다른 제품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가방, 파우치, 티셔츠 등의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나 방문객을 대상으로 단체 티셔츠나 현수막 재활용 가방을 만들었다. 이때 한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단을 기증하는 기업도 있었고, 한국 전문가들이 제품을 디자인하고 기술지도를 하면서 제품군을 넓혀갔다.⁶³⁾ 티셔츠와 여성복 등 제품을 생산하면서 인근 지역시장에 작은 마켓을 임대하고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품들을 전시 판매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으나 매출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익팅제품은 한국산 원단으로 제작해 좋은 품질을 보장했지만, 인근 마켓에서 팔리는 중국산 티셔츠의 저가 공세를 막아낼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복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재고는 쌓여가고 매주 봉제센터의 임금은 캠프로서는 큰 부담이었다.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봉제센터 종사자들의 임금을 보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정적 부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종사자들의 절망이었다. 부푼 꿈을 안고 제품을 생산했는데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일할 의욕을 저하시켰다. 이때 필리핀 국립대학교 지역개발학과에서 3월 여성의 달을 맞아 학교의 바자회에 참여하라는 요청이었다. 별 기대없이 참여한 바자회에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학교 직원들과 교수들이 익팅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계속된 주문은 수일간 야근으로 제품을 생산했고, 이것은 종사자들의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② 안정기 (2014년-2017년)

익팅의 생산은 온라인 활동과 여러 바자회에 참가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먼저 Fizzy Fashion과 같은 패션 브랜드와의 접촉이 생겼다. 익팅의 기업 프로필을 만들고,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익팅을 소개하면서 생산이 확대되었다. 동시에 초기부터 진행하던 외부 하청 주문도 많아졌다. 개인 디자이너의 샘플 작업, 필리핀 군복제작, 교육재단의 교복 수주도 이어졌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대량 주문과 고퀄리티의 품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⁶⁴⁾ 이런 경험은 생산파트를 더욱 세분화하여 단계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 생산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게 만들었다. 대량주문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간 고효율의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분 공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도입되었다. 익팅의 생산구조는 주로 교복과 가방 등 자체 생산한 상품이 전체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하청물품을 수주하면서, 2016년 하청생산 47%, 자체상품 판매 53%이 되었다. 하청의 경우 Innovative, TMHC, Golden Fortune, Fizzy Fashion 등이 주 고객이었는

63) 움직이는 옷 비아인의 대표 김경인 디자이너는 현지에 상주하면서 디자인 지도와 기술지도를 진행했다.

64) 2015년 처음 교복 대량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약 5개월 동안 만 별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샘플과 실 제품의 사이즈가 상이하거나, 대량 구매한 원단의 손상이 발견되어 제품이 출하되지 못하는 경우들이었다.

데,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대량생산 납품으로 이어져 점차적으로 경영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청은 단순 봉제 인건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박리다매의 형태로 부가가치가 크기 않고, 문제는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익팅 브랜드를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익팅 봉제센터가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종사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일과, 기술력 향상으로 고부가가치 생산을 통해 임금을 점차 향상시켜야하는 두가지 과제가 놓여있었다. 이때 한국시장을 겨냥하여 고부가가치인 필리핀의 전통천을 활용한 가방과 직조 생산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러그일렛이다. 초기 한국에서 가져온 조각천을 활용해서 만든 것으로, 발 매트용으로 생산했다. 여러색의 조각천을 엮어 만든 수공예 러그는 색감도 좋아 한국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후 제품개발은 한국의 가방디자이너의 결합으로 가방제작 교육이 진행되어⁶⁵⁾ 러그는 필통과 아이패드 파우치로 발전했고,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하였다.

③ 현재 (2018년 이후)

익팅은 비즈니스 부분을 강화하면서 판매처를 확대하고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하청 납품과 함께 자체 생산품을 필리핀 기업청(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ies)을 통해 전국의 Go Lokal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주문 물량이 많아지면서 시설의 규모를 키워야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때 코이카 지원사업이 결합되면서 타워빌에 있는 익팅 봉제센터를 확대하기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자는 의미에서 착안한 1인 봉제기업 육성사업이 시작되었다. 직업훈련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주로 육아 부담이 있다. 또한 지역 내 재봉틀을 가지고 봉제업을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고객을 찾지 못하거나 하청하는 중간상에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아 이 문제도 해결하고자 했다. 익팅 봉제센터는 기술지도와 주문을 연결하는 중간플랫폼 역할을 통해 1인 봉제기업가들과 연계했다. 익팅은 자체 상품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생산시스템을 바꾸어가고 있다. 이러한 생산시스템은 코비드 19로 필리핀내 도시 봉쇄령과 통행금지로 이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가정 내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었고, 2020년에는 마스크 30만장, 방호복 약 3만장을 생산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표13] 생산, 마케팅의 변천

	2011-2014	2015-2017	2018-현재
특징	교복 및 에코백 생산	익팅 자체 생산품 제작 및 생산공정 발전, 자체 생산품 개발 및 온라인 홍보, 러그제품의 한국 진출	하청 납품의 대량화, 필리핀 기업청과의 연계, 1인 봉제기업 설립 및 지원
주 시장	지역 내 시장 중점	하청납품, 바자회	Go Lokal 등의 상점 입점.

65) 가방전문가 공재희 디자이너의 도움으로 가방 제작 교육을 진행하였다

(4)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① 한국과의 네트워크

익팅 봉제센터는 함께일하는재단의 스마일투게더 파트너십 1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2013년과 2014년, 2년간 한신대학교와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코이카 대학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코이카 민관협력사업으로 이어졌다. 2018년부터 2020년에는 익팅 지원사업이 아닌, 익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1인 봉제기업과 직조생산자조합을 양성하는 코이카 2단계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표14] 한국의 지원기관

지원 기간	사업명	지원기관	주요 특징
2011-2013	Towerville CAMP Sewing center	함께일하는재단	기술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 봉제센터 설립 및 조직화
2013-2014	필리핀 불라칸주 타워빌 이주민지역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한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코이카 (대학협력사업)	봉제센터 조직화 및 법적 등록, 사업 운영의 안정화
2015-2017	필리핀 도시빈민 직업역량 강화 사업	코이카 (민관협력사업)	봉제센터 자립 구조 마련 봉제센터 운영권 이양
2018-2020	필리핀 도시빈민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코이카 (민관협력사업)	봉제센터 사업지역 내 확장 장려

② 필리핀 현지 네트워크

[그림10] 네트워크 범위



기업 : 제품의 판매, 마케팅 협력
 민간 : 솔루션 제공, 사례탐방
 정부 : 협동행사지원, 조합 설립, 행정 지원
 학계 : 조직 발전 및 역량강화

- 초창기 (2011년-2013년)

필리핀 국립대학교 지역개발학과와의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이다. 학생들의 현장 실습의 필드워크로 익팅 봉제센터가 참여하면서 주로 익팅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각종 컨설팅에 집중한 시기다. 이 부분은 직업훈련과 초기 익팅런칭 과정을 참조하라.

- 안정기(2014년-2017년)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된 시기이다. 그리고 2015년 필리핀 국립대학교에 있는 중소기업연구소와의 협력도 시작되었는데, 연구소 약 10여명이 봉제센터 제품을 컨설팅, 기업운영에 대한 자문을 지속했다. 이들은 기업의 사회적가치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시스템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2016년 필리핀국립대학교를 통해 연결된 NETSUITE은 사회적기업의 온라인 ERP 시스템 도입과 재정문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2017년 익팅 스스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필리핀 협동조합청과 연계하여 교육을 받았고, 현지 협동조합인 NOVADECI와 네트워크를 맺고 협동조합 탐방 및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 현재 (2018년 이후)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보다 심화되었다. 지방정부에 소속된 협동조합청을 통해 익팅 신용협동조합의 등록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필리핀은 협동조합 역사가 오래된 만큼 수만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약 70%이상이 실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현황이다. 때문에 협동조합청에서는 설립을 위해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교육과 협동조합의 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등록을 보류한다. 이에 약 3년간 협동조합청의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받으며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필리핀 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해 재봉틀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시내의 쇼핑몰에 부스를 입점, 제품 리플렛 제작과 온라인 플랫폼 제작 지원을 받았다.

학계와의 거버넌스도 보다 확장되었다. 필리핀 국립대학교 대안개발연구소⁶⁶⁾와의 협력은 익팅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대안개발연구소는 독립적인 연구소로 여러 학문을 응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곳으로 필리핀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조직을 연구하면서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였는데 이때 필리핀 국가에서 하나의 성공사례로 익팅을 채택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봉제센터 종사자들은 익팅의 미션과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⁶⁷⁾

[표15] 익팅 네트워크의 확대과정

66) 대안개발연구소 작업은 외부자가 아닌 내부의 목소리를 통해서 정리하고, 당사자가 직접 과정을 기록·발표하면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익팅의 운영진이 대표로 참여하여 설립당시부터 2019년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였으며, 봉제센터의 종사자를 인터뷰하며 중요한 사건과 내용을 기록했다. 이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 대표자들에게 이를 발표했고, 일부는 인도네시아에 초청을 받아 다른 지역사회를 직접 둘러보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67) 5장 설문조사 분석을 참고하라.

	2011년-2014년	2015년-2017년	2018년-현재
범위	학계(필리핀국립대학교) 정부(기술청 TESDA)	학계·기업·민간·정부	정부 부처 (협동조합청, 기업청)
조직 Initiative	캠프	캠프·익팅	익팅
형태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받는 형태	물적·인적 자원을 공유하는 상호적 관계	물적·인적 자원을 공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형태

(5) 지역사회 공헌

① 지역내 유치원 운영

익팅 봉제센터는 그 태생부터 지역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 지역의 절대빈곤이라는 현실 속에서 여성가장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지속해왔다. 캠프는 설립 초창기부터 유치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익팅봉제센터와 함께 익팅 대부분을 구성하는 여성가장을 위한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봉제센터와 함께 유치원을 직접 설립 운영하였고,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유치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 유치원들 간에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유치원 설립 초기에는 직업훈련생 자녀가 우선 선발되었으나 그이후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유치원으로 인정받고 있다.⁶⁸⁾ 지역내 유치원 시설에 대한 평가가 우수하여 2016년 유치원생 모집에는 새벽부터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지원서를 제출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유치원 설립은 여성들을 위한 안정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지역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립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봉사활동

익팅 봉제센터가 각 위원회 중의 하나로 지역활동위원회를 두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담당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봉제센터에서 생산한 교복을 지역의 고등학교에 무상 지원하였고, 2017년부터 매년 익팅 봉제센터 기념일을 맞이하여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급식프로그램, 새학기에는 위생키트와 학용품 세트를 지원하는 일을 진행했다. 2018년부터 주민 건강개선 프로그램으로 줌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민과의 접촉점을 확대해나갔다.

3) 익팅 봉제센터의 자립과정과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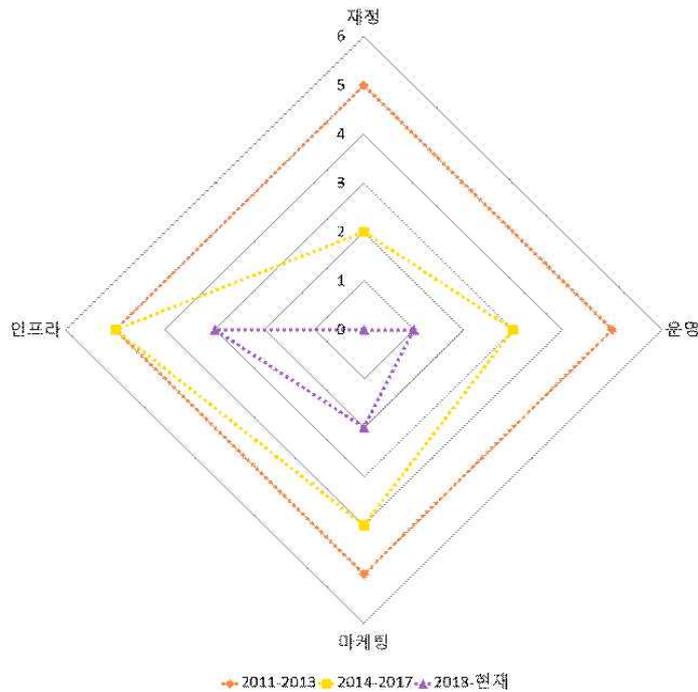
캠프는 2010년부터 진행한 지역조사부터 2011년 익팅 인큐베이팅, 2014년 익팅 런칭, 2017년 익팅 재정자립 등 지난 10여년간 동고동락한 가장 중요한 익팅의 파트너단체이다. 캠프는 익팅이 재정적으

68) 필리핀 학제가 K-12로 유치원을 졸업해야 초등학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5-6세가 다니는 유치원은 교육부의 관할이고 규정이 까다롭다. 이에 유치원 이전 단계인 영유아센터로 유치원을 설립하여 3-4세 아동을 모집하였고, 오전과 오후 시간을 분반하여 아이들을 가르쳤다. 현재 미뉴안과 가야가야 두곳에서 오전 오후 2개의 반에서 총 160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다.

로 자립하기까지 약 7년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재정·운영·마케팅·인프라 모든 영역에서 캠프가 익팅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시켰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원의 범위를 줄이고, 한국과의 판로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마케팅 지원에 집중 협력했다. 2017년 익팅은 회계 등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캠프는 익팅운영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익팅봉제센터가 타워빌 제1센터내에 있고, 모든 기자재와 시설을 이양하지 않은 단계이다.

2018년 캠프와 익팅은 협약서를 맺고 동등한 관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파트너십 내용은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바탕이다. 2018년 시작된 1인 봉제기업가 양성은 익팅과 캠프가 상호 동의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1인 봉제기업 운영은 익팅이, 초기 지원과 설비는 캠프가 맡아 지원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캠프는 지방정부 승인, 제품 수주 등에 협력하였고, 익팅은 지원을 통해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다. 또한 익팅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을 캠프는 적극 지지하며, 지역 아동들에게 익팅이 교복을 지원하면, 캠프는 먹거리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파트너십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그래프2] 캠프와 익팅과의 상호관계도



- 2011년-2013년 캠프가 익팅 인큐베이팅(재정, 지원, 마케팅 등)
- 2014년-2017년 캠프의 지원 축소 및 한국과 판로 확대 지원
- 2018 이후 익팅 재정독립과 캠프 운영개입 최소화

4) 사회적 경제 가치와 연계성과 도전과제

(1) 익팅의 사회적 경제 핵심가치와 SDGs와의 가치 연계성

익팅은 설립초기부터 사회적 경제 핵심가치와 SDGs와의 가치 연계성을 충실히 반영해왔다. 첫째, 참여적 가치 측면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과 사용자가 함께 참여했으나, 익팅이 완전히 자립하면서 캠프는 사용자가 아닌 파트너로 관계조정을 이어갔다. 익팅 총회를 통해 직선제를 실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익팅 종사자들의 발언권과 투표권을 동등하게 부여해왔다. 임금을 높이는 과정이나 필헬스 등 보험문제를 논의할 때도 종사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진행해왔기 때문에 각자 공유된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연대와 혁신의 가치 측면에서 앞서 직업훈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리핀 도시빈민 타워빌에서 가장 최하위 계층인 최저빈곤선에 있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했고, 그들이 사회적 기업 익팅 봉제센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포용적 경제를 이미 실천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연계와 자율성의 가치 측면에서 익팅은 처음부터 풀뿌리 조직인 PO의 법적 기반과 함께 PO적 접근으로 운영되었다. 익팅 종사자들의 자율성에 근거한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을 훈련하고, 역량강화 훈련을 통해 적극성과 책임성을 만들어갔다. 넷째, 집단재와 공공재의 가치 측면에서 익팅은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시작부터 PO로 조직하고, 현재는 신용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재/공공재로 운영되고 있다.

(2) 도전과제

그러나 집단적 공공성이 강한 익팅이지만, 익팅 봉제센터의 성장과 복지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 개개인에 대한 복지도 함께 증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 저임금문제와 복리후생, 그리고 신입 종사자들의 교육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① 복리후생 강화

필리핀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모든 종사자가 사회보장보험 (SSS, Social Security System), 의료보험 (Philhealth), 주택연금(Pag-ibig, Home Mutual Development)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모든 보험이 70:30 혹은 50:50으로 종사자와 사업장이 분담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종사자들의 경우 가입을 오히려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장 입장에서도 종사자 수가 많은 경우, 각 보장보험에서 제공하는 대출 담보 비용도 지불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익팅봉제센터의 경우도 기업으로의 법적 등록 이후 각 보장보험 가입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했고, 한 번에 모든 보험을 다 적용하는데는 부담이 따라 SSS에 우선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SSS에 가입하게 되면, 질병 임신 장애 사망 장례 은퇴 등의 사항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위급 상황시 SSS 대출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나머지 의료보험과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이 지연되었고, 2020년이 되어서야 모든 가입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아직 개인적 사정에 의해 가입하지 못한 종사자들이 남아 있어 모든 종사자의 가입 완료를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다.

② 저임금 개선

봉제센터의 매출과는 별개로 각 종사자들의 수입은 점진적으로 증대되었다. 여러번 시스템을 변경하

면서 봉제센터 종사자들 임금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찾았고, 임금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월례회를 통해 모든 종사자들이 동의한 후 결정되었다. 훈련생 때 주당 약 200페소 상당의 식료품을 받던 것이, 일 120페소, 150페소, 180페소로 증액되었고, 이후에는 생산량에 따른 임금을 받았다. 적게는 주 6일 1,500페소 많게는 4,000페소까지 주급을 받는다. 그러나 전체 관리감독, 품질감독, 마케팅, 재정 등 특수 업무를 맡은 행정 종사자들의 경우 하루 250페소에서 300페소의 고정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하청 납품을 통한 수익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각 봉제사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이 크지 않고,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여전히 잔존하여 마케팅 인건비 등을 크게 책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려나가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③ 신입 종사자들의 교육

익팅에서 새로운 멤버를 선발함에 있어 딜레마가 있다. 캠프가 참여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고 기술교육과 역량강화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익팅이 독립하면서 이같은 부분이 약화되었다.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입종사자들의 교육을 강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공유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경우 삶의 의지가 없거나 생활이 열악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지 못한다. 사회적기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수익이 적어지더라도 기업과 사회에 환원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나갈 수 있는 종사자로 성장해야 하는데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봉제센터의 생산 뿐 아니라 조직적 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생긴다. 오히려 봉제센터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삶의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마음이 있고 조직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원자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균형을 맞추어 종사자를 선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5.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 종사자의 삶, 가정과 일 : 설문조사 분석

1) 개요

(1) 배경

4장에서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를 2011년 직업훈련부터 익팅 런칭 후 지금까지 역량강화와 생산, 마케팅 그리고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익팅의 자립의 과정 전반을 설명했다. 익팅의 운영과 조직, 내용이 사회적 경제의 핵심가치와 SDG의 가치와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도 아울러 설명했다. 그러면 익팅 종사자들은 익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종사자 개개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할까? 종사자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장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종사자들의 삶과 가정, 일터 익팅에 대한 생각을 분석했다. 이것은 2장에서 제시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요건인 공공성,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사람/노동중시라는 관점이 주요 분석틀이다. 이 분석틀은 익팅 종사자의 삶과 가정 일터를 설명하는데 매우 한계가 많다. 그 이유는 여성노동자로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는지, 가정안에서 파트너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5장은 익팅 종사자들 4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타워빌에 있는 봉제센터에서 훈련된 조사원들이 1:1로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종사자들이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설문 구성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총 51항목이며, 현재 상황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타워빌 이주 전과 이주 후, 익팅 참여시기 세 시기를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타워빌 이주 전과 비교해 이주 후 일자리 문제로 인한 경제적 조건이 매우 열악했다는 점이 캠프가 사업을 구상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다.

현재 익팅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익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두었던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조직화가 개인 종사자들에게 내재화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익팅 봉제센터의 자립을 위한 기초가 세워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결과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익팅의 봉제센터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될 수 있다.

[표16] 설문조사개요

설문조사 기간	2020년 10월21일-23일
설문조사 대상	익팅봉제센터 현 종사자 40명
설문조사 장소	익팅봉제센터
설문조사 방법	일대일 인터뷰 객관식 설문조사
설문문항	개인정보 제외 51문항

(2)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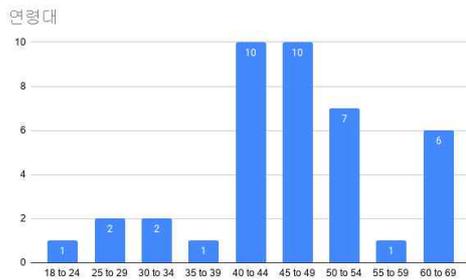
설문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Profile 개인 질문 9개 항목
- (2) Profile 익팅, 타워빌 질문 12개 항목
- (3)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9개 항목: 이주전, 이주후, 익팅참여후
- (4) Member's role in the community 5개 항목: 이주전, 이주후, 익팅참여후
- (5) Member's outlook on personal life 6개 항목: 이주전, 이주후, 익팅참여후
- (6) Member's perceptions and satisfaction about 익팅 19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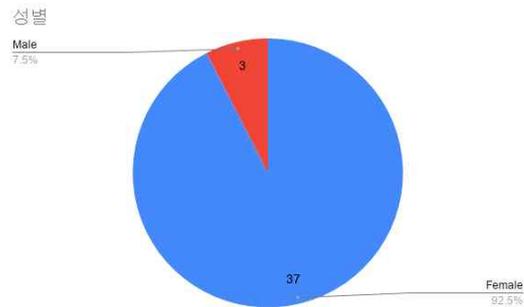
2) 분석

(1) 설문 대상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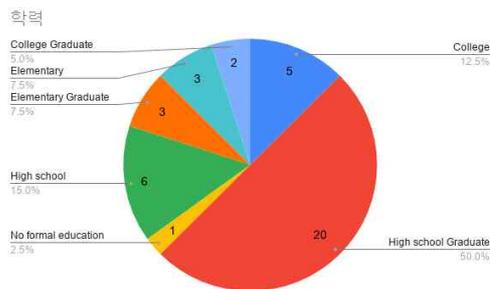
응답자 40명 중 85%가 40세 이상이다. 여성이 92.5%로 총 37명이다. 이들 중 결혼한 비율은 43%이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동거하는 비율이 20%로 절반을 넘는다. 교육정도는 응답자의 50%가 고졸, 대학수료와 대졸 비율이 17.5%로 낮다. 종교는 필리핀의 국가종교인 카톨릭 비율이 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응답자 21명(52%)이 가족이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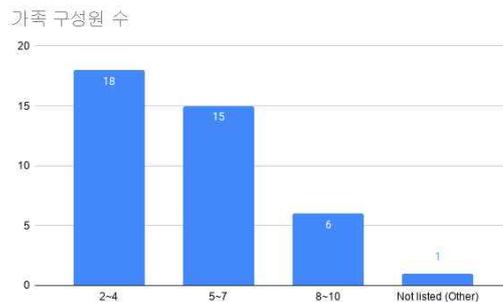
[그래프3] 응답자 연령 분포도



[그래프4] 응답자 성별 비율



[그래프5] 응답자 학력 비율



[그래프6] 응답자 가정구성원수 분포도

(2) 분석에 대한 설명

전체 설문 문항에 대한 분석 이후 이주 전, 이주 후, 익팅 참여 후의 변화가 분명하고, 설문 목적에

부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7개의 항목을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SPSS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세 개의 시기에 따른 변화의 차이를 파악했으므로 분석방법은 Repeated Measured ANOVA를 사용하였다.

(3) 문항에 대한 통계적 분석

[개인의 경제력 향상]

① 월 수입의 변화

질문 : 월 수입(Monthly Income)의 이주전, 후, 익팅 참여 후 비교

각 시기에 따라 Monthly income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Repeated ANOVA를 사용하였다. 사후검증은 Bonferroni를 사용하였다.

[표17] 월수입 자료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Monthly income [Before relocation](a)	3.81	2.370	a,c>b
Monthly income [After relocation](b)	2.51	2.100	
Monthly income [After participation Igting](c)	4.29	1.564	

먼저 Monthly income [Before relocation]을 살펴보면, 평균이 3.81, 표준편차가 2.370으로 나타났다. Monthly income [After relocation]을 살펴보면, 평균이 2.51, 표준편차가 2.100으로 나타났다. Monthly income [After participation Igting]을 살펴보면, 평균이 4.29, 표준편차가 1.564으로 나타났다.

[표18] 월수입 자료에 대한 단위행렬 검정

개체-내효과	Mauchly의W	근사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엡실런b		
					Greenhouse-Geisser	Huynh-Feldt	하한
시간	1.000	.008	2	.996	1.000	1.0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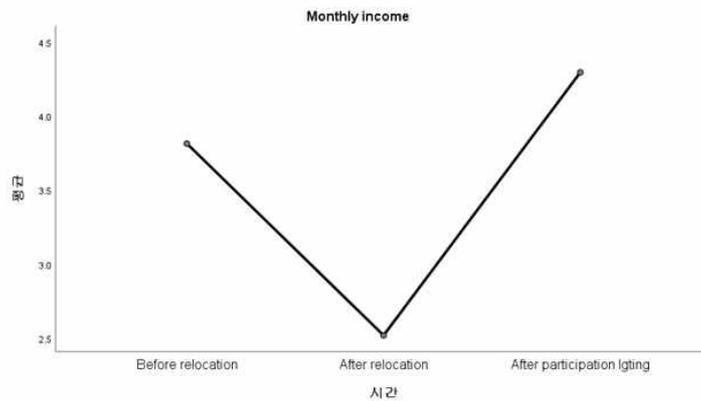
위 표는 단위행렬 검정을 위한 표이다. 보통 일원분산분석의 경우 분산의 동일성을 보는 항목과 일치한다. Mauchly의 W값이 1 이면 완벽한 구형성 단위행렬이 되며 1에 가까울수록 구형성이 강해진다. 유의확률이 0.99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킨다.

[표19] 월수입 자료에 대한 구형성 가정

소스		제III 유형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시간	구형성가정	45.654	2	22.827	10.442	.000
	Greenhouse-Geisser	45.654	1.999	22.835	10.442	.000
	Huynh-Feldt	45.654	2.000	22.827	10.442	.000
	하한	45.654	1.000	45.654	10.442	.003
오차(시간)	구형성가정	113.679	52	2.186		
	Greenhouse-Geisser	113.679	51.983	2.187		
	Huynh-Feldt	113.679	52.000	2.186		
	하한	113.679	26.000	4.372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키므로 위 표에서 구형성 가정을 살펴보면, 시간은 F값이 10.442 , p값이 0.000 으로 시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시간에 변화에 따라서 변화량은 차이가 있다.

[그래프기] 이주 전, 이주 후, 익팅참여후 월 수입 평균값 비교



이주 전 마닐라에서 터전을 잡고 생활하던 주민들의 많은 경우 타워빌로 이주를 하면서 생업이 끊기어, 수입이 매우 낮아지거나 전무하게 되었다. 직업훈련생을 선발할 때, 한 달 평균 수입이 3,000페소 (한화 약 10만원) 이하의 주민을 선발했기 때문에 익팅의 종사자들 또한 이주 후 경제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익팅에 참여한 이후 고정 수입원이 생겼고, 본 응답에서 익팅 참여 후 6,000페소 이상을 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62.5%로 확인되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이주 후와 비교해 익팅 참여 이후 2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장에서 언급한대로, 종사자들이 타워빌 이전과 이후는 일자리를 통해 어느정도 수입을 가지고 있으나, 타워빌 이주후에는 취약 계층에 해당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적 경제의 핵심가치인 포용적 경제의 형태라 볼 수 있으며, SDG 1 빈곤종식을 통해 일자리를 통한 소득증대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다.

[가정-household]

이주 전·이주 후·익팅 참여 이후 각 세 시기에 따라, 가정 경제 기여도, 집안일에 대한 부담, 개인의 여

가 시간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이 설문항목은 여성노동자들의 경제력 향상과 가정내의 관계, 자부심, 집안일의 부담, 여가시간 확보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였다. 분석들은 사회적 경제들에서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① 가정경제 기여도

질문 : 가족의 필요와 지출에 경제적으로 기여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I was proud that I can contribute in financing my family's needs and expenses) 의 이주전, 후, 익팅 참여 후 비교

각 시기에 따라 위 문항에 대한 답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Repeated ANOVA를 사용하였다. 사후검증은 Bonferroni를 사용하였다.

[표20] 가정경제 기여도 응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Before relocation)(a)	3.63	.589	c>a>b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After relocation)(b)	3.37	.589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After participation Iging)(c)	4.29	.460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Before relocation)을 살펴보면, 평균이 3.63, 표준편차가 .589으로 나타났다.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After relocation)을 살펴보면, 평균이 3.37, 표준편차가 .589으로 나타났다.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After participation Iging)을 살펴보면, 평균이 4.29, 표준편차가 .460으로 나타났다.

[표21] 가정경제 기여도 응답에 대한 단위행렬 검정

개체-내효과	Mauchly의W	근사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엡실런b		
					Greenhouse-Geisser	Huynh-Feldt	하한
시간	.852	5.761	2	.056	.871	.911	.500

위 표는 단위행렬 검정을 위한 표이다. 보통 일원분산분석의 경우 분산의 동일성을 보는 항목과 일치한다. Mauchly의 W값이 1 이면 완벽한 구형성 단위행렬이 되며 1에 가까울수록 구형성이 강해진다. 유의확률이 0.05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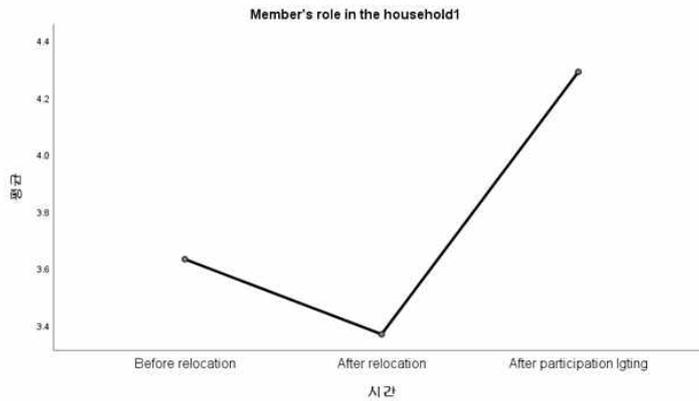
[표22] 가정경제 기여도 응답에 대한 구형성 가정

소스	제III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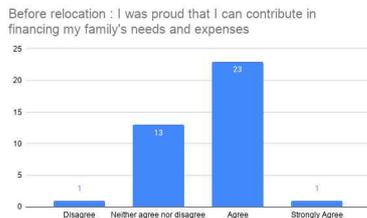
		유형제곱합				
시간	구형성가정	17.105	2	8.553	29.353	.000
	Greenhouse-Geisser	17.105	1.742	9.817	29.353	.000
	Huynh-Feldt	17.105	1.821	9.393	29.353	.000
	하한	17.105	1.000	17.105	29.353	.000
오차(시간)	구형성가정	21.561	74	.291		
	Greenhouse-Geisser	21.561	64.466	.334		
	Huynh-Feldt	21.561	67.381	.320		
	하한	21.561	37.000	.583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키므로 위 표에서 구형성 가정을 살펴보면, 시간은 F값이 29.353 , p값이 0.000 으로 시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시간에 변화에 따라서 변화량은 차이가 있다.

[그래프8] 이주 전, 이주 후, 익팅 참여 후 가정경제 기여도에 대한 평균값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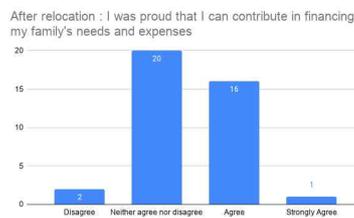


위 문항과 연결되는 문항으로, 경제력이 상승됨에 따라 가정 내 경제기여도가 향상되고, 이것은 가정 경제력의 만족감으로 연결된다. 특별히 이주 이후, 배우자가 일자리를 잃었거나, 도심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경우 여성 가정이 생계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익팅참여 후 가정 경제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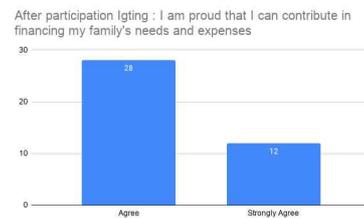
[그래프 9]

이주 전 가정경제 기여도



[그래프 10]

이주 후 가정경제 기여도



[그래프 11]

익팅 참여 후 가정경제 기여도

② 집안일에 대한 부담

질문 : 나는 집안일을 하는데 있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I was overburdened when it comes to doing household chores) 의 이주전, 후, 익팅 참여 후 비교

각 시기에 따라 위 문항에 대한 답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Repeated ANOVA를 사용하였다. 사후검증은 Bonferroni를 사용하였다.

[표23] ‘집안일에 대한 부담’ 응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Before relocation)(a)	3.10	1.057	a,b>c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After relocation)(b)	3.22	1.050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After participation Igting)(c)	2.63	.979	

먼저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Before relocation)(a)을 살펴보면, 평균이 3.10, 표준편차가 1.057으로 나타났다.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After relocation)(b)을 살펴보면, 평균이 3.22, 표준편차가 1.050으로 나타났다.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After participation Igting)(c)을 살펴보면, 평균이 2.63, 표준편차가 .979으로 나타났다.

[표24] ‘집안일에 대한 부담’ 자료에 대한 단위행렬 검정

개체-내효과	Mauchly의W	근사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엡실런b		
					Greenhouse-Geisser	Huynh-Feldt	하한
시간	.872	5.219	2	.074	.886	.925	.500

위 표는 단위행렬 검정을 위한 표이다. 보통 일원분산분석의 경우 분산의 동일성을 보는 항목과 일치한다. Mauchly의 W값이 1 이면 완벽한 구형성 단위행렬이 되며 1에 가까울수록 구형성이 강해진다. 유의확률이 0.07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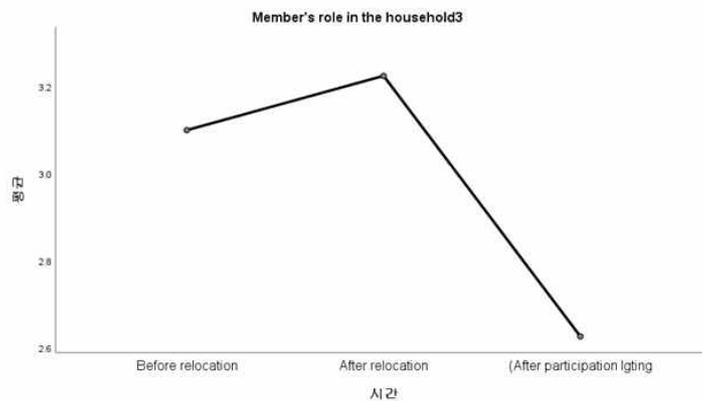
[표25] ‘집안일에 대한 부담’ 응답에 대한 구형성가정

소스		제III 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시간	구형성가정	8.017	2	4.008	6.255	.003
	Greenhouse-Geisser	8.017	1.773	4.523	6.255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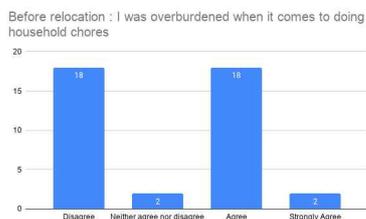
	Huynh-Feldt	8.017	1.851	4.331	6.255	.004
	하한	8.017	1.000	8.017	6.255	.017
오차(시간)	구형성가정	49.983	78	.641		
	Greenhouse-Geisser	49.983	69.129	.723		
	Huynh-Feldt	49.983	72.182	.692		
	하한	49.983	39.000	1.282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키므로 위 표에서 구형성 가정을 살펴보면, 시간은 F값이 6.255 , p값이 0.003 으로 시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시간에 변화에 따라서 변화량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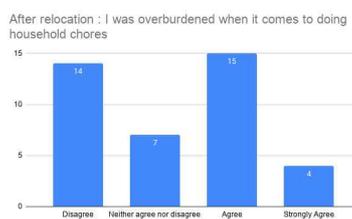
[그래프 12] 이주 전, 이주 후, 익팅 참여 후 집안일 부담에 대한 응답 평균값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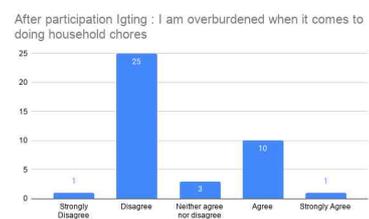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가정 내 평등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문항인 3항목의 5번문항(I did all the household chores in my home)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동항목 9번 문항(I was happy with my position in my own home)에서 자신의 가정 내 위치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진 것과 연계하여 해석될 수 있다. 익팅 참여를 통해 배우자의 집안일 참여도가 높아졌거나, 경제력 획득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에 따라 집안일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프 13] 이주 전 집안일에 대한 부담



[그래프 14] 이주 후 집안일에 대한 부담



[그래프 15] 익팅 참여 후 집안일에 대한 부담

③ 개인의 여가시간 확보

질문 : 나는 일과 집안일 이외의 사회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I had enough time for activities beyond my work and household duties - hobbies, socialization, self-development) 의 이주전, 후, 익팅 참여 후 비교

각 시기에 따라 위 문항에 대한 답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Repeated ANOVA를 사용하였다. 사후검증은 Bonferroni를 사용하였다.

[표26] ‘개인 여가시간 확보’ 응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Before relocation)(a)	3.88	.516	a>b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After relocation)(b)	3.40	.900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After participation(c) Igting)	3.78	.660	

먼저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Before relocation)(a)을 살펴보면, 평균이 3.88, 표준편차가 .516으로 나타났다.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After relocation)(b)을 살펴보면, 평균이 3.40, 표준편차가 .900으로 나타났다.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After participation(c) Igting)을 살펴보면, 평균이 3.78, 표준편차가 .660으로 나타났다.

[표27] ‘개인 여가시간 확보’ 응답에 대한 단위행렬 검정

개체-내효과	Mauchly의W	근사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엡실런b		
					Greenhouse-Geisser	Huynh-Feldt	하한
시간	.920	3.166	2	.205	.926	.970	.500

위 표는 단위행렬 검정을 위한 표이다. 보통 일원분산분석의 경우 분산의 동일성을 보는 항목과 일치한다. Mauchly의 W값이 1 이면 완벽한 구형성 단위행렬이 되며 1에 가까울수록 구형성이 강해진다. 유의확률이 0.2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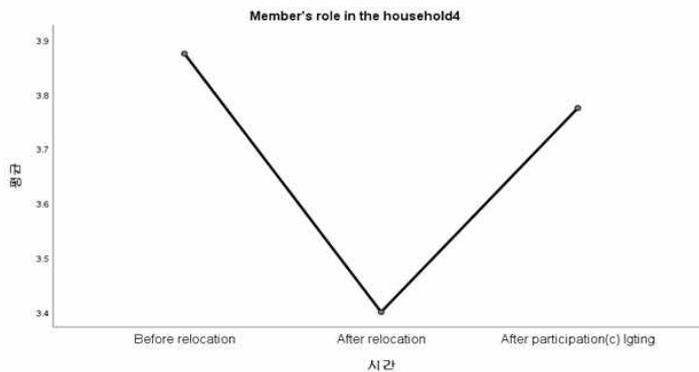
[표28] ‘개인 여가시간 확보’ 응답에 대한 구형성 가정

소스		제III 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시간	구형성가정	5.017	2	2.508	5.387	.006
	Greenhouse-Geisser	5.017	1.852	2.709	5.387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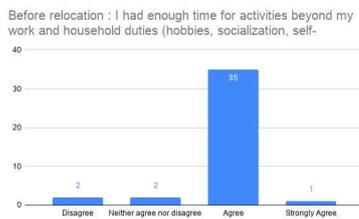
	Huynh-Feldt	5.017	1.940	2.586	5.387	.007
	하한	5.017	1.000	5.017	5.387	.026
오차(시간)	구형성가정	36.317	78	.466		
	Greenhouse-Geisser	36.317	72.226	.503		
	Huynh-Feldt	36.317	75.671	.480		
	하한	36.317	39.000	.931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키므로 위 표에서 구형성 가정을 살펴보면, 시간은 F값이 5.387 , p값이 0.006으로 시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시간에 변화에 따라서 변화량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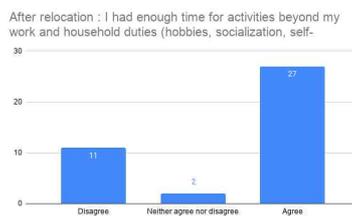
[그래프16] 이주 전, 이주 후, 익팅 참여후의 개인 여가시간 확보에 대한 응답 평균값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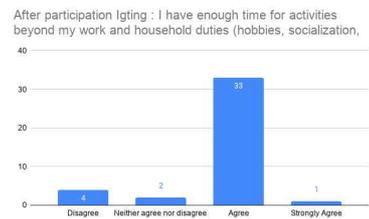
이 문항은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주 전은 종사자들이 살아왔던 터전으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되고 인간관계가 이루어졌기에 개인의 여가활동이나 여가시간이 자유로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주 이후,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모여 사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활동의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익팅 참여 이후 결과가 높아진 것은, 익팅이 진행되는 지역활동을 통해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이주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내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프 17] 이주 전



[그래프 18] 이주 후



[그래프 19] 익팅 참여 후

[Community 지역사회]

① 지역사회 참여도

질문 : 나는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I actively participated in community activities) 의 이주전, 후, 익팅 참여 후 비교

각 시기에 따라 위 문항에 대한 답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Repeated ANOVA를 사용하였다. 사후검증은 Bonferroni를 사용하였다.

[표29] 지역사회 참여도 응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Member's role in the community (Before relocation)(a)	2.58	.903	b,c>a
Member's role in the community (After relocation)(b)	3.15	1.027	
Member's role in the community (After participation Igting)(c)	3.25	1.032	

먼저 Member's role in the community (Before relocation)(a)을 살펴보면, 평균이 2.58, 표준편차가 .903으로 나타났다. Member's role in the community (After relocation)(b)을 살펴보면, 평균이 3.15, 표준편차가 1.027으로 나타났다. Member's role in the community (After participation Igting)(c)을 살펴보면, 평균이 3.25, 표준편차가 1.032으로 나타났다.

[표30] 지역사회 참여도 응답에 대한 단위행렬 검정

개체-내효과	Mauchly의W	근사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엡실런b		
					Greenhouse-Geisser	Huynh-Feldt	하한
시간	.990	.369	2	.832	.990	1.000	.500

위 표는 단위행렬 검정을 위한 표이다. 보통 일원분산분석의 경우 분산의 동일성을 보는 항목과 일치한다. Mauchly의 W값이 1 이면 완벽한 구형성 단위행렬이 되며 1에 가까울수록 구형성이 강해진다. 유의확률이 0.83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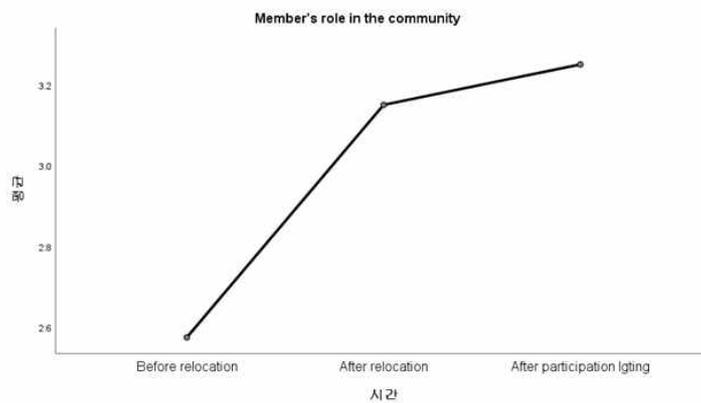
[표31] 지역사회 참여도 응답에 대한 구형성 가정

소스	제III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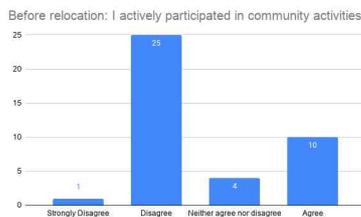
		유형제곱합				
시간	구형성가정	10.617	2	5.308	7.854	.001
	Greenhouse-Geisser	10.617	1.981	5.360	7.854	.001
	Huynh-Feldt	10.617	2.000	5.308	7.854	.001
	하한	10.617	1.000	10.617	7.854	.008
오차(시간)	구형성가정	52.717	78	.676		
	Greenhouse-Geisser	52.717	77.254	.682		
	Huynh-Feldt	52.717	78.000	.676		
	하한	52.717	39.000	1.352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키므로 위 표에서 구형성 가정을 살펴보면, 시간은 F값이 7.854 , p값이 0.001으로 시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시간에 변화에 따라서 변화량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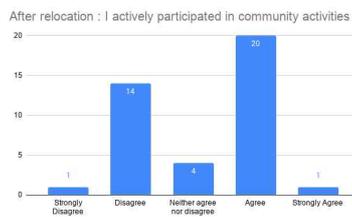
[그래프20] 이주 전, 이주 후, 익팅 참여 후 지역사회 참여도 응답에 대한 평균값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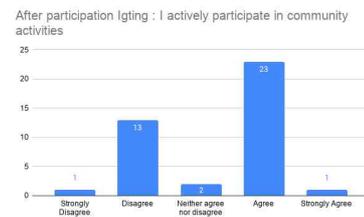
태풍과 같은 재난, 철거 등 비슷한 이주의 배경을 가진 이주민 지역 내 공동체라는 점이 이주 전과 후에 차이를 크게 나타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익팅 참여 이후 익팅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대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했을 수 있다.



[그래프21] 이주 전 지역사회 참여도



[그래프22] 이주 후 지역사회 참여도



[그래프23] 익팅 참여 후 지역사회 참여도

[Outlook : 자기 이해]

①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질문 : I felt secured with my own life (나는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느낀다) 의 이주전, 후, 익팅 참여 후 비교

각 시기에 따라 위 문항에 대한 답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Repeated ANOVA를 사용하였다. 사후검증은 Bonferroni를 사용하였다.

[표32] 삶의 만족도 응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Member's outlook on personal life (Before relocation)(a)	3.30	.911	c>a,b
Member's outlook on personal life (After relocation)(b)	2.88	.992	
Member's outlook on personal life (After participation Igting)(c)	4.22	.480	

먼저 Member's outlook on personal life (Before relocation)(a)을 살펴보면, 평균이 3.30, 표준편차가 .911으로 나타났다. Member's outlook on personal life (After relocation)(b)을 살펴보면, 평균이 2.88, 표준편차가 .992으로 나타났다. Member's outlook on personal life (After participation Igting)(c)을 살펴보면, 평균이 4.22, 표준편차가 .480으로 나타났다.

[표33] 삶의 만족도 응답에 대한 단위행렬 검정

개체-내효과	Mauchly의W	근사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엡실런b		
					Greenhouse-Geisser	Huynh-Feldt	하한
시간	.840	6.612	2	.037	.862	.898	.500

위 표는 단위행렬 검정을 위한 표이다. 보통 일원분산분석의 경우 분산의 동일성을 보는 항목과 일치한다. Mauchly의 W값이 1 이면 완벽한 구형성 단위행렬이 되며 1에 가까울수록 구형성이 강해진다. 유의확률이 0.03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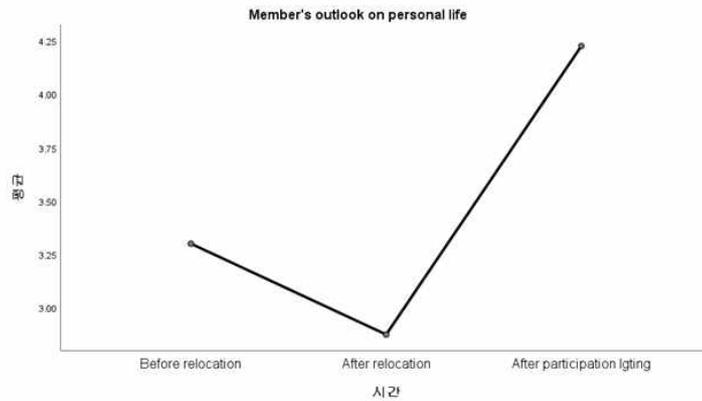
[표34] 삶의 만족도 응답에 대한 구형성 검정

소스		제III 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시간	구형성가정	38.117	2	19.058	33.875	.000
	Greenhouse-Geisser	38.117	1.725	22.102	33.875	.000
	Huynh-Feldt	38.117	1.797	21.212	33.875	.000
	하한	38.117	1.000	38.117	33.875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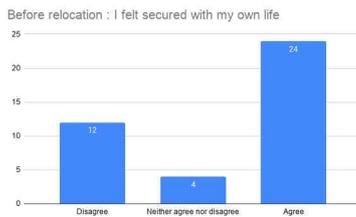
오차(시간)	구형성가정	43.883	78	.563		
	Greenhouse-Geisser	43.883	67.259	.652		
	Huynh-Feldt	43.883	70.082	.626		
	하한	43.883	39.000	1.125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키므로 위 표에서 구형성 가정을 살펴보면, 시간은 F값이 33.875 , p값이 0.000 으로 시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시간에 변화에 따라서 변화량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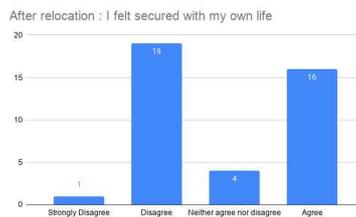
[그래프24] 이주 전, 이주 후, 익팅 참여 후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답변 평균값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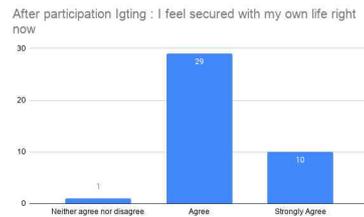
이주 후에 안정적인 삶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기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으나, 익팅 참여 후에 삶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 이는 경제적 안정감과 아울러 정서적 안정감을 통해 자아 이해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프25] 이주 전 삶의 만족도



[그래프26] 이주 후 삶의 만족도



[그래프27] 익팅 참여 후 삶의 만족도

② 자기 개발욕구

질문 : 나는 나의 기술과 재능과 태도를 향상시키기를 원한다(I wanted to improve my own skills, talents, and attitude) 의 이주전, 후, 익팅 참여 후 비교

각 시기에 따라 위 문항에 대한 답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Repeated ANOVA를 사용하였다. 사후검증은 Bonferroni를 사용하였다.

[표35] 자기 개발욕구 응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Member's outlook on personal life (Before relocation)	3.58	.747	
Member's outlook on personal life (After relocation)	3.02	.891	
Member's outlook on personal life (After participation Igting)	4.13	.335	

먼저 Member's outlook on personal life (Before relocation)을 살펴보면, 평균이 3.58, 표준편차가 .747으로 나타났다. Member's outlook on personal life (After relocation)을 살펴보면, 평균이 3.02, 표준편차가 .891으로 나타났다. Member's outlook on personal life (After participation Igting)을 살펴보면, 평균이 4.13, 표준편차가 .335으로 나타났다.

[표36] 자기 개발욕구 응답에 대한 단위행렬 검정

개체-내효과	Mauchly의W	근사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엡실런b		
					Greenhouse-Geisser	Huynh-Feldt	하한
시간	.869	5.319	2	.070	.884	.923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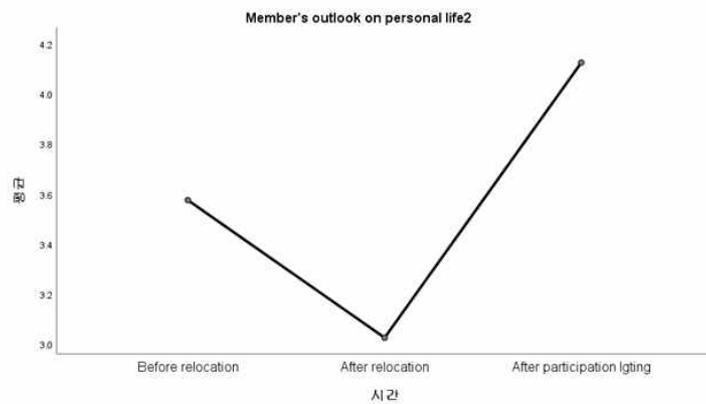
위 표는 단위행렬 검정을 위한 표이다. 보통 일원분산분석의 경우 분산의 동일성을 보는 항목과 일치한다. Mauchly의 W값이 1 이면 완벽한 구형성 단위행렬이 되며 1에 가까울수록 구형성이 강해진다. 유의확률이 0.07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킨다.

[표37] 자기 개발욕구 응답에 대한 구형성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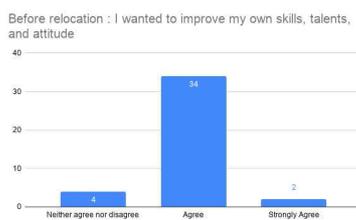
소스		제III 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시간	구형성가정	24.200	2	12.100	24.536	.000
	Greenhouse-Geisser	24.200	1.769	13.681	24.536	.000
	Huynh-Feldt	24.200	1.847	13.104	24.536	.000
	하한	24.200	1.000	24.200	24.536	.000
오차(시간)	구형성가정	38.467	78	.493		
	Greenhouse-Geisser	38.467	68.988	.558		
	Huynh-Feldt	38.467	72.024	.534		
	하한	38.467	39.000	.986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키므로 위 표에서 구형성 가정을 살펴보면, 시간은 F값이 24.536 , p값이 0.000으로 시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시간에 변화에 따라서 변화량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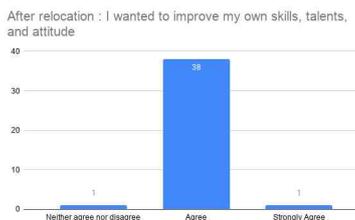
[그래프28] 이주 전, 이주 후, 익팅 참여 후 자기 개발 욕구에 대한 응답 평균값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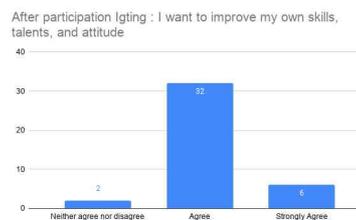
이 문항 역시, 앞의 문항인 삶의 만족도와 같이 비슷한 추이도를 형성한다. 자아 이해와 자아 만족도가 기술과 재능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자기 개발 의지로 표현되고 있다. 이 문항은 삶의 의지를 회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자신의 기술과 재능과 태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개인의 의지, 그리고 역량강화프로그램과 기술훈련을 통해 향상된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투영된 결과이다.



[그래프29] 이주 전 자기개발욕구



[그래프30] 이주 후 자기개발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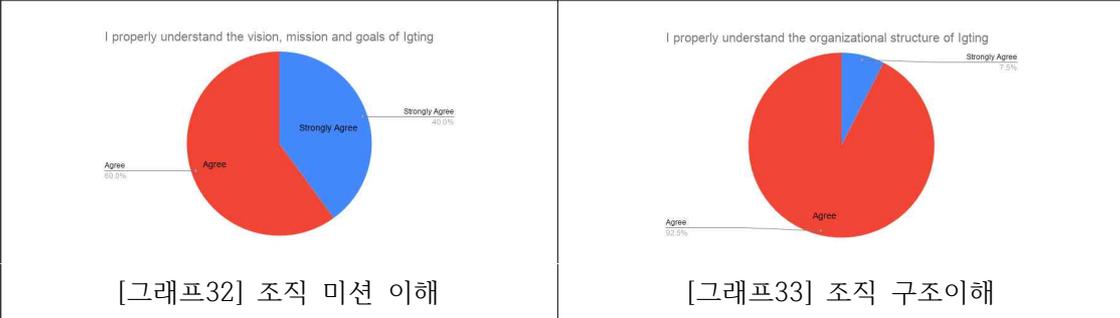
[그래프31] 익팅 참여 후 자기개발욕구

[익팅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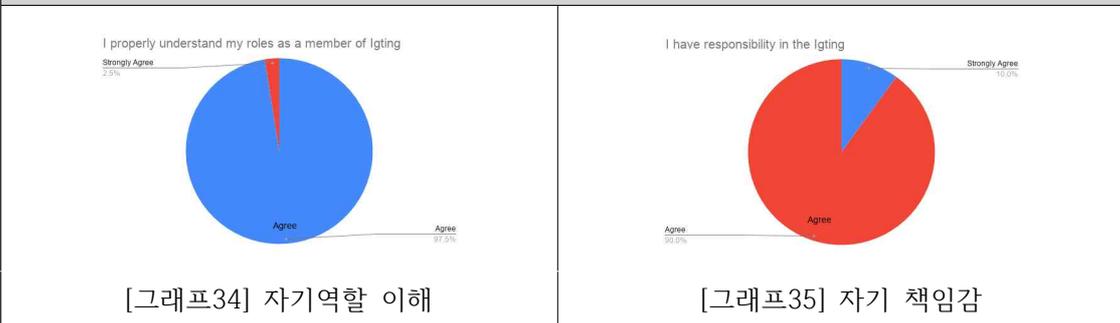
[표38] 익팅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

익팅 봉제센터 인식과 만족도 조사는 시기별 구성이 아니라 현재 단일 시점 기준
1. 조직 이해(익팅의 미션과 목적에 대한 이해, 익팅의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

종사자 100%가 조직의 미션과 구조를 이해, 확실히 이해한다고 응답, 익팅 조직에 대한 이해가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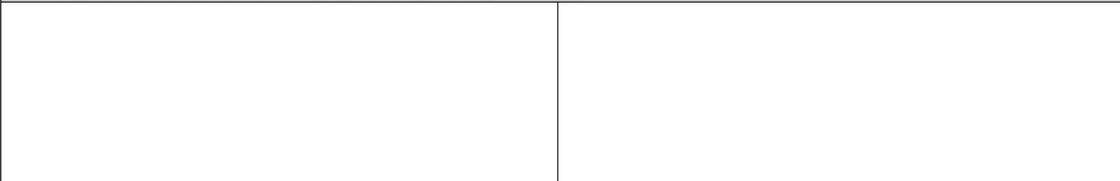
2. 직무 이해(종사자로서 내 역할에 대한 이해, 익팅 조직에 대한 책임감)
 종사자의 절대다수가 역할과 조직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3. 조직에 대한 긍지(종사자로서 긍지를 느끼고 있다. 현재의 위치에 만족한다)
 종사자 50%가 긍지를 느끼고 있고, 50%가 훨씬 강력한 긍지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현재 익팅내 위치에 만족한다는 질문 중 15%는 불만, 긍정도 부정도 아닌 5%가 나타난 것은 현재 포지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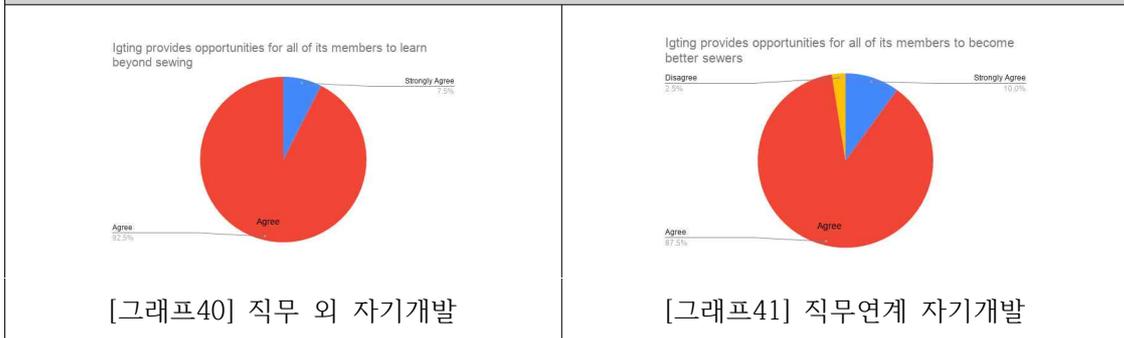


4. 동료와의 관계(동료와의 개인적 친밀성, 익팅 종사자 모두의 상호친밀성)
 응답자 100%가 동료와의 개인적 친밀성과 상호적 친밀성에 동의한 것은 익팅의 조직문화가 수평적이고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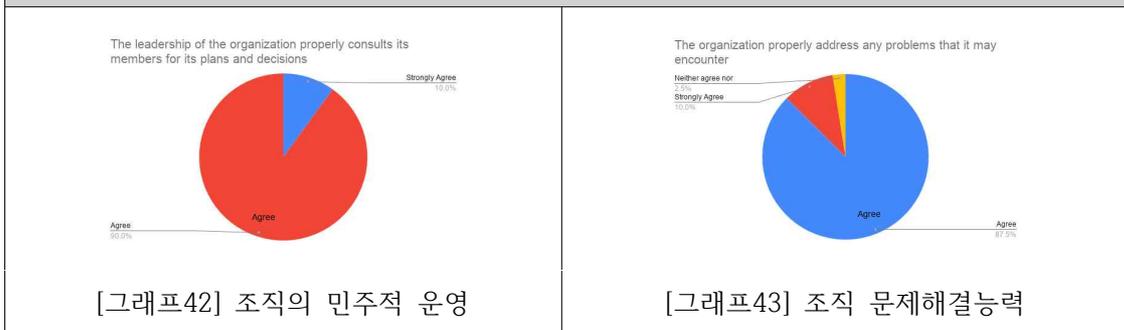




5. 익팅의 자기개발 기회(종사자들에게 자기 개발의 기회 제공여부, 더 나은 봉제사가 되기 위해 배울 기회를 제공 여부)
 대상자의 100%가 직무 외의 자기개발의 기회를 익팅이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 90%가 봉제사의 기술향상을 위해 익팅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함. 이는 익팅 봉제센터가 질 좋은 봉제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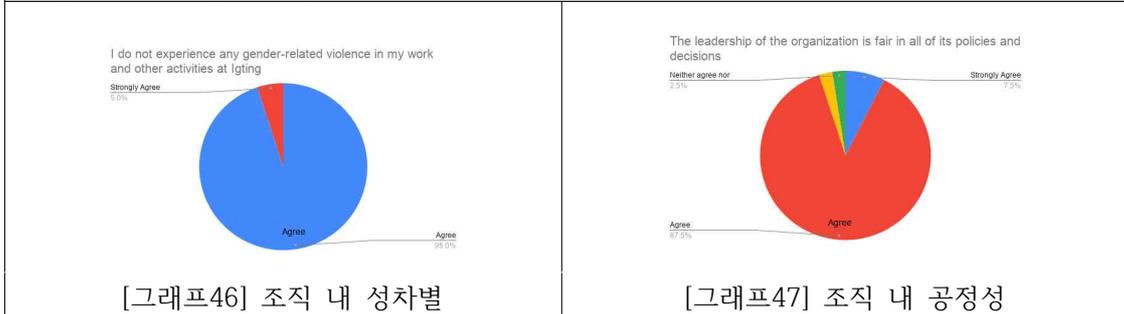
6. 리더십/민주적 운영(운영진은 정책수립시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여부, 문제가 있을 때 적절하게 알려주는지 여부)
 응답자 100%가 운영진은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응답하고, 95%는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능력이 있다고 응답함. 이는 익팅 봉제센터가 종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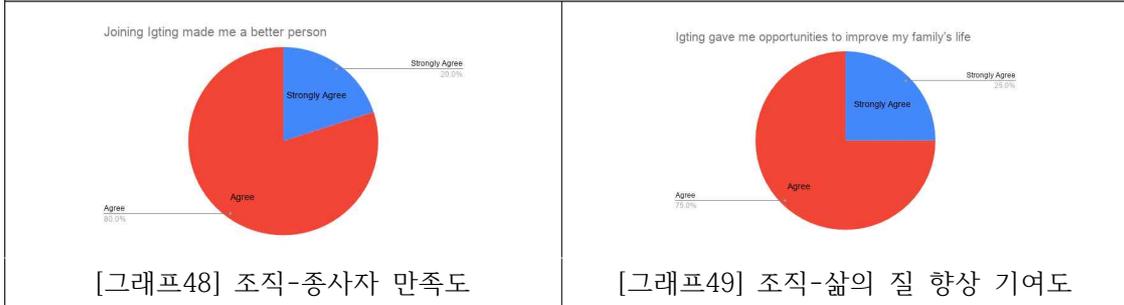
7. 지역활동, 지역사회 공헌도(익팅의 지역활동의 적극적 참여여부, 타워빌 커뮤니티가 익팅의 지역봉사로 혜택을 보는지 여부)
 응답자의 95%가 익팅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익팅의 지역사회 공헌이 타워빌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는 응답자의 85%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고, 부정적 답변도 5%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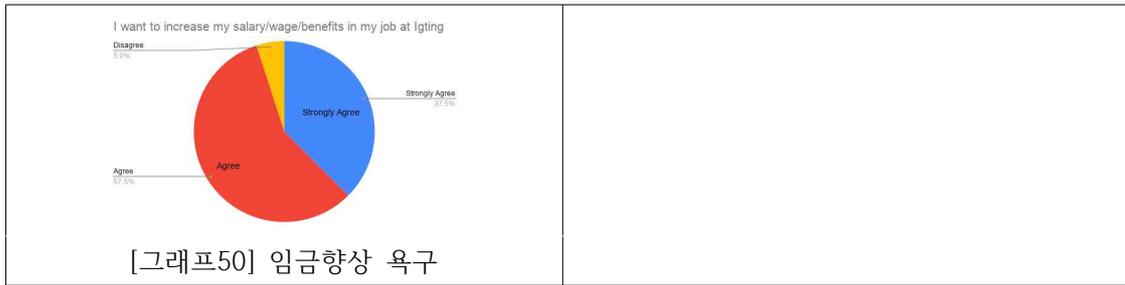
8. 차별과 공정성(익팅의 활동과 업무에서 젠더관련 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는지, 운영진이 정책수립에 있어 공정했는지)
 젠더관련 폭력에 대해 5%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운영진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95%가 답변하여 조직내 차별이 없다고 응답함.



9. 조직 관계의 만족도(익팅 참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익팅이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켰는지)
 응답자의 100%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은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이것은 익팅 참여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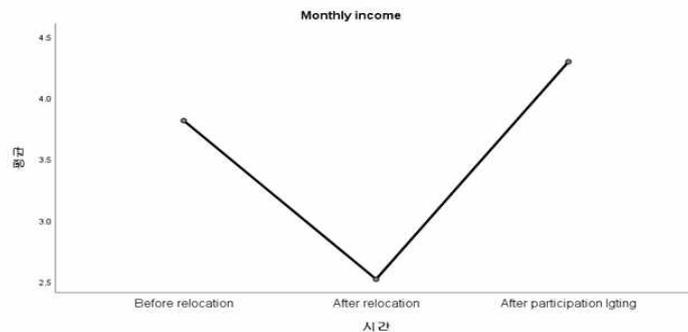
10. 임금 향상 욕구
 임금인상에 대한 욕구는 대부분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5%에 지나지 않음. 이는 4장에서 도전과제로 제시된 저임금 극복과 일맥상통함



3) 분석결과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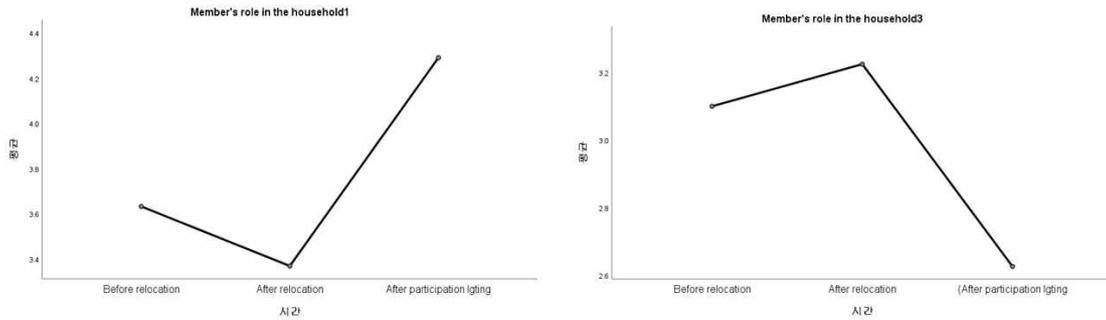
설문분석의 목적은 종사자들의 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종사자들의 개인적 삶과 가정, 일터가 어떻게 익팅이라는 사회적기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었다. 2장에서 서술한 사회적 경제의 중심적 원칙이 공공성, 자율적 경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사람과 노동 중시라고 할 때, 과연 익팅이라는 일터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개인적인 삶과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결과와 흐름을 따라가면서 추이도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월 수입이다. 이주 이전과 이후, 익팅 참여를 구분한 월 수입의 추이도는 정상적인 브이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주 전의 경제활동이 이주 후에 일자리 부재로 최하위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익팅 참여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익팅 봉제센터 직업훈련생 선발 기준이 월 3천페소 이하인 조건을 고려하면 현재 평균 6천페소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나 약 2배의 임금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물가상승, 최저생계비 기준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저임금이며, 종사자 95%가 임금 상승을 원한다는 결과는 4장의 도전과제로 제시된 저임금 극복과 맞물려 향후 주요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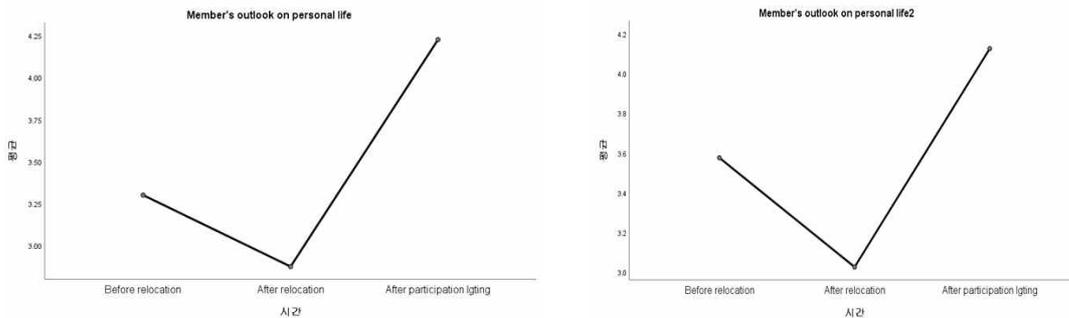


② 가정경제 기여도 만족과 집안일 부담이다. 가정경제 기여도와 집안 일 부담도는 상반된 추이도가 나타난다. 종사자 85%가 결혼한 여성임을 고려해볼 때, 익팅을 통한 경제권 획득이 집안일 부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워빌 이주 후 가정경제 기여도는 최하점에 배치되고 부담도는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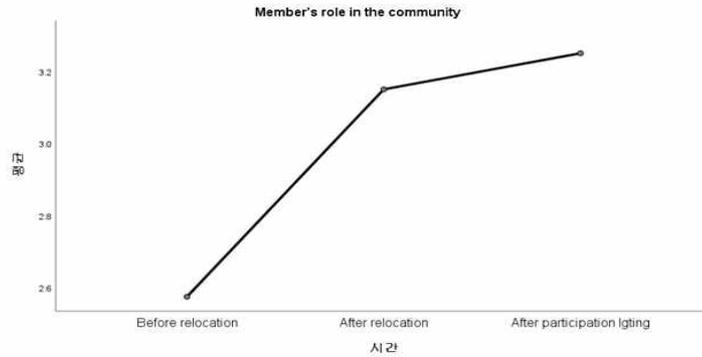
정점에 있는 것과 달리, 익팅 참여후에는 가정경제 기여도는 최정점에, 집안일 부담은 최하점에 배치되는 점이 흥미롭다. 집안일 부담이 어떤 형태로 경감되었는지를 좀더 살펴봐야할 주제이나, 여성의 임파워먼트 측면에서 주목할 측면이다.



③ 삶의 만족도와 자기개발 욕구이다.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기술과 재능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자기개발 욕구와의 상관관계는 추이도가 동일한 패턴으로 나와있다. 이 패턴 역시 이주 후 최하점을 찍고, 익팅 참여는 최정점을 찍고 있다. 정규적인 임금을 받는 형태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례하는 것이 자기 개발의 문제이다. 기술 개발을 통한 임금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봉제센터의 다양한 역할(생산, 마케팅, 훈련 등)을 통해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하는 것이다.



④ 지역사회 참여도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주 이전과 이후, 익팅 참여 시기를 전체적으로 상승곡선을 보인다. 이주 전보다 이주 후가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해졌고, 익팅 참여를 계기로 지역사회 활동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다. 이주 후와 익팅 참여를 중심으로 참여의 빈도와 참여활동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⑤ **익팅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이다.** 현재의 만족도를 물었을 때, 이때 주요변수가 코로나라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 시점은 락다운이 완화된 상황이라는 하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인 조직의 미션과 조직에 관해서는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 익팅 종사자로서 긍지를 느끼며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가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가 역시 대부분 긍정적 답변이 이루어졌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익팅 종사자로서 개인의 만족도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것은 거의 동일하지만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 이것은 필리핀의 가족중심 문화에서 나온 것으로, 익팅 참여는 개인을 넘어서 가족의 미래와도 연결된다는 점이다. 종사자에게 익팅은 일터이자, 동료로 만나는 곳이고 지역사회에 소통하는 장소이자, 민주주의 훈련장이기도 하다. 사회적기업으로 익팅은 종사자에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평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종사자들이 느끼는 그들의 일터인 사회적 기업 익팅 봉제센터에 대한 만족도와 봉제센터가 사회적 경제 요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표00] 종사자들의 만족도와 사회적 경제 요건과의 연관성

공공성 중심	1. 조직의 이해: 종사자 100퍼센트가 조직의 미션과 조직구조를 이해한다고 응답. 영리기업이 아닌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으로서 익팅 봉제센터의 미션과 조직구조를 이해하고 있음 3. 조직에 대한 긍지: 종사자 50%가 긍정, 50%가 강한 긍정을 표시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짐
자율적 경영	2. 직무 이해: 종사자의 절대 다수가 자기 역할과 조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있음. 이것은 익팅 봉제센터가 직접 선출된 운영진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를 바탕으로 공유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
민주적 의사결정	4. 동료와의 관계: 종사자 100%가 개인적 친밀감을 가지며, 상호 친밀적이라고 응답 6. 리더쉽/민주적 운영: 운영진은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있을 시 문

	<p>제대처 능력이 있다고 응답</p> <p>8. 공정성: 95% 종사자가 운영진이 공정하다고 응답. 익팅 봉제센터는 수평적 조직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들은 정책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운영진은 공정하게 수렴하는 것이 설문결과 나타남.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반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줌</p>
<p>사람/노동 중심</p>	<p>5. 자기개발 기회: 더 나은 봉제사가 되기 위한 기술습득과 그 외의 자기개발을 위해 기회를 제공한다고 종사자의 90% 이상이 응답</p> <p>9. 관계의 만족도: 응답자 100%가 익팅 참여가 개인과 가족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익팅 종사자들은 익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과 함께 향후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사람을 중시하는 조직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함</p>

6. 결론

1) 지속가능을 위한 전제들

최근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은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사회적 경제 분야를 해외 사업장에 접목시키고 활성화하고 있다. 주로 해외공적 자금(ODA)에 의존한 해외 사업들은 지원이 끝나면서 사업도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나 봉사단원들이 중심으로 활동한다. 현지인들은 사업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재정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사업을 발굴할 때도, 수원국이나 수혜자들의 니즈에 기반한 현지형 사업이라기 보다는 공여국과 단체들의 니즈가 우선되는 사업도 종종 있어서 현지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어렵기도 하다. 또한 사업의 평가 역시 정량적 평가에 기반한 성과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단체들이 보여주기식 사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외부지원이 중단된 이후 해외 현장에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외부 지원의 투입 기간과 사업 기간이 맞물리는 현실은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개발의 효과성과 원조의 책무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강조되는 사회적 경제는 그 필요성 만큼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그 역사가 짧다. 한국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이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어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과지표 역시 개발되지 않아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한국국제협력단이 사회적경제 영역을 국제개발현장에서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수혜자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케팅 비즈니스를 위한 투자에 재원의 상당부분이 투여됨으로 정작 빈곤문제 해결을 말하면서 소위 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지역내 당사자들의 주인의식과 리더십, 운영능력이라 할 수 있다. 시작은 해외 공적자금에 의존했다 하더라도, 외부 재원이 중단된 이후에 자체적으로 축적된 매파워를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역량이 갖춰진다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우수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캠프의 필리핀 현지 사회적기업 '익팅'봉제센터 사례연구를 통해 지속가능성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본 동시에, 종사자들의 관점에서 익팅 참여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삶, 그리고 자아실현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주로 사회적기업을 평가하는 관점이 기업의 측면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사람이 보이는, 종사자가 보이는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3장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 타워빌이라는 강제이주 지역에서 집중적인 커뮤니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캠프의 사업과 전략을 다루었다.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를 인큐베이팅하고 집중 육성한 캠프의 주요전략은 현지화 전략과 커뮤니티 기반 전략이다. 사업 준비단계부터 현지 니즈파악과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현지 전문가의 결합을 최대화했다. 한국인 직원의 주도적 개입을 최소화시

키면서, 현지 직원들의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방식을 채택했다. 커뮤니티 기반 전략은 캠프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주민조직을 통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자조모임을 통한 연대성 강화를 중시했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주민참여는 주민을 동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민의 참여는 지역주민들의 니즈가 충족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며, 주민참여는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주인의식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주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기반 전략은 캠프의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중심을 구성하고 있다. 캠프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를 비롯하여 보건 사회적기업 ‘클리닉 커뮤니티드’, 친환경 사회적기업 ‘올가’ 등이 있으며, 가장 역사가 깊고 자립이 이룬 익팅 봉제센터는 캠프의 사업원칙을 가장 잘 반영한 사례이다.

4장과 5장은 본격적으로 익팅 봉제센터를 사회적기업의 측면과 종사자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4장은 사회적기업의 측면에서 조직과 운영체계, 생산과 마케팅,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지역사회와 연대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초기부터 현재까지 변천사와 함께 현재의 과제를 언급했다. 현재 익팅은 신용협동조합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부처, 필리핀 국립대학 등 현지 네트워크와 캠프를 비롯한 든든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2017년 익팅은 캠프로부터 독립하였고, 내부 운영체제로 비즈니스 마케팅 파트와 조직 운영 파트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내외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임금과 기술향상, 복리후생 강화, 신규 종사자들의 인식차이를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5장은 익팅 봉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익팅 종사자의 삶과 가정, 일의 만족도를 파악했다. 설문 분석은 타워빌 이주 전과 이주 후, 익팅 참여라는 세 시기를 중심으로 종사자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미래 비전 등 자기이해, 임파워먼트 측면에서 익팅 참여를 통한 여성의 경제권과 가정 일에 대한 상관관계, 지역사회와의 연대 등의 상관관계를 규명했다. 설문 분석에서 편차는 있으나 주로 브이(V) 곡선 혹은 유(U)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익팅 참여후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왔다. 익팅 종사자로서 기업의 미션과 목적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익팅 종사자 개인의 삶과 익팅 봉제센터의 미래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개인적 삶의 만족없이 타워빌 봉제센터의 지속가능성은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코로나 시대의 SDGs 지속가능성을 위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필리핀 도시빈민 현장 타워빌의 삶을 앗아갔다. 지난 3월 중순 필리핀 정부는 강력한 지역통제를 진행하여 모든 대중 교통수단 운행이 중단되고 사업장들이 폐쇄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은 확보될 수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할 때이다.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우리 모두 당황할 때, 빈곤의 현장은 더 처절했다. 모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외출은 가족 중 한 명만 동사무소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아 식료품 구매를 위한 외출만 허용이 되었다. 마을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되고 군인과 경찰이 투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위기는 일자리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었다. 타워빌과 같은 빈곤지역은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데 극한의 위기상황이 발생했다. 정부의 일시 배급도 역부족이었다. 캠프의 모든 사업도 강제로 중단되었다.

가장 어려운 센터가 익팅 봉제센터였고,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캠프는 지방정부와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여 봉제센터를 면마스크를 생산하는 코로나 프론트라이너 센터로 전환하는 특별허가를 받았다. 마스크 생산 허가는 받았는데 제품수주를 하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캠프는 긴급히 한국의 코이카를 포함한 재단과 지원단체에 지원을 받아 익팅을 통한 현지생산의 기회를 제공했다. 현지 사회적기업 익팅봉제센터가 외부에 알려짐에 따라 필리핀 보건부에서 수술용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수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익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다. 코로나 시대에 국제개발협력 현장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코로나 방역을 지원하는 일 뿐 아니라, 전 세계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가 아닌 면마스크 생산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제재와 탄소배출 등 환경적 요소까지 절감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 국제개발협력사업 현장에서 한국인 사업수행인력과 봉사단이 모두 철수했고, 현지 직원들 역시 정부정책과 교통수단 제한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했다. 대부분 한국의 국제개발 현장의 사업들이 중지되고 최소한의 구호시스템만 돌아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지 사업단위를 외부의존적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설령 자금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익팅은 다양한 역량강화와 긴 주민이관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기에 코로나의 위기상황에서 미션이 주어졌을 때 역량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고 폐업의 위기에서 원조에 의한 코로나 방역물품 생산에서 시작해 오히려 사업이 확장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함께 다른 문제로는 현지 직원들의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업무공백이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현지화(Local)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화(Community)라는 점을 깨달았다. 캠프는 이번 사태를 맞으며 지난 5년간 지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쉽 프로그램을 졸업한 지역내 청(소)년들이 현지 직원의 빈공간을 메꾸며 새로운 리더쉽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청(소)년들은 이미 캠프의 모든 사업을 지켜보면서 캠프의 방향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현지 직원들의 빈공간을 바로 채울 수 있었다.

캠프는 지난 10년동안 꾸준히 주민주도적 사업을 진행해왔다. 타워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연결하는 땅라우 프로젝트는 크고 작은 사업단위들을 비추는 등대역할을 할 것이다. 땅라우 프로젝트는 현재 캠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민 뿐만 아니라 타워빌 전체 주민들에게 문호를 열어 타워빌이 떠나고 싶은 마을이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을로 전환되는 것을 꿈꾸며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5개년 계획으로 타워빌 주민들에게 리더쉽을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년차인 올해 코로나로 잠시 멈추어섰다. 익팅 봉제센터는 땅라우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핵심 조직인 만큼, 캠프의 동등한 파트너기관으로 활동하면서 타워빌의 주민주도형 사업을 이끌 든든한 모기업이 될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면서 캠프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실감했다. 단순한 요행이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가 종사자들이 절대빈곤으로 내몰릴 위기에서 마스크 생산과 방호복 생산으로 위기를 타개했으며, 친환경 사회적기업 올라가 락다운 속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여 유지한 것이야말로 지

속가능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타워빌은 2010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일자리가 없어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지역이 아니라, 현재는 여전히 빈곤선상에 있으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다. 이것이 SDGs 11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마을, SDGs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s 10 불평등 완화가 아니겠는가? 익팅이 필리핀 보건청과 캠프, 코이카 등 다양한 파트너십들이 함께 협력해서 마스크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은 SDGs 17 파트너십과 거버넌스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외부와 차단된 상황에서 리더십훈련을 받은 지역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SDGs 4 양질의 교육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코로나라는 절대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목표는 실현되고 있다.

[참고문헌]

1. 저서

이철용(2017), 『스마일 타워빌』, 사단법인 캠프.
김종결(2020),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 북사피엔스

2. 논문

- 이상헌(2015),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진화”,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29호, 205-241. 이상헌의 분석들은 한상일(2013),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사회적 경제 형성전략: 역량개발관점을 중심으로”, 『창조와 혁신』 제6권 제3호,
오단이(2017), “국제개발협력분야 사회적경제 적용사례 연구: 지역사회밀착형 모델을 중심으로”, 『한 국비영리연구』 제 17권 1호
코이카(2016), “사회적 경제 접근법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혁신방안”,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2019),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성과지표 활용방안”, 한국국제협력단,
이성훈(2017),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인권기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7-4호
김지현(2015), “빈곤의 정의: 다면성과 측정의 한계”, 『국제협력개발』 2015-1호, 13-14
김동훈(2009),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사회적기업”, 『국제개발협력』 2009-3호, 27-30
김유경(2017),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사업의 임팩트: 기아대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한상일, 김윤정(2013),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사회적 경제 형성전략: 역량개발 관점을 중 심으로”, 『창조와 혁신』 제6권 제3호
구정우 외(2014), “글로벌 사회공헌에서 공유가치 창출로: 국제개발 민관협력 혁신모델의 조건” 국제. 지역연구 24권 1호 2014 봄
오수현(2017), “품위 있는 일자리(decent work)의 논의 동향이 우리 원조에게 주는 시사점”, 『국제개 발협력』, 2017-3호
이철용(2014), “캠프, 필리핀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 코이카 2014 민간단체 역량강화 전문분야 프로그램』, 2014.9.24
이철용(2019), “캠프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생태계 육성프로그램』, 코이카와 열매나눔재단, 2019.12.11.
Sun In Choi(2018), “Gender Practices in Households: Women Particip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at a Relocation Site in Bulacan, Philippines”, 필리핀 국립대학교 인 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2020), “Towards a Peoples’ Alternative Regionalism-Cases of Alternative Practices in the

Philippines”, Volume 1.
Sinforoso R. Pagunsan(2015), “NHA Housing Programs and Technologies”, NHA
Charisma Gascon(2010), “Towerville Relocation Sites Survey Report”, CAMP ASIA

3. 보고서

함께일하는재단(2017), 「2017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임팩트 리포트」, 함께일하는재단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18), 「사회적 경제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집」, 충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 코이카(2017), 「NGO 길라잡이 - 필리핀 편(개정판)」, 국제개발협력민간
단체협의회,
아시아빈곤선교센터(2008), 「2008년 총회 보고서」, 아시아빈곤선교센터
아시아빈곤선교센터(2009), 「2009년 총회 보고서」, 아시아빈곤선교센터
캠프, 한신대 지역발전센터(2010), 「“타워빌 강제이주 지역 설문조사 보고서」, 캠프
캠프(2013), 「2013 필리핀 이주민지역 지역조사 결과보고서」, 캠프, 미간행 보고서
캠프(2014), 「2014년 연간보고서」, 사단법인 캠프
캠프(2015), 「2015년 연간보고서」, 사단법인 캠프
캠프(2016), 「2016년 연간보고서」, 사단법인 캠프
지구촌보건의료연구소(2016), 「2015년 아카데미협력프로그램 성과관리협력사업 성과관리보고서 3차」,
지구촌보건의료연구소
캠프(2017), 「2017년 연간보고서」, 사단법인 캠프
캠프(2018), 「2018년 연간보고서」, 사단법인 캠프
캠프(2018), 「민관협력사업 사업약정이행결과보고서」, 사단법인 캠프
캠프(2019), 「2019년 연간보고서」, 사단법인 캠프

4. 기타

김은영(2019), “우리가 몰랐던 사회적 경제 필리핀 편”, 라이프인 9월20일자
라이프인(2019), “국제개발과 사회적 경제가 만났을 때”, 2019.12.11.
박종남(2020) “개발협력에서 사회적 경제의 장점과 차별점”, 라이프인 2020.1.9
TESDA
https://en.wikipedia.org/wiki/Technical_Education_and_Skills_Development_Authority#Community-based_programs
TESDA, Training Regulation, DressMaking NCII, Garment Sector, TESDA

[2020 IGTING Survey]

- This is 2020 IGTING Survey to measure how IGTING contribute to your life as a job and a social organization and also measure your satisfaction with IGTING

[Agreement of this survey]

I fully understood the purpose of this survey and I agree to participate it	
① Agree	② Disagree

[Profile : Individual Profile]

1. Age
2. Age group
① Below 18
② 18 to 24
③ 25 to 29
④ 30 to 34
⑤ 35 to 39
⑥ 40 to 44
⑦ 45 to 49
⑧ 50 to 54
⑨ 55 to 59
⑩ 60 to 69
⑪ Above 70
3. Gender
① Female
② Male
③ Gender Variant
④ Not Listed (Other)
⑤ Prefer not to answer
4. Educational attai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No formal education ② Elementary Undergraduate ③ Elementary Graduate ④ High school Undergraduate ⑤ High school Graduate ⑥ Vocational / Technical courses ⑦ College Undergraduate ⑧ College Graduate ⑨ Above College level ⑩ Prefer not to answer
5. Civil st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Married ② Widowed ③ Divorced ④ Separated ⑤ In a domestic partnership or civil union ⑥ Single, but cohabiting with a significant other ⑦ Single, never married ⑧ Not listed (Other) ⑨ Prefer not to answer
6. Relig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No religion ② Roman Catholic ③ Protestant ④ Iglesia ni Cristo ⑤ Jehova's Witness ⑥ Saturday Adventist ⑦ Muslim ⑧ Mormons ⑨ Dating Daan ⑩ Not listed (Other religious affiliations) ⑪ Prefer not to answer
7. Language

① Tagalog
② English
③ Ilocano
④ Pangasinan
⑤ Cebuano
⑥ Kapampangan
⑦ Not listed (Other)
8. Number of family members in the household
① Single
② 2~4
③ 5~7
④ 8~10
⑤ Not listed (Other)
9. Place of birth

[Profile : Towerville and Igting]

1. Year of relocation in Towerville
2. Year of relocation in Towerville (Group)
① 1990~1995
② 1996~2000
③ 2001~2005
④ 2006~2010
⑤ 2011~2015
⑥ 2016~2020
⑦ Not listed (Other)
3. Residence (Phase)
① Phase1
② Phase2
③ Phase3
④ Phase4
⑤ Phase5
⑥ Phase6
⑦ Not listed (Other)
4. Year of Joining Igting
5. Year of Joining Igting (Group)

① 2011~2014
② 2015~2017
③ 2018~2020
6. How did you know the organization Igting
7, Monthly Income (Before relocation, After relocation, After participation Igting)
① Below 3000php
② Over 3000 below 4500php
③ Over 4500 below 6000php
④ Over 6000 below 7500php
⑤ Over 7500 below 9000php
⑥ Over 9000 below 12000php
⑦ Over 12000php
8. Satisfaction with your monthly income (Before relocation, After relocation, After participation Igting)
① Very satisfied
② Satisfied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Dissatisfied
⑤ Very dissatisfied
9. Do you have income from other economic activities now? (If you have, please specify, what is that activity? and income from that activities)
10, Working hour (per 1 week) (Before relocation, After relocation, After participation Igting)
① No job
② Below 15 hours
③ Over 15 to 30 hours
④ Over 30 to 45 hours
⑤ Over 45 hours
11. Satisfaction with your working hour (Before relocation, After relocation, After participation Igting)
① Very satisfied
② Satisfied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Dissatisfied
⑤ Very dissatisfied

12. Estimated number of hours spent in Igting every week (from organization, and community activities; except working hour)

Member's role in the household]

(Before relocation, After relocation, After participation Igting)

1. I was proud that I can contribute in financing my family's needs and expense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2. I often made decisions alone for my family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3. Decision making was equally shared between me and my partners(husband or other)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4. My family listened to my ideas and opinions on household matter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5. I did all the household chores in my hom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6. I was overburdened when it comes to doing household chore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7. I had enough time for activities beyond my work and household duties (hobbies, socialization, self-development, etc.)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8. I did not experience any gender-related violence in my own hom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9. I was happy with my position in my own hom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Member's role in the community]

(Before relocation, After relocation, After participation Igting)

1. Beyond my household chores and work, I had enough time to attend community activitie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2. I actively participated in community activitie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3. I had leadership roles in my community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4. My fellow community members listened to my ideas and opinions on community matter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5. I did not experience any gender related violence in my own community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Member's outlook on personal life]

(Before relocation, After relocation, After participation Igting)

1. I felt secured with my own lif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2. I felt secured with my family's lif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3. I satisfied with my family's condition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4. I wanted to improve my own skills, talents, and attitud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5. I had enough sources and opportunities for self-development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6. I had enough sources and opportunities to improve my family's condition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Member's perceptions and satisfaction about Igting]

(Before relocation, After relocation, After participation Igting)

1. I properly understand the vision, mission and goals of Igting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2. I properly understan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Igting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3. I properly understand my roles as a member of Igting
① Strongly Disagr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4. I have responsibility in the Ig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5. I want to increase my salary/wage/benefits in my job at Ig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6. I participate actively in the organizational activities of Igting (beyond sew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7. I am proud to be a member of Ig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8. I have good relationships with my fellow Igting memb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9. All Igting members have good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10. Igting provides opportunities for all of its members to become better sewer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11. Igting provides opportunities for all of its members to learn beyond sewing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12. The organization properly address any problems that it may encounter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13. The leadership of the organization is fair in all of its policies and decision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14. The leadership of the organization properly consults its members for its plans and decision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15. I am satisfied with the current status of Igting right now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16. I do not experience any gender-related violence in my work and other activities at Igting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17. Joining Igting made me a better person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18. Igting gave me opportunities to improve my family's lif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19. I believe that the whole Towerville community benefits from the services of Igting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